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8월
박사학위논문

가정소설에 나타난 음모양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 청

가정소설에 나타난 음모양상 연구

A Study on Aspect of plot in Korean domestic novel

2014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 청

가정소설에 나타난 음모양상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 청

한청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전남	대학교	교수 신해진	(인)
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조희무	(인)
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이상원	(인)
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김미령	(인)
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김수증	(인)

2014 년 6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2. 연구사 검토	4
II. 가정소설의 개념과 음모	15
1. 가정소설의 개념과 유형	15
2. 왜 음모인가	34
III. 가정소설의 형성배경	38
1. 사회문화적 배경	38
2. 문학적 배경	49
IV. 음모의 양상	54
1. 애정결핍과 편애에 따른 친자식 살해	54
2. 편애와 소외감에 따른 임신(낙태)조작	62
3. 무조건적인 정절의식에 따른 간부위장	72
4. 질투와 시기지심에 따른 독극물 투약	85
5. 신분상승과 애정욕구에 따른 살인청부	91
6. 재산과 권세욕에 따른 납치와 저주위조	95
V. 음모양상을 통해서 본 소설사적 함의	103
1. 열녀되기를 강요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	104

2. 독선적이고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아버지) 고발	108
3. 개인 욕망과 자아의식에 눈뜨는 여성	116
4. 기존 질서와 가부장제에 대한 세대교체론 인식	121
 VI. 결 론	 125
 참고문헌	 129

표 목 차

〈표 1〉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59.	22
〈표 2〉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22
〈표 3〉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 계모형·쟁총형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23
〈표 4〉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24
〈표 5〉 김귀석, 『조선시대 가정소설론』, 국학자료원, 1997.	24
〈표 6〉 이성권, 『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25
〈표 7〉 신해진,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	25
〈표 8〉 정격 가정소설 작품	27
〈표 9〉 변격 가정소설 작품	28
〈표 10〉 가정소설의 유형과 작품	33
〈표 11〉 친자식 살해 음모의 배경	61
〈표 12〉 친자식살해 음모양상	61
〈표 13〉 임신(낙태)조작 음모의 배경	71
〈표 14〉 임신(낙태)조작 음모양상	71
〈표 15〉 간부위장 음모의 배경	84
〈표 16〉 간부위장 음모양상	84
〈표 17〉 독극물 투약 음모의 배경	90
〈표 18〉 독극물투약 음모양상	90
〈표 19〉 살인청부 음모의 배경	94
〈표 20〉 살인청부 음모양상	94
〈표 21〉 납치와 저주위조 음모의 배경	98
〈표 22〉 납치와 저주위조 음모양상	98
〈표 23〉 음모와 음모결과 - 처첩형 <사씨남정기>	99

<표 24> 음모와 음모결과 - 처첩형 <옥난빙>	99
<표 25> 음모와 음모결과 - 처첩형 <정진사전>	100
<표 26> 음모와 음모결과 - 처처형 <월영낭자전>	100
<표 27> 음모와 음모결과 - 처처형 <조생원전>	101
<표 28> 음모와 음모결과 - 계모형 <김인향전>	101
<표 29> 음모와 음모결과 - 계모형 <장화홍련전>	101
<표 30> 음모와 음모결과 - 복합형 <정을선전>	102

ABSTRACT

A Study on Aspect of plot in Korean domestic novel

Han Jing

Advisor: Prof. Kim Su-jung,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general, domestic novels are defined as those which describe human affairs occurring at home. With such a meaning, the base of domestic novels is the home. A home where family members gather is a fundamental living space for people and the starting point of human society.

Therefore, to look into a home is to see a cross side of human life, through which we can draw an axis of human affairs at that time. A domestic novel is a branch of ancient novels which attempt diverse discourses on humans and the world including all aspects of human affairs as well as insignificant things in human lives.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types and backgrounds of domestic novels, and the meaning in novel history by extracting 'aspects of conspiracy' from domestic novels. The literary value of conspiracy in domestic novels influenced the basis of this study. That is, types of evil women were not actively created in past ancient novels.

However, the active appearance of different types of evil women in domestic novels should be seriously dealt with in the history of novels. It was discovered that the appearance of evil women was highlighted through 'conspiracy.'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sults of the conspiracy was an important motive for this study.

In addition, that domestic novels are based on the cultural background of social and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time, and that they began as social products of the time, are main reasons why this study selected domestic novels as texts for study.

Therefore, this study defined conspiracy as devising a wicked design with a certain purpose of putting opponents into a crisis or driving them out, and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 texts with diverse aspects of conspiracy and the conspiracy as the base.

With a focus on such a viewpoint, the main content of each chapter in this paper is outlined as follows:

Chapter II described the concepts and types of domestic novels.

Chapter III divided into the background of domestic novels into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nd the literary background. Domestic novels are realistic as the conspiracy dissolved in the texts is a mean of reality.

This study extracted actual examples of conspiracy in 'Joseon Wangjo Silrok' along with confucian and institutional justification as a background of inference.

Why domestic novels could induce explosive popularity with readers of the late Joseon period was looked into through a literary background.

Chapter IV examined the aspects of conspiracy centering on eight texts which were categorized as domestic novels. It was intended to understand by whom and why conspiracy developed, what aspects of the conspiracy are developed and what the solution is.

The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novels and their meaning in the history of novels were inferred.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domestic novels are a mirror of the time in that conspiracy existed at the peak of conflicts in domestic novels and through the conspiracy, the opposing structures of good and evil were consolidated, the immersion of the

readers increased and the aspects of conspiracy became more realistic.

Secon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ition of women who appeared as a common denominator in novels and domestic novels.

Third, it was discovered that domestic novels projected the ideologies of the time including affection, jealousy and the struggle for money, the desire for raising one's status, and family awareness, dealing with discourses on huge communities.

Also, four implications in the history of domestic novels located with such viewpoints were discovered according to their type.

First, unconditional sacrifice which was forced on women at that time, that is, filial piety and chastity, was a structural problem of the system of society and many virtuous women had to be produced.

Second, there was a problem in the social system at that time as a base of such conspiracy, but the ignorance of husbands who were disinterested in a home family could be a serious factor.

Third, there was the self-consciousness burgeoned from women who were forced to obey the system in the closed society of Joseon.

Finally, the patriarchal order expressed in stories of women in domestic novels was dismantled.

I.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일반적으로 가정소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유형군을 지칭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소설의 근간은 가정이다. 또 가족이 모여 형성된 가정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생활공간이자 인류사회의 시작지점이 되는 곳이다. 따라서 가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람살이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 단면들을 통해 우리는 당대 인간사의 한 축을 끌어낼 수 있다. 그만큼 가정소설은 소소한 인간의 일상에서부터 인간사의 제반 모습까지를 담아내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시도하는 고소설의 갈래다.

일반적으로 가정소설은 17세기 말 <사씨남정기>를 필두로 18~19세기를 경유하면서 활발히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17세기 이전에도 가정을 주제로 한 소설이 창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16세기 말~17세기는 가정소설이 본격화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지속적인 양반계층 내부의 극심한 당쟁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력의 핵심에서 몰락하는 양반들이 늘어났는가 하면, 신분질서는 무너져 갔고, 위기에 처한 양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색이 절실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 먼저 제기된 것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였고, 이를 전면에 드러내는 가정소설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것이다.

한편, 가정소설은 고소설과 신소설을 연결시키는 매개고리로서의 역할에서도 다른 고소설 갈래보다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소설사의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¹⁾

또 가정소설은 봉건적 가부장제도 하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다루되, 기존의 소설과는 달리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여성 인물들의 다양한 형상과 성격에 주목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소설사에서 ‘악인의 형상’으로서 ‘악녀’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시도하고 구축해 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

1)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p.289.

받고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아울러 여타의 고소설의 한계로 인식되는 비현실성을 벗고, 가정소설은 본격적으로 현실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삶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가정이라는 배경 하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의 담론까지를 아우르고 있어서 부녀자에게까지 독자층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소설은 본격적인 소설시대를 여는 선도적 역할로서, 또 소설사적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가정소설 중 몇 작품을 빼고는 대부분 작가와 창작연대가 미상인 작품들이 많아 작품 분석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²⁾

그럼에도 가정소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부분 진척되었고, 다양한 성과물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접근방식과 인식을 고수해 왔다는 반성도 있고,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유형군이기도 하다. 그 중 ‘가정소설’이라는 개념과 범주에 대한 다양한 견해 제시도 그러한 모습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소설’이 여전히 개척해야 할 영역이 많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본고는 우선 ‘가정소설’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가정소설’이란 봉건사회 가족제도 하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소설화한 것으로 기존 구성원과 새로 유입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규정하고자 한다.³⁾

한편, 가정소설 속에는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분유지, 가문 계승, 재산 축적 등 다양한 욕망들이 교차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갖는다. 예를 들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 구성원과 새로 유입된 구성원들 간에 빚어지는 언행, 태도, 존재이유가 서로의 이익을 침범하거나, 이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못 얻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 다양한 갈등으로 표출된다는 말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 구성원들은 대안들을 모색

2) <사씨남정기>는 김만중(金萬重, 1637~1692)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일락정기>의 작가는 이이순(李頤淳, 1754~1832)으로 추정되었다. 그밖의 가정소설은 작가와 창작연대를 알 수 없다.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보고사, 2004, p.118.

3) 이는 머어덕(G. P. Murdock)이 내린 ‘家族’이란 개념에 근거한 것인데, ‘가족’의 범위를 비교적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 정립은 Ⅱ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하는데, 여기에 바로 ‘음모’가 등장한다. 이때 음모는 새 구성원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다보니 ‘가정소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휩쓸리게 다루는 작품치고 ‘음모’가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 없을 정도다. 그만큼 음모는 ‘가정소설’에서 주요한 모티프이자, 당대사의 중요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음모’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1차적으로 거기에 담긴 갈등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을뿐더러, ‘음모’라는 행위 분석을 통해 당대 시대의 선과 악의 문제, 제도와 문화의 제반 양상을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정소설이 담고 있는 문학사적 가치로서의 ‘악인의 형상’이 문학적 화두인 ‘음모’라는 지점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한다고 볼 때, ‘음모’에 대한 고찰은 가정소설의 문학사적 의미를 좀 더 면밀히 재조명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동안의 성과물 중 ‘음모’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세 편의 연구가 자주 인용되는데, 그중 하나가 박성익의 「고대소설속의 중상모략」⁴⁾, 김현룡의 「고소설의 부정누명 소재고」⁵⁾, 그리고 박경열의 「〈정을선전〉에 나타난 음모와 선인의 부정에 대한 소망」⁶⁾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가정소설에 나타난 음모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면 II장을 통해 그간의 ‘가족’과 ‘가정소설’의 개념과 범위를 비교, 분석한 후 명확한 개념 정리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가정소설 범주에 드는 텍스트를 선정한 후 유형별로 분류해 볼 것이다. 아울러 본고가 목표로 하는 ‘음모’에 대한 문학적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다. 이는 본고가 ‘음모양상’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III장에서는 가정소설의 형성배경을 살펴볼 것인데, ‘음모양상’에 집중한다는

4) 박성익, 「고대소설속의 중상모략」, 『세대』 제3권 통권19호, 세대사, 1965.

작품 속에 드러나는 가정적인 갈등과 모략·중상, 정치적인 야심과 모략·중상을 고찰하였다

5) 김현룡, 「고소설의 부정누명 소재고」, 『건국어문학』 제15,16합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여기서 그는 음모의 다양한 모습 중 여성이 쓰게 된 부정누명이 해명하기가 제일 힘든 음모라고 밝히고, 부정누명을 중심으로 관련인물 관계, 누명을 씌우는 방법과 해결방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6) 박경열, 「〈정을선전〉에 나타난 음모와 선인의 부정에 대한 소망」,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논집』 제26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2001.

〈정을선전〉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적 특성과 음모에 투영된 선인의 부정에 대한 소망을 살펴본 것들이다.

점에서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먼저 언급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실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음모양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가정소설이 본격화된 배경으로 ‘독자층’에 대한 ‘수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것이다.

IV장에서는 선정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개별 작품에서 어떤 ‘음모’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음모를 통해서 악인의 모습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 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인지 음모의 배경과 그에 대한 해결의 모습까지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IV장에서 분석된 음모배경과 음모양상을 중심으로 ‘가정소설’에서 ‘음모양상’이 내포하고 있는 소설사적 함의를 규명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소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당대 사회의 인식과 문화의 지형을 확장해 이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그동안 가정소설에 관한 연구 성과물은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어 그 양이 상당하다. 이를 분류해 본다면 가정소설의 명칭, 개념과 유형 분석, 가정소설의 사적 변모 등의 외적 연구와 가정소설 작품에 나타난 인물, 갈등, 가정소설에 나타난 의식 등을 다룬 내적 연구로 대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대표 성과물을 중심으로 언급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소설의 명칭 및 개념, 유형에 관한 대표 연구 성과물들이다. 문학사에서 ‘가정소설’이란 명칭은 1916년에 동아서관에서 발행된 작자 미상의 신소설 <수일룡>의 서문에서 처음 발견되었다.⁷⁾ 이 가정소설을 안확은 고소설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하였고⁸⁾ 이후 학계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7) 이원수, 앞의 책, p.14 참조.

家庭小說 水滸龍 序

“... 此 水滸龍이라 하는 小説은 家庭小說로 家庭에 惡者善者가 잇서서 善者는 先敗後勝하고 惡者는 先勝後敗함으로 靑年의게 模範되며 惡人의게 거우리 될지이다.”

8)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p.101.

뒤를 이어 가정소설의 개념과 유형을 규정한 많은 저서들이 나왔는데, 가정소설의 개념을 협의적인 개념⁹⁾과 광의적인 개념¹⁰⁾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모습이었다.¹¹⁾

다음은 가정소설의 사적 변모에 관한 연구다. 대표적으로는 이원수, 이성권 등의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가정소설이 변모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가정소설의 다채로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정소설의 관점을 확대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수¹²⁾는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가정소설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해명하고, 그 소설사적 위상을 정립하였다. 그리하여 당대의 현실이 가정소설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었고, 선행설화의 전통이 가정소설 형성에 중요한 모태가 되었으며, 다부제하 가족갈등은 조선시대 소설 독자층의 주류였던 부녀자들에게 현실성과 보편성을 겸비한 소재였기에 가정소설이 다량 출현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유형화된 작품군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후기의 가정소설은 초기 가정소설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심화·확대시킨 작품군과 문제의식이 둔화되면서 작품세계가 흥미 중심으로 통속화되는 경향, 초기의 가정소설과 다른 입체적인 시각에서 작품세계를 창조한

9)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8, p.297.

_____, 『국문학개설』, 을유문화사, 1959, pp.191~192.

정형용, 「소설」, 『국문학개론』(우리어문학회 저), 일성당서점, 1949, p.258.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pp.240~249.

김기동, 『한국고대소설사개론』, 대창문화사, 1956, pp.298~299.

_____,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59, p.329.

_____,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p.507.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pp.295~309.

이원수, 「가정소설의 갈등구조와 그 의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4.

_____, 위의 책, p.19.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p.16~22.

_____, 『국문학연습』,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pp.2~7.

최시한, 「가정소설의 구조와 전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p.8~11.

_____, 『가정소설연구』, 민음사, 1993, pp.24~28.

김귀석, 『조선시대 가정소설론』, 국학자료원, 1997, pp.18~25.

이성권, 『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pp.17~25.

10) 우쾌제, 『한국 가정소설 연구』, 1988, p.20.

김광순, 『한국고소설사와 론』, 1990, pp.481~491.

11) ‘가정소설’에 대한 명칭 및 범주는 그간의 연구 성과물을 중심으로 II장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12) 이원수, 앞의 책.

작품군으로 유형화하였다. 신문학에 있어서 작자들은 근대적 인권 의식에 기초한 중립적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관습적인 편향된 시각에 끌려가 버림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이성권¹³⁾은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가정소설사의 역사적 변모과정에 집중하여 17세기 말에 등장하는 가정소설의 초기 형태에서부터 그 영향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신소설에 이르기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7세기의 초기 가정소설은 처첩이 병존한 문벌 가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갈등사를 통해 문벌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적인 세력과 차세대 가장인 우매한 夫를 동시에 경계하고 단속함으로써 가정의 존속을 피하려는 작품으로 보았다. 18,9세기의 가정소설은 문벌가에서 서민적 가정으로 배경이 확대되면서 첩 외에 계모가 영입됨으로써 야기되는 서민가정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가장의 作妾과 가산 탕진으로 인한 가정 갈등의 모습을 당대의 시정 세태와 관련지어 보여줌으로써 가정 존속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설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20세기 초 가정소설은 개화기의 가정 내에서 전개되는 제반 가정 갈등사를 통해 완고한 양반 지배층 아래 놓인 구조상의 황폐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가정의 존속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난 ‘가정’이란 공간은 신규 세대에 개재된 당대의 문화적 갈등을 뚜렷이 드러내 보이고 있고 국가의 운명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그 사회 역사적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우쾌제¹⁴⁾는 중국의 열녀전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유입되어 가정소설의 형성 동인이 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박태상¹⁵⁾은 조선조 가정소설을 계모형과 쟁총형으로 설정하여 작품구조상의 특성, 그리고 당대 사회구조와의 연관성 및 문학사적 위치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소설은 조선조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관념적 실천을 내세우던 초기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되면서 파생하게 된,

13) 이성권, 위의 책.

14) 우쾌제,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 - 열녀전의 전래와 수용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_____, 앞의 책.

15) 박태상, 앞의 논문.

_____, 앞의 책.

가족 내의 모순된 관계 및 부부형태의 변형양상을 사실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작품구조와 서사내용이 당대의 사회구조와 상당부분 닮아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 또 한편 나름대로의 전통을 개화기소설이나 근대소설에 계승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정소설 작품 내적 연구로서 ‘인물’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표 학자로는 김재용, 위후량, 박경열, 조현우, 이지하, 신해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들은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특징과 역할을 당시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규범과 결합시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재용¹⁶⁾은 단순히 인물의 성격 분석에 머물지 않고 기존의 가족 구성에 새로이 편입해 들어오는 계모를 비롯하여 첩 그리고 제2부인을 ‘移住人’이라 명명하고, 계모형 인물의 행위 결과에 대한 관심을 행위의 동기로 전환시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또 移住人에 관한 이야기가 <단군신화>, <가락국기>, <동명왕신화>, <탈해신화>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으며, 신화에서 移住人에 대한 수용과 거부의 태도가 가정소설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계모형 인물들이 경제권에 대한 욕심과 소외감,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이해가 상충되는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모까지 꾸며 자신의 현실적 욕구를 달성시켜 나가지만 계모형 인물의 음모가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라 가정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황, 즉 가장권의 不在 혹은 무력의 상황에 행동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용¹⁷⁾은 ‘계모형 인물’이란 용어를 사용한 대표 학자인데, 이는 ‘계모형 가정소설’의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든다. 즉 그는 계모형 인물에 대해 “기존의 가족 구성에 새로이 편입해 들어오는 인물을 지칭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계모형 인물을 계모뿐만 아니라 첩과 제2부인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계모형 가정소설’이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부조화’로 일어난 갈등을 주제로 한 소설이라고 볼 때, 의미의 범주에서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후량¹⁸⁾은 고대소설에서 인간은 작자의 관념에 의하여 架空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많고 객관적 현실적으로 묘사된 인간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16) 김재용, 「계모형 인물 연구」, 『국어국문학연구』제12집, 원광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7.

17) 김재용, 앞의 논문.

18) 위후량, 「고대소설의 인물형 연구 -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논문집』제5집, 광주대학교, 1988.

라고 지적하면서, 가정소설 작품에 나타난 주된 인물인 정실, 적출, 첩, 계모, 남편 인물형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정소설은 유교의 도덕성을 주된 주제로 한 특성에 따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정실은 대체로 도덕의 모범적, 열녀의 인물형으로 표현되었고, 적출은 대개 명문의 출신으로 귀하게 성장한 인물로서 그 출생과정에서부터 기이한 초현실성을 띠면서 출생한 인물이며, 모두 지선한 효녀형 인물로 표현되었다. 또 첩은 어떠한 윤리나 관습에 구애됨이 없이 일상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고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부의 인물형으로 표현되었으며, 계모는 현숙한 적출에 대해 반감을 가지며 또 적출을 대하면 남편의 애정 분산이 우려되는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출에 대해 악행을 가한 악한 인물형으로 표현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남편은 체면만을 중시하고, 사실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무능함, 우유부단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낸 인물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후량의 연구는 가정소설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이 유교가 가진 도덕성의 영향 하에 작자의 주관과 관념에 의해 비현실적, 또는 불가능한 공상으로 조작된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논지의 타당성이 흐려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소설은 당시 조선사회의 ‘가정’이라는 ‘실제 현실’을 배경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소설이 지니고 있는 ‘현실성’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박경열은 악인을 주목하여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유형을 악한 어머니, 악한 아내로 분류하여 악인들은 악행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라기보다는 적합한 자격요건이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 악인으로 규정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악은 문제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가정소설에서의 악은 가정에 대한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보았고, 그러므로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은 가족에 대한 역할 기대에서 출현한 것이고, 그러한 역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 악인이 되고, 그러한 인물의 행동은 모두 악행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¹⁹⁾ 그 후의

19) 박경열,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유형과 악의 의미」, 『문학치료연구』제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

연구에서 가정 갈등의 주요 원인이 갈등 주체와 갈등 대상의 천성적으로 타고난 인성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갈등 주체가 가정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갈등주체의 행동에서 연유한 결과 악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인성 자체가 갈등 대상과는 다른 존재로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작품 결말에서 개과한 인물들이 본래 선한 인물인데 어떤 상황에 의해 잠시 본성을 잃었을 뿐이고 인성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악인이 곧 가정의 침입자이고, 이들이 어떤 악한 행동으로 악인이 된 것이 아니라 기존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에 합당하지 않아서 악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²⁰⁾

조현우²¹⁾는 <사씨남정기>의 사정옥과 교채란이라는 두 인물의 대립을 ‘선-악’의 대립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에 주목하면서 먼저 <사씨남정기>를 가문에 닥친 위기와 그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사씨남정기>에서 가문의 위기와 안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가부장제가 단순한 ‘계승’만이 아니라 남성 혈통의 순수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적통’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채란을 악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성의 성을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과정과 적통 중심의 가부장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이지하²²⁾는 고전소설 자료 중 계모형 가정소설의 범주에 속하는 <김인향전>을 주 텍스트로 하여 <장화홍련전>과의 비교를 토대로 하여 그 인물형상화 방식과 작품의 지향성이 맺고 있는 상관성을 밝혔다. <김인향전>은 <장화홍련전>과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으나 인물의 구성이나 문제의식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는 독자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 <장화홍련전>과는 여러 가지 차이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인물군을 확대하여 이야기의 합리적 전개를 도모하고 있고, 인물의 성격을 다각도로 살피고 입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설화적 인물 형상을 탈피하여 현실성을 획득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인물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개연성 있게 그려냄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20) 박경열,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형성조건과 그 의미」,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논집』 제39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2007.

21)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22) 이지하, 「<김인향전>의 인물형상화와 작품지향성의 관계」, 『동양고전연구』 제38집, 동양고전학회, 2010.

소설의 흥미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물형상화를 통해 보여준 합리적 지향이나 현실성의 추구와는 상반되어 보이는 비합리적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해진²³⁾은 17세기 후반에 <사씨남정기>의 악인 형상이 비로소 나타났다고 서술하였다. <사씨남정기>의 등장인물들은 실제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빚어낸 인물형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씨라는 악인 형상은 자신이 낳은 아들까지 죽이는 패륜적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상화 강도의 흡인력에 의해 정작 주목했어야 할 것들이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갈등의 축’, ‘악행의 양상’, ‘악행의 협조자들’로 항목을 나누어, <사씨남정기> 악인 형상의 토대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이항복의 <유연전>과 비교하였다. 17세기 초의 <유연전>은 실제의 사건에서 비롯되는 작품이고, 17세기 후반의 <사씨남정기>는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빚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비교하여 <사씨남정기>는 교씨를 악인으로 형상화하는데 허구화의 큰 틀은 이전시대의 현실에서 기반한 <유연전>의 백씨 인물형에서 가져오되, 세부적으로 변형한 데는 김만중의 창작적 몫이라 할 수 있는 솜씨가 가미된 것이라 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정소설에 나타난 ‘갈등’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에 관한 연구 성과는 분량상으로 가장 많이 축적돼 있는데, 주로 가정소설에 나타난 갈등구조를 나름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갈등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이원수, 이태옥, 이승복, 장시광 등을 들 수 있다.

이원수²⁴⁾는 가정소설의 갈등구조에 대해 애정갈등, 신분갈등, 주도권갈등, 기타 특이한 갈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정갈등은 처처간의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중심을 이룬 것이고 다처제의 필연적 업보이며, 처들은 가정 내적 지위에 있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째 처의 관심은 애정획득에 집중되며, 갈등에서의 승리는 애정의 확보로 귀착된다고 분석하였다. 신분갈등은 처첩간의 수평·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중심을 이룬 것이며, 남편과의 부부관계라는 점에서 첩은 처와 대등한 관계에 있으나 처의 결함을

23) 신해진, 「<사씨남정기> 교씨의 인물형상과 의미 - 형상의 소종래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제 1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24) 이원수, 앞의 논문.

보완하기 위하여 영입된다는 점에서 첩은 처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첩의 존재가치는 영입목적의 성취와 동일시되며, 처의 결함이 소멸되거나 처 자신에 의하여 해결 가능해지면 첩의 존재의의는 소멸되고 첩이 정실지위의 획득에 집착하는 것도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주도권갈등은 계모와 전처소생간의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중심을 이룬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간의 갈등은 죽은 전처를 매개로 하여 정립되며, 가족 간의 이질감 때문에 공동사회로서의 가정이 이익사회적인 성격으로 변질된 데 그 원인이 있고 계모와 전처소생은 제각기 가정 내적 주도권을 잡으려 하기에, 상호의 욕구가 상충됨으로써 갈등이 야기된다고 지적하였다. 특이형 갈등은 <정을선전>과 <반씨전>이 있는데, <정을선전>은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수직적 갈등과 처처 간의 수평적 갈등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고, <반씨전>에 나타난 동서 간의 갈등은 대가족제가 내포한 불합리의 일면을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하여, 가정소설의 획일성을 극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정소설의 갈등구조는 갈등이 미치는 영역과 외적 갈등의 개입여부에 따라 구심적 단일갈등과 원심적 복합갈등 두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심적 단일갈등은 가족 간의 갈등이 가정 내부에서 제기되고 해결되며, 갈등해결의 의미 역시 가정적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심적 복합갈등은 가족갈등이 가정 외로 확산되어 조정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연결되고 갈등해결의 의미는 가정화목의 회복이라는 일차적 의미 외에 정치적 실권회복이라는 부차적 의미도 상당히 부각된다고 하였다.

이태옥²⁵⁾은 선과 악의 갈등을 내포한 가정소설을 대상으로, 그러한 갈등구조의 분석과 갈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살피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밝혔다. 갈등이 일어나는 동기는 자신의 신분 상승 또는 자기 자식의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과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욕심이며 직접적인 계기는 계모나 첩이 낳은 또는 상대방이 낳은 아들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구조는 17세기 급격한 사회 변혁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데 윤리적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선인형과 그와 대립되는 물질적 현실적 가치관을 가진 악인형과의 갈등, 충족하고 누리고 있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 즉 있는 자와 없는 자와 갈등이라고 밝혔다.

25) 이태옥, 「조선조 가정소설에 나타난 갈등구조」, 『논문집』 제27집, 건국대학교, 1988.

이승복²⁶⁾은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양상을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계모갈등은 대체로 계모의 경제적 욕망이 주된 동기가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계모와 전실 자식은 명목상의 모자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그마저 벗어나 버리고 팽팽한 대립으로 치닫다가 고을 관장이나 전실 자식의 지위 상승이라는 가정 외적인 요소에 힘입어 계모가 징치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은 무분별하고 우유부단하여 갈등을 야기·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구²⁷⁾는 <사씨남정기>는 ‘처첩의 대립’보다는 ‘선악의 대립’을 기본적인 구도로 삼아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표명하고 있지만, 악의 파멸을 현실 생활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어떠한 고전소설보다 교훈적 성격과 함께 풍부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임을 밝혔다. 아울러 서포는 17세기라는 전화기적 국면 속에서 더욱 팽배해진 물질적 탐욕을 부조리한 현실의 근원으로 인식하였으며, <사씨남정기>를 통해 물질적 탐욕에 매몰되어 있는 인간들을 징계함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고 봉건 사대부로서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나름대로 추구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장시광²⁸⁾은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타적 의식, 재물에 대한 욕심 등 계모 콤플렉스, 그리고 가장 역할의 부재, 즉 가장의 편협한 성격과 가장의 부재는 계모가 악행을 저지르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작품 분석을 통해 계모와 전실소생 간의 갈등은 선과 악의 대결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모와 전실소생 간의 갈등은 실제로 계모와 전실의 갈등이고 전실소생이 그저 갈등의 매개자일 뿐이며, 전실소생이 여럿일 경우 그 가운데 주로 박대를 당하는 장녀는 계모가 생각한 전실의 전이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가정소설에 나타난 ‘의식’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 연구자로 우쾌제, 이원수, 장시광, 서혜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연구자들의 의식에 대해 견해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가정소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물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6) 이승복,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 양상과 의미」, 『관악어문연구』제20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27)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서포의 현실의식」, 『배달말』통권 제27호, 배달말학회, 2000.

28) 장시광, 「계모형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작가의식」, 『국문학연구』제7집, 국어국문학회, 2002.

우쾌제는 가정소설에서 부부의 역할은 가족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가 되며, 夫는 가장적 가족 통솔과 후사 계승 의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婦人은 현모양처과 정절적 열녀 의식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적 가족 의식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해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²⁹⁾ 그 후의 연구에서 자식의 역할과 가족 의식으로 부모에 대한 희생적 봉친 의식과 가문 창달의식을 들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³⁰⁾

이원수³¹⁾는 주로 작자의 시각과 의식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초기 가정소설의 작가는 갈등의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은폐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합리적인 새 질서를 추구하지 못하고 이를 합리화함으로써 거기에 안주하려 한 의식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시광³²⁾은 계모형 소설에서 가장이 무능하고 어리석게 등장하는 것은 물론 가장권이 약화된 조선후기 가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작품의 표면에 보이는 모습일 뿐, 작가는 오히려 가장이 무능하고 가장이 없는 가정의 상황을 상정해 그러한 곳에서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곧 가부장권 중심사회 체제 하에 처한 여성층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가부장의 역할 부재를 소재로 하여 가정에서의 가장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려 한 보수적 남성층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혜은³³⁾은 국문 필사본으로만 현전하는 41종의 <조생원전>을 대상으로 이본 계열을 분류하고, <조생원전>의 이본에 드러난 여성 독자층의 향유의식을 고찰했다. 첫째, <조생원전>의 국문 필사본 이본을 결말의 형태에 따라 6계열로 분류하였으며, 개성적인 측면이 강한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원 소장 43장본과 40장본 그리고 세종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기타 계열로 분류했다. 둘째, 6계열로 분류한 <조생원전>의 이본에 함께 수록된 필사기, 편지, 가사, 소설 작품을 통해서 여성 독자층이 <조생원전>을 향유했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셋째,

29) 우쾌제, 「가정소설에 나타난 부부의 역할과 가족의식 고찰」, 『우리문학연구』제10집, 우리문화회, 1995.

30) 우쾌제, 「가정소설에 나타난 가족의식 고찰」, 『고소설연구』제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31) 이원수, 앞의 책.

32) 장시광, 앞의 논문.

33) 서혜은, 「<조생원전>의 이본 계열과 여성 독자층의 향유 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분류한 이본 계열을 통해서 <조생원전>의 여성 독자층들은 주로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킨 장씨 부인의 열행과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하며 오륜과 같은 실천 윤리를 우선시하는 자녀 교육관에 깊이 공감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II. 가정소설의 개념과 음모

1. 가정소설의 개념과 유형

앞서 언급했듯이 가정소설 개념에 대한 논란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가정’을 이루는 ‘가족’의 범위 문제와 작품의 중심축인 갈등의 성격 문제이다. 왜냐하면 ‘가정소설’이 기본적으로는 ‘가정 내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범주를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머어덕(G. P. Murdock)의 개념은 꽤 유효하다. 그의 개념은 학계에서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고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인식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그에 따르면 “家族이란 共同의 居住, 經濟的 協力, 그리고 生殖이란 특성을 갖는 社會集團이다. 家族은 性關係를 許容받은 最小限의 成人 男女와 그들에게서 출생하였거나 養子로 된 子女로서 이루어졌다”³⁴⁾고 하였다. 이때 머어덕이 의미하는 가족의 범위는 부부 중심의 자녀를 포함하는 범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이는 ‘가정소설’이 일차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 내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일치한다.

또 머어덕의 가족 개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봉건사회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새로 유입된 구성원들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모와 제2부인이나 첩이 그 대상이라고 하겠는데, 가정소설의 갈등 주체자들이 바로 이들이거나, 이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가정소설’이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34) Muodock, G. P. “Social structure”, N. Y. Free press, 1966, p1.

이광규,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一志社, 1975, p23, 재인용.

35) 이광규가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에서 조선시대 경상도 울산부 5개 리의 己酉式戶籍大帳(英祖 5년, 1729)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는데 그 중에서 전체의 78.4%가 핵가족이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전국의 분석결과가 아니지만 그 당시의 대체적인 가족유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크기는 常人이나 양반의 戶에 기재된 노비의 수를 제외할 때 평균가족원수는 3.6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1990, pp.200~216 참조.

‘가정소설’이라는 명칭은 1916년 동아서관에서 발행한 작자 미상의 신소설 <수일룡> 서문에서 발견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이후 안확은 『조선문학사』에서 ‘가정소설’을 고소설의 유형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는 ‘가정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家庭小説은 其類가 頗多라. 그런데 兄弟間의 葛藤보다 繼母子間의 葛藤, 시앗싸움이 多한지라. 「謝氏南征記」에는 正室이 勸告하야 作妾 하얏다가 正室이 反히 기첩에게 姦逐을 當하얏고 「楊風雲傳」에는 三男妹가 其庶母에게 被逐되고 終에는 其父까지 姦逐을 當하니라. 「薔花紅蓮傳」은 繼母子間에 生한 悲劇이니 薔紅兩女가 水에 投하야 死하매 其怨魂은 其郡守를 驚死케함에 至하니라.³⁷⁾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안확은 가정소설의 개념을 분명히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계모자식 간의 갈등과 시앗싸움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소재적 특징을 분명히 하여 가정소설이라는 범주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개별 작품으로 <謝氏南征記>, <楊風雲傳>, <薔花紅蓮傳>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안확의 이런 견해는 ‘가정소설’을 국문학사의 범주로 끌어오게 한 첫 인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뒤이어 김태준과 고정옥은 ‘<장화홍련전>과 기타 공안류’라는 부분을 설정해 <장화홍련전>을 공안류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계모소설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였다.³⁸⁾ 이와 유사한 견해로 박성의도 『한국고대소설사』를 통해서 <장화홍련전>을 계모소설로 분류하였다.³⁹⁾

이러한 성과물을 통하여 ‘가정소설’이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36) 각주7) 참조.

37) 안확, 앞의 책.

김귀석, 앞의 책.

38) 김태준,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pp.177~185.

“이 소설은 칠산 배좌수의 실담(實談)을 기초로 하고 <영응전>(靈應傳)이나 <두아원>(寶娥冤: 元曲)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원혼의 공청(公廳) 출현 설화와 <숙향전>, 진(晉)·당(唐) 소설 등에서 볼 수 있는 청조(靑鳥)의 길 안내 등 전설을 부회(附會)해서 이룬 계모소설이니 무릇 봉건사회의 가족에 있어서 계모의 포학이란 흔히 있는 일로서 일본의 <낙와>(落窪)·<주길>(住吉)·<추월>(秋月)·<복옥>(伏屋)·<미인교>(美人較)·<암옥초자>(岩屋草子)·<조안로>(朝顔露)·<화야희>(花夜姬)도 이에 속할 것이지만 조선에서도 <콩쥐팍쥐>·<정을선전>·<장풍운전>·<어룡전>등 계모소설이 적지 아니하다.”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 1948, p136.

39)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pp.364~380.

_____, 『한국고대소설론과 사』, 집문당, 1986, pp.360~377.

자리를 잡았으며, 가정소설의 개념에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개진되었다.

이러한 견해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협의적인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이 그것이다.

먼저 협의적인 개념은 조운제, 김기동, 정주동, 이원수, 박태상, 김귀석, 이성권 등에 의해 연구가 진척되었다.

“家庭小說이라고 한 것은 家庭內에서 일어나는 事實에서 取材한 小說을 意味하고자 한 것인데, 家庭內의 事實이라 하더라도 主로 繼母와 先妻所生과의 關係事或은 妻妾間에 일어나는 事實 등이 되겠다.”⁴⁰⁾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조운제는 『한국문학사』를 통해 ‘가정소설이라고 한 것은 가정 내에서 계모와 전처소생과의 관계사와 처첩 간에 일어나는 사실’ 등이라며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처가 죽고 그 소생이 있을 때 계모가 들어오거나 일부다처주의의 세상에서 처첩이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 풍파가 일어난다고 하여, 당대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의 핵심이 제도적인 모순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국문학개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한국 옛날 가족제도와 일부다처의 공동생활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가정 사건의 양상이라고 하였다.⁴¹⁾

김기동은 처음에 『한국고대소설사개론』에서 “고대소설 작가들은 동양적인 가정생활의 悲劇과 矛盾을 주제로 하여 쓴 작품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소설을 가정소설이라 하였다.”고 언급하며, 동양의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에 있어서 한 남성과 여러 여성이 같이 살아 벌어진 풍파극절과 후처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사이에 야기되는 비극을 가정소설이라고 서술하였다. 아울러 “가정소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니 하나는 계모형의 소설이요 하나는 쟁총형의 소설이라 할 수 있다.”⁴²⁾고 하였다. 이후 『이조시대소설론』과 『한국고전소설연구』에서 가정소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하였는데, “家庭小說이란 家庭 안에서의 生活을 주로 表現

40) 조운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8, p.297.

41) 조운제, 『국문학개설』, 을유문화사, 1959, pp.191~192.

42) 김기동, 『한국고대소설사개론』, 대창문화사, 1956, pp.298~299.

한 作品을 말함은 물론이나, 古典小說 중에서도 특히 家庭生活에 있어서의 矛盾과 葛藤과 軋轢과 悲劇을 표현한 作品들을 家庭小說이라 해 보았다.”⁴³⁾고 하면서, 동양적인 가족제도와 결혼제도로 인해 부자간의 軋轢, 형제간의 不和, 처첩간의 갈등, 同嬖간의 猜忌, 舅姑간의 다툼, 계모와 전처소생간의 갈등 등은 의례히 풍파와 비극을 초래하였고,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처첩간의 비극과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간의 비극을 이조시대의 작가들은 주로 다루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가정소설을 쟁송형과 계모형, 가정소설과 윤리소설의 두 유형이 융합된 작품 <창선감의록>으로 분류하였다.

정주동은 먼저 “家庭小說이란 家族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喜悲에 얽힌 事件을 표현한 小說이다”⁴⁴⁾고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범위에 대해 “가정소설이란 孝, 烈, 友愛 등 家庭倫理를 高調한 小說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家庭小說이 아니라, 주로 지난날 東洋의 家庭生活에 있어서의 모순과 갈등과 悲劇을 표현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家庭小說을 말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孝, 烈, 友愛 등을 高調한 家庭小說은 家庭小說의 領域에서 보다도 倫理小說의 領域에서 다루는 것이 穩當할 것 같다.”⁴⁵⁾고 한정하였다. 동시에 가정소설을 계모형, 쟁송형, 축출형, 특수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원수는 작품 내적 갈등의 성격을 기준으로 가정소설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가정소설은 “봉건가족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가족성원의 이질감에서 야기되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소설”, “한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대내적 갈등에 관심이 집중된다.”⁴⁶⁾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의 성격을 분명히 적시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여 ‘일부다부제’ 아래서의 문제적 가족구성에서 기인된 가족갈등이 서사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소설로 가정소설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多婦制에서 야기된 ‘처-첩(처) 갈등’이나 ‘계모-전처자식 갈등’을 주제적 관심사로 삼고 있는 작품들만 이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하였다.” 이는 앞서 규정한 개념과 그 외연을 거의 같이 하되, 그 유형적 성격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⁴⁷⁾

43)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59, p.329.
 _____,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p.507.

44) 정주동, 앞의 책, pp.295~309.

45) 정주동, 위의 책, pp.295~309.

46) 이원수, 앞의 논문, p.4.

박태상은 레비스트로스의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소설이란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 내지 결합의 관계가 경제적, 심리적 갈등요인으로 인해 깨지게 됨에 따라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에 비극적인 갈등을 빚게 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고 하며, “가족에 있어서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인남녀 중 한 사람이 同居集團에서 이탈하거나(죽게되는 경우 포함), 새로운 인물이 동거집단에 유입되었을 때 그러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⁴⁹⁾고 가정소설의 전제조건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정소설을 계모형과 쟁총형으로 구분하였다.

김귀석은 가정소설의 개념을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는데, ①家庭內의 問題를 素材로, ②家庭의 構成員인 自然的 構成員(血緣關係)과 非自然的 構成員(非血緣關係) 간의 不調和로 일어나는 사건, ③家庭과 관련한 制度的 矛盾과 家禍의 弊害를 是正, 警戒하는 內容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올바른 家庭倫理, 家庭道德의 提高를 目的으로 한다고 언급하였다.⁵⁰⁾ 그리고 이 가정소설의 개념에 부합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크게 계모형과 쟁총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편, 이성권은 가정소설의 개념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존의 학자들과는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가정소설이 17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전개에 따른 소설 유형이라고 말하고, “17세기에서 20세기 초의 사회 역사적 배경 아래 문벌가 및 서민 계층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갈등사를 통해 가정의 존속, 또는 그 해체 과정을 그려내는 작품”⁵¹⁾이라 구체화하였다. 이어서 각 단계에 따른 가정소설의 개념을 간략히 제시하면서 가정소설의 역사적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⁵²⁾

47) 이원수, 앞의 책, p.19.

48) 박태상, 앞의 논문, pp.16~22.

_____, 앞의 책, pp.2~7.

49) 박태상, 위의 논문, pp.16~22.

_____, 위의 책, pp.2~7.

50) 김귀석, 앞의 책, pp.18~25.

51) 이성권, 앞의 책, pp.17~25.

52) 이성권, 위의 책, pp.17~25.

“가정소설이란 17세기 말엽, 妾의 迎入으로 빚어지는 가정내 갈등으로써 문벌가의 존속적 위기를 다루다가, 18,9세기에 와서는 繼母의 영입으로 야기되는 가정내 갈등을 통해 서민적 가정의 비극상을 다루고, 한편으로는 作妾과 사치로 家産을 탕진하는 가정 풍속을 드러냄으로써 가정 경제의 존속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와서는, ‘舊朝鮮의 頑固하고도 비극적인 실상을 보여 주기 위한 차원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다양한 갈등상을 보여주고, 이것을 개화 이념을 추구함으로써 해결해

반면, 광의적인 개념을 내린 학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주로 우쾌제, 김광순 등이 대표 인물이다.

우쾌제는 “家庭小説은 家庭內에서 家庭構成員間에 야기되는 喜悲의 事件을 다룬 것으로 반드시 勸善懲惡의 教訓性을 갖춘 內容이어야 하며, 同一家庭內에서 善人과 惡人이 있어 善人이 勝利하고 惡人이 敗北하게 함으로 충분한 教訓的 效果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동시에, 讀者들에게 善勝 惡敗의 시원스런 快感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충분한 文學的 效果(카타르시스)를 거둘 수 있게 한 作品이라 할 수 있다”⁵³⁾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그는 가정소설을 ‘윤리적 갈등소설’과 ‘신분적 갈등소설’로 나누었고, 전자를 광의적 가정소설, 후자를 협의적 가정소설이라고 하였다. 또한 광의적 가정소설을 효행형, 우애형, 정절형, 협의적 가정소설을 계모형, 쟁충형, 축출형, 특수형으로 분류하였다.⁵⁴⁾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 보건대, 우쾌제는 가정소설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고소설 작품 중에 가정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작품이 거의 없고 작품의 인물들의 출생과 성장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박태상의 논문⁵⁵⁾에서도 필자와 같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광순은 “가정소설은 가정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혈연적 조직체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갈등이나 가정과 가정 혹은 한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⁵⁶⁾고 하였고 “대부분의 소설에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정소설은 이와 같은 갈등이 중심 主楮가 되는 작품만을 지칭한 것이다.”⁵⁷⁾고 강조하였다.

또 가정소설을 단일 가정 내에서 그 구성원 상호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나갈 수 있다고 보여주는 소설’이다.”

53) 우쾌제, 앞의 책, p.20.

54) 우쾌제, 위의 책, pp.22~43.

55) 박태상도 논문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가정소설의 유형분류에서 가정소설의 범주를 너무 넓게 잡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홍길동전>, <춘향전>, <소대성전>, <숙영낭자전>등 사회소설, 영웅소설, 애정소설의 범주에 들어갈 작품들도 모두 가정소설로 포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태상, 앞의 논문, p.15.

56) 김광순, 앞의 책, pp.481~491.

57) 김광순, 앞의 책, p.481.

있는 좁은 의미의 가정소설과 가정과 가정, 혹은 한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상호간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넓은 의미의 가정소설, 즉 가문소설을 분류하였고 좁은 의미의 가정소설 아래에 쟁충형, 계모형, 우애형을 넣어 분류하였고, 넓은 의미의 가정소설은 가문소설이라 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광의적 개념은 주로 순수한 소재적 범주로 설정하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든 작품들을 가정소설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고소설의 대부분 작품들이 다 가정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장성해서 죽을 때까지 주요배경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광범위한 가정소설의 범주 설정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하는 학계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가정소설을 정의하면, ‘가정소설은 봉건사회 가족제도 하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소설화한 것으로 기존 구성원과 새로 유입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이야기 작품군’을 지칭한다. 이때 효, 열, 우애 등 가정윤리를 주제로 하는 작품은 가정소설의 범주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는 가정소설의 영역이라기보다 윤리소설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⁵⁹⁾

이에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가정소설 작품들을 이러한 가정소설의 개념에 따라 선정할 것이다. 작품 선정을 위해 앞서 협의의 개념을 정의한 학자들이 어떤 작품을 선정하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8) 김광순, 위의 책, pp.481~491.

59) 이에 대해서는 정주동의 견해(각주 43번 참조.)와도 같음을 밝힌다.

<표 1>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59.

번호	유형	작 품	작 자	창작연대
1	쟁송형	<사씨남정기>	김만중	1689년(숙종 15)~ 1692년(숙종 18) 추정
2		<옥린몽>	이정작	조선후기 추정
3		<조생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4		<정진사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5	계모형	<장화홍련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6		<콩쥐팍쥐전>	미상	1919년
7		<정을선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8		<김인향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9		<황월선전>	미상	조선후기 19세기 후반 추정
10		<김취경전>	미상	1893년(고종30년) 12월
11		<어룡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2		<양풍운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3	가정소설+ 윤리소설	<창선감의록>	조성기 60)	1638년~1689년 추정

<표 2>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번호	유형	작 품	작 자	창작연대
1	계모형	<장화홍련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2		<콩쥐팍쥐전>	미상	1919년
3		<정을선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4		<김인향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5		<황월선전>	미상	조선후기 19세기 후반 추정
6		<김취경전>	미상	1893년(고종30년) 12월
7		<어룡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8		<양풍운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9	쟁송형	<사씨남정기>	김만중	1689년(숙종 15)~ 1692년(숙종 18) 추정
10		<옥린몽>	이정작	조선후기 추정
11		<정진사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2		<조생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3	축출형	<신유복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14		<진대방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15		<소대성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16	특수형	<홍길동전>	허균	조선중기 추정
17		<구운몽>	김만중	조선후기 추정

60) 작자의 이설로 鄭東浚(鄭浚東의 잘못일 것이라고 함)설과 金道洙(1699~1733)설도 제기된 바 있다. 김태준, 앞의 책, pp.160~162.

<표 3>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 계모형·쟁총형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번호	유형	작 품	작 자	창작연대
1	계모형	<장화홍련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2		<황월선전>	미상	조선후기 19세기 후반 추정
3		<김인향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4		<양풍운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5		<조생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6		<김취경전>	미상	1893년(고종30년) 12월
7		<창선감의록>	조성기	1638년~1689년 추정
8		<김전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9		<정을선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0		<어룡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1		<반씨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12	쟁총형	<사씨남정기>	김만중	1689년(숙종 15)~ 1692년(숙종 18) 추정
13		<소씨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14		<소현성록>	미상	조선후기 추정
15		<일락정기>	이이순	1754년~1832년 추정
16		<월영낭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7		<정진사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8		<화산기봉>>	미상	조선후기 추정
19		<옥난빙>	미상	조선후기 추정

<표 4>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61)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번호	작 품	작 자	창작연대
1	<창선감의록>	조성기	1638년~1689년 추정
2	<사씨남정기>	김만중	1689년(숙종 15)~1692년(숙종 18) 추정
3	<장화홍련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4	<조생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5	<쌍선기>	미상	조선후기 추정
6	<일락정기>	이이순	1754년~1832년 추정
7	<김취경전>	미상	1893년(고종30년) 12월
8	<정진사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9	<옥난빙>	미상	조선후기 추정
10	<김인향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11	<정을선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2	<어룡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3	<양풍운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4	<양기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5	<화문록>	미상	조선후기 추정

<표 5> 김귀석, 『조선시대 가정소설론』, 국학자료원, 1997.

번호	작 품	작 자	창작연대
1	<장화홍련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2	<콩쥐팍쥐전>	미상	1919년
3	<김인향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4	<어룡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5	<화산기봉>	미상	조선후기 추정
6	<사씨남정기>	김만중	1689년(숙종 15)~1692년(숙종 18) 추정
7	<조생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8	<정진사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9	<월영낭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0	<옥난빙>	미상	조선후기 추정
11	<정을선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61) 이원수는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에서 <치악산>, <빈상설>, <홍도화>, <귀의 성>, <행 낙도> 등 신문학기 작품들을 가정소설로 보았고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대상은 조선후기 가정소설이라는 이유로 이 작품들을 표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언급한 신소설들이 모두 다 본고에서 제외되었다.

<표 6> 이성권, 『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번호	작 품	작 자	창작연대
1	<사씨남정기>	김만중	1689년(숙종 15)~1692년(숙종 18) 추정
2	<창선감의록>	조성기	1638년~1689년 추정
3	<조생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4	<정진사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5	<월영낭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6	<어룡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7	<양풍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8	<정을선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9	<이춘풍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10	<양기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표 7> 신해진,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

번호	유형	작 품	작 자	창작연대
1	처첩형	<사씨남정기>	김만중	1689년(숙종 15)~ 1692년(숙종 18) 추정
2		<옥난빙>	미상	조선후기 추정
3		<월영낭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4		<정진사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5		<조생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6	계모형	<김인향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7		<양풍운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8		<어룡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9		<장화홍련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이러한 자료 선정을 기반으로 하여 필자는 가정소설의 전형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작품을 ‘정격 가정소설’로 보고, 이 전형적인 틀에서 내용이나 구조를 확장

하여 변이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 ‘변격 가정소설’로 보고자 한다.

이중 정격 가정소설이자 필자가 정의한 개념에 부합하는 가정소설은 모두 8편으로 확정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 <조생원전>, <정진사전>, <장화홍련전>, <정을선전>, <김인향전>, <월영낭자전>, <옥난빙>이다. 필자는 이 8편의 텍스트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밝힌다.

한편, 변격 가정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은 5편이다. <양풍운전>, <어룡전>, <황월선전>, <일락정기>, <김취경전>이 있다. 이들 작품을 ‘변격’으로 보는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풍운전>이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전반부는 처첩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계모의 학대를 당하는 주인공의 고생담이며, 후반부는 주인공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다. 즉 이 작품은 처첩형·계모형·영웅형 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어룡전>과 <김취경전>은 전반부는 계모가 전설소생과 갈등으로 일어나는 비극을 다루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전설소생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이다.

<황월선전>은 전반부는 계모가 흥계로 월선이 낙태한 것처럼 꾸미는 내용이고 후반부에 가서는 주로 월선이 결연담을 다루는 내용이다.

<일락정기>는 전반부는 처첩형과 영웅형을 결합한 작품이다.

이상의 다섯 작품은 가족 간에 불화로 일어나는 갈등뿐만 아니라 영웅담이나 결연담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구조가 확장되어 정격 가정소설로 보기 힘들고 변격 가정소설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를 중심으로 정격, 변격 가정소설을 각각 정리해 제시하면 <표8>, <표9>와 같다.

<표 8> 정격 가정소설 작품

번호	작 품	작 자	창작연대	이본현황 ⁶²⁾
1	<사씨남정기>	김만중	1689년(숙종 15)~1692년(숙종 18) 추정	국문 필사본 110종 국문 활자본 19종 한문 필사본 76종 한문 현토본 3종 일문 번역본 3종
2	<조생원전> (<소씨전>) ⁶³⁾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국문 필사본 52종 국문 활자본 4종 ⁶⁴⁾
3	<정진사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국문 필사본 8종 국문 활자본 6종
4	<장화홍련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국문 필사본 47종 국문 경판본 5종 국문 석인본 1종 국문 활자본 18종 한문 판각본 4종 일어 번역본 3종
5	<정을선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국문 필사본 81종 국문 활자본 10종
6	<김인향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국문 필사본 19종 국문 활자본 7종
7	<월영낭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국문 필사본 6종 국문 활자본 4종
8	<옥난빙>	미상	조선후기 추정	국문 필사본 3종 국문 활자본 3종

62)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참조.

63) <소씨전>은 <조생원전>의 여러 이본 중에 하나로 밝혀냈다.
조희웅, 위의 책, 1999.

64) <조생원전>은 활자본과 필사본이 제목만 같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활자본은 쟁송형 가정소설이고, 필사본은 계모형 가정소설이다. 작품세미나 문체에서 볼 때, 둘은 완전히 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조생원전>의 활자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고찰하겠다.

<표 9> 변격 가정소설 작품

번호	작 품	작 자	창작연대	이본현황
1	<양풍운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추정	국문필사본 14종 국문경판본 11종 국문안성본 6종 국문활자본 16종
2	<어룡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추정	국문필사본 36종 국문완판본 1종 국문활자본 11종
3	<황월선전>	미상	조선후기 19세기 후반 추정	국문필사본 36종 국문활자본 1종
4	<일락정기>	이이순	1754년~1832년 추정	한문필사본 1종
5	<김취경전>	미상	1893년(고종 30년) 12월	국문필사본 1종

이외의 작품은 정격, 변격 가정소설에도 해당하지 않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작품들을 배제한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유복전>은 고아인 주인공이 병조판서와 위국공이 되기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영웅소설이라는 점에서 가정소설의 범위를 넘어선다.

<진대방전>은 전반부는 대방의 불효, 중반부는 태수가 대방의 가족에 대해 충고하는 것, 후반부는 대방이 어머니에 대한 효행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사의 문제라기보다 윤리소설에 가깝기 때문에 범주에 넣지 않기로 한다.

<소대성전>은 주인공 대성이 초년에 결식하다가 이상서의 딸 채봉과 약혼하였지만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에 이상서가 세상을 떠나자 박대를 당하고 부인이 보낸 자객에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대성이 결국 집에서 나와 노승의 도움으로 병법과 무술을 공부하고 나중에 호국과의 전쟁에서 황제를 구한다는 작품이다. 이 역시 가정소설과 영웅소설의 성격이 섞여 있고, 보편 영웅적 면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역시 배제하기로 한다.

<홍길동전>은 적저차별 등의 신분적 불평을 내포한 사회적인 문제를 마땅히 개혁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낸 사회소설이다. 전반 부분에서 주인공 홍길동

이 흥판서 집안에서 본부인의 소생이 아니라 첩의 소생이라는 미천한 출신으로 비롯되는 갈등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이 작품의 주요내용이 아니며 작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소설이라고 할 수 없다.

<구운몽>은 주인공 성진이 육관대사의 제자였다가 8선녀를 희롱한 죄로 인간 세상에 양소유로 다시 태어나고, 8선녀의 후신인 8명의 여자들을 차례로 만나 그녀들을 아내로 삼고 영화롭게 살다가 만년에 인생무상을 느껴 크게 깨달아 아내들과 함께 불문에 귀의한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가정소설의 주요내용인 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정소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씨전>은 여동서 간의 알력과 복수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고 ‘家族은 性關係를 許容받은 最小限의 成人 男女와 그들에게서 출생하였거나 養子로 된 子女로서 이루어졌다’는 본고의 가족에 대한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협의적 개념인 가정소설이 아니라 광의적 가정소설이다.

<이춘풍전>은 한 가정에서 새 구성원이 들어오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소설이라고 할 수 없다.

<김전전>은 영웅적인 플롯을 위주로 한 고소설이다. 김전은 사위로서 아내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계모에게 학대를 받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오직 김전이 겪은 어려움 중의 하나일 뿐 작품의 주요내용이 아니다.

<옥린몽>은 가문창달을 중심으로 한 가문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문소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마땅한 것 같다.⁶⁵⁾

<화산기봉>은 가정이야기와 궁정의 음모와 영웅담을 혼합시킨 작품이기 때문에 유형을 설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쌍선기>는 한 가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영웅담이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어서 역시 유형을 설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양기손전>은 양기손이 예쁜 첩에게 빠져 본처를 돌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첩은 본처의 비참한 생활상을 듣고 동정하여 본처와 자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여 본처를 극진히 섬기는 이야기다. 이 작품은 첩이 음모를 꾸며 본처

65) 이수봉은 낙선재본 소설로 알려진 여러 대(대개 2~3대)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그것이 가문창달을 목적으로 하며 한 가문에 세계(世系)나 가문 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문소설’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수봉, 『한국가문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8, pp.13~14.

를 모해하거나, 본처의 자녀를 확대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정소설로 볼 수 없다.

<소현성록>은 소씨 집안의 네 세대를 위주로 펼쳐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정소설이 아니라 가문소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화문록>의 유형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어 왔다. 정병옥은 <화문록>을 윤리와 애정갈등이 성공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⁶⁶⁾ 이수봉은 <화문록>을 한 가문에서 야기되는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보고 양반 사회의 다처주의에 대한 반항과 자각을 일깨우는 가문소설로 평가하였다.⁶⁷⁾ 이승복은 <화문록>을 부부 관계축이 부자 관계축에 종속되는 유형으로 보고 애정 추구는 가문의 화합과 안정을 깨뜨리는 처첩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양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설로 보았다. 즉 가문의 안녕과 창달을 목적으로 한 가문소설의 유형으로 파악하였다.⁶⁸⁾ 이원수는 <화문록>을 가정소설로, 박순임은 처첩갈등을 표현한 쟁총형 소설로 보았다. 필자는 이승복의 의견에 동의하여 <화문록>을 가문소설로 보겠다.

<창선감의록>은 계모와 전처소생, 처첩, 처처, 시어머니와 며느리, 동서 간의 갈등 등 거의 모든 가족 간의 갈등을 다뤘지만 주로 화춘과 화진 형제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주제로 하는 윤리소설이다.

마지막으로 <콩쥐팥쥐전>은 현재 필사본이나 판각본이 전혀 없으며, 1919년 대창서원에서 처음 발견된 구활자본이 유일본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까지 <콩쥐팥쥐 설화>로만 구전해 오다가 1910년대 와서야 소설 <콩쥐팥쥐전>으로 창작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구전의 <콩쥐팥쥐 설화>만 있었을 뿐, 소설 <콩쥐팥쥐전>은 없다는 판단이 선다.⁶⁹⁾ 이에 본고에서 이 작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의 정격, 변격 작품 중 필자가 본격적으로 분석할 작품은 정격 가정소설로 한정한다. 이 정격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통해 좀 더 본격적인 논의를 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정소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작품들의

66) 정병옥, 「이조 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고전 문학을 찾아서』제15, 16집, 문학과 지성사, 1992.

67) 이수봉, 『가문소설 연구』, 형설출판사, 1978.

68) 이승복, 「처첩 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69) 이원수, 앞의 책, pp.25~26참조.

공통점을 찾아 하위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그 작품군에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물에 따르면 하위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물 또한 상당부분 축적돼 있고, 그만큼 이견들도 존재한다. 이를 개괄적으로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형용은 가정소설을 계모형, 쟁총형, 축출형으로 분류하였으며⁷⁰⁾ 김기동은 가정소설을 쟁총형, 계모형, 가정소설과 윤리소설의 두 유형이 융합된 작품 <창선감의록>으로 분류하였다.⁷¹⁾ 한편, 정주동은 가정소설의 나눔에 있어 계모형, 쟁총형, 축출형, 특수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박태상과 김귀석은 가정소설을 계모형과 쟁총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아쉬움을 짚어본다면, 먼저 정형용과 정주동은 가정소설을 분류함에 있어 분류방법이 혼용되어 있는 것 같다. 계모형과 쟁총형은 갈등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 데 반해 축출형은 박대수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 김기동, 박태상과 김귀석은 똑같이 갈등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했는데 계모와 전처소생 및 처처나 처첩이란 가족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작품이 누락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앞서 제시한 가정소설에 대한 개념, 즉 ‘가정의 기존 구성원과 새로 유입된 구성원 사이의 부조화로 일어난 갈등을 주제로 한 소설’이라는 점에 부합한 작품을 선별하여 다시 유형을 분류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가정소설의 개념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가정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점을 우선으로 한다면, 갈등 대상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분류해 본다면 계모와 전처소생, 처와 처, 처와 첩 사이의 갈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갈등대상’을 기준으로 가정소설을 계모형, 처처형, 처첩형, 복합형으로 분류하여 작품을 정리해 본다.

70) 정형용, 앞의 책, p.258.

71)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59, p.329.
_____,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p.507.

① 계모형 가정소설

먼저 계모형 가정소설이다. 이 유형군은 가정에 새로 유입된 구성원 계모와 기존 구성원인 전처소생 간에 갈등을 담고 있다. 주로 경제적, 신분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갈등의 작품군이다. 대표적으로는 전처소생을 학대하거나 모해하는 가정소설들로서, 작품으로는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등을 들 수 있다.

② 처처형 가정소설

처처형⁷²⁾ 가정소설이란 말 그대로 일부다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봉건사회의 일부다처제 하에서 새로 유입된 처는 기존 처와 사이에 애정적 요인에 의해 갈등이 일어나 간사한 처는 다른 처를 모해하는 가정소설이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조생원전>, <월영낭자전> 등이 있다.

③ 처첩형 가정소설

처첩형은 일부일처제를 고수하면서도 축첩제가 용인된 봉건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작품군으로서, 그들 간의 다툼을 그린 소설유형이다. 대표적인 양상으로는 축첩제 하에서 새로 유입된 첩이 처를 모해하는 모습이 주류이고, 첩과 처 사이에서 경제적, 신분적, 애정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작품으로는 <사씨남정기>, <정진사전>, <옥난빙>이 이에 해당한다.

72) 본고가 ‘처처형’과 ‘처첩형’을 구분한 이유는 조선사회에서 실제로 ‘처처형’이 용인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조선 태종 13년 사헌부, 사간원 주장에 따라 처첩제도는 완전히 구분되어 법적으로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중혼금지법’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태종실록』 권 25, 태종13년3월 己丑條 참조) 그러나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습적으로 귀족층 사이에서 존속되었고, 일부다처제의 변이형인 축첩제가 가미된 형태로 존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조 때 二妻竝蓄 으로 쟁적의 쟁송사건(金洞이란 자가 처 민씨가 자손이 없자 도씨를 취해 아들을 낳았는데, 동씨가 죽은 후 도씨의 아들이 嫡子라고 주장함. 그러나 사헌부는 태종 13년 중혼금지의 법을 근거로 민씨가 적처라고 판단한 사건). 세종 때 문제가 된 竝蓄 二妻가 죽은 후 夫의 신위와 동시에 祔廟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④ 복합형 가정소설

복합형 가정소설이란, 갈등의 대상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작품군을 의미한다. 즉 한 작품에서 계모와 전처소생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처처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처첩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모두 존재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정을선전> 등이 있다. <정을선전>은 추년이 결혼 전에 계모 노씨와 간의 갈등과 결혼 후에 초왕 딸인 둘째 부인 간의 갈등을 모두 갖춘 작품이다.

이를 중심으로 가정소설의 유형을 나누고 작품들을 분류해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가정소설의 유형과 작품

번호	유형	작 품	작 자	창작연대
1	계모형	<장화홍련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2		<김인향전>	미상	조선후기 추정
3	처처형	<조생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4		<월영낭자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5	처첩형	<사씨남정기>	김만중	1689년(숙종 15)~ 1692년(숙종 18) 추정
6		<정진사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7		<옥난빙>	미상	조선후기 추정
8	복합형	<정을선전>	미상	조선후기(18,19세기) 추정

본고에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가정소설 작품들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되, 음모양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나머지는 필요한 경우에 보충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작품들과 판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³⁾

73) 서사구조가 탄탄한 선본을 찾아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작품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신해진,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을 중심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사씨남정기>, <조생원전>, <정진사전>,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월영낭자전>, <옥난빙>

(신해진, 『조선후기 가정소설』, 월인, 2000.)

<정을선전>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아시아문화사, 1976~1977.)

2. 왜 음모인가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은 ‘가정소설’ 중 ‘음모양상’에 집중하여 텍스트를 고찰할 것이다. 이때 ‘陰謀’란 상대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축출 등의 일정 목적을 가지고 흥계를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본고가 ‘음모양상’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의 네 가지 이유이다.

첫째, ‘음모’가 가지는 문학적 화두로서의 가치이다. 가정소설은 고전소설사에서 ‘악녀’라는 새로운 코드를 본격화한 작품군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 ‘악녀’라는 인물 유형을 끌어내는 악인의 형상화 과정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음모’라는 점이다.

고전소설에서 악인 형상은 17세기에 와서야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시도작으로 <운영전>과 <홍길동전>을 들 수 있을 것이나, 두 작품은 소설의 구조를 아직 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옳을 것이다.⁷⁴⁾

그렇다면 ‘악의 등장’은 17세기 후반 들어 등장한 국문 장편소설 중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에 와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⁵⁾ 이때 ‘악의 등장’

74) 이에 대한 언급으로는 정환국(「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한문학보』제18집, 2008, p.558)의 논문을 참조.

75) 고전소설사에서 ‘악의 등장’과 ‘악의 형상화’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 그 중 신해진(「<유연전>의 악인 형상과 그 행방」, 『어문연구』제54집, 2007.)은 다음의 두 가지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유연전>의 악인 형상이 후대 작품인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의 허구적 인물형상과는 별개로 소재의 원용에 의한 실제적 인물형상을 닮았다는 점, 또 이들 인물을 중심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나누어 악의 형상화와 악의 행방에 대해 구체화된 성과물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연전>에서 보이는 다양한 악인 형상 등이 축적됨으로써 조선후기 다양한 유형의 소설에서 보이는 악인 형상이 창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을 통해 형상화되는 선악의 대결과 복선화음의 구조는 소설의 보편적인 인간 심리를 소설화하면서 기존의 인간 대 사회라는 갈등 구도를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갈등구도를 추가하면서 소설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가정소설이고, 특히 악인의 형상이 ‘음모’를 통해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음모의 양상’에 대한 고찰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첫째에서 언급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소설의 중심축은 ‘갈등’이라는 점이다. 갈등이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느냐에 따라 소설의 구성은 탄탄해지고, 독자들은 한껏 흥미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갈등은 소설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작품 속에서 단순히 표출되지 않는다. 단순히 표출되는 갈등은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작가는 좀 더 실감나게, 좀 더 치열하게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작품의 갈등을 성공시키기 위한 마법 같은 소설적 장치가 등장하는데, 바로 ‘음모’가 그것이다.

고소설도 마찬가지다. ‘음모’는 악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중요한 장치로 등장하여 상대자에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한다. 특히 가정소설에서는 행복했던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주인공들을 위협한 지경에 이르게 하거나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음모가 치열할수록 독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작품 속에 몰입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선과 악의 양면성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음모’는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며 소설의 완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소설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소설적 장치이다.

셋째, 소설은 사회의 산물이자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본고가 살펴볼 가정소설은 특히 그 부분에서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만하다. 작품 면면에 당시의 부조리한 시대상과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가족제도, 혼인제도 등 사회의 단면들이

즉, 선조의 명에 의해 실제 있었던 유연의 獄死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항복(1556~1618)이 지은 작품인 <유연전>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로서 구체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 다양한 악인 형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 작품의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 이는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속속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인물 군상들의 모습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사실적이다.

이러한 투쟁의 모습 속에서 필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또 ‘음모’이다.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겠지만, 가정소설 속에는 다양한 음모들이 녹아 있다. 임신조작, 간부위장, 독극물 투약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은 이러한 음모들의 양상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당대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음모’의 적절한 활용은 독자의 공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코드이며, 동시에 음모는 당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넷째, 세 번째의 연장선상에서 ‘음모’가 반영하는 ‘시대’ 속에 감춰진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음모의 목적은 상대를 축출하거나 위기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자를 당대의 사회가 금지하는 구역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어설픈 음모는 ‘축출’이라는 목표를 완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상대를 정조준하여 가급적 빠른 시기에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이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당대 사회가 ‘금지구역’이라고 쳐 놓은 이데올로기를 넘나드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당대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로서 윤리, 제도, 체제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질서를 어기는 자는 용서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축출되기 마련이다. 이 질서에 대한 위반, 즉 ‘금지구역’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작품이 ‘가정소설’인 것이다. 이는 역으로 ‘가정소설’을 통해 당대의 이데올로기, 당대의 사회문화사를 엿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품 속에 담긴 ‘음모’의 양상은 소설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뿐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담론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고소설에 담긴 음모양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해 본 작품은 많지 않다.

고소설에 나타나는 음모를 소재로 한 선행연구로서는 세 편의 연구가 주로 인용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박성익의 「고대소설속의 중상모략」인데, 여기서는 작품 속에 드러나는 가정적인 갈등과 모략·중상, 정치적인 야심과 모략·중상을 고찰하였다.⁷⁶⁾ 또 하나는 김현룡의 「고소설의 부정누명 소재고」이다. 여기서 그는

음모의 다양한 모습 중 여성이 쓰게 된 부정누명이 해명하기가 제일 힘든 음모라고 밝히고, 부정누명을 중심으로 관련인물 관계, 누명을 씌우는 방법과 해결방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⁷⁷⁾ 마지막은 박경열의 「〈정을선전〉에 나타난 음모와 선인의 부정에 대한 소망」으로, 〈정을선전〉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적 특성과 음모에 투영된 선인의 부정에 대한 소망을 살펴본 것이다.⁷⁸⁾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소설에, 특히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음모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음모양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당대의 사회 문화사적 지형에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76) 박성의, 앞의 논문.

77) 김현룡, 앞의 논문.

78) 박경열, 앞의 논문.

III. 가정소설의 형성배경

가정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소설이 형성될 수 있는 근간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대 사회문화적,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이는 가정소설 작품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제의식을 정확히 포착하는 데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사회문화적 배경

전 장에서 언급했듯 소설은 그 당시의 사회현상을 일정부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은 사회의 현상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당대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소설의 소재로 삼아 사회현상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가정소설 또한 조선사회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계모와 전처간의 갈등, 처처 간의 갈등, 처첩 간의 갈등이 조선시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례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중략)...

형조 판서 정지화가 아뢰기를,

“전라 감사의 장계 안에 어떤 백성의 계모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을 그 자식들이 결박하여 관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중묘조(中廟朝)의 수교로 보건대, 그 어머니에게는 간음의 율을 적용해야겠지만, 그 자식들도 계모를 결박한 죄를 마땅히 다스려야만 합니다.”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몰래 간음한 자취가 이미 환히 드러났으나, 그 계모가 재산이 매우 넉넉하면서도 나누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모두 원망했는데, 그들의 계획된 마음은 어머니를 고발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미

무겁게 죄를 주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묘조의 수교대로 처리하라.”
하였다.
...(중략)...

<재이·가뭇·불효 등에 대해 논의하다>⁷⁹⁾

인용문 ①은 전처소생들이 계모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을 관가에 고발했다는 사건이다. 계모에게는 간음의 법률을 적용하지만 전처소생들도 계모를 결박한 죄를 다스리게 되었다. 죄를 지은 계모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당대 사회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처소생들이 계모의 간음을 고발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계모가 가진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②...(중략)... 전익구란 자는 그 아버가 전이성(全以性)인데, 그 계모(繼母)를 내 쫓아서 윤기(倫紀)에 죄를 얻었으므로, 이로써 문관(文官)이면서도 높은 벼슬을 얻지 못하였다. ...(중략)...

<상주 유학 전익구가 유현을 위임함에 있어서 참간에 빠지지 말 것 등을 상소하다>⁸⁰⁾

인용문 ②는 전처소생이 계모를 쫓아내는 경우이다. 전처소생과 계모의 불화로 계모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전처소생이 계모를 내쫓았기 때문에 죄를 얻는 것을 보면 전처소생이 친어머니처럼 계모를 대해야 한다는 사회인식을 알 수 있다.

③평안도 용강현(龍崗縣) 사람 조찬경(趙贊敬)의 아버지가 죽자 계모(繼母)가 그 지아버의 종질(從姪)과 간음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어느날 조찬경이 율문을 이용하여 계모를 구타하였는데, 도신(道臣) 박사수(朴師洙)가 중종조(中宗朝)의 수교(受敎)에 ‘적모(嫡母)나 계모가 몰래 다른 사내와 간음하면 어미의 도리가 이미 단절된 것이니 그 고소(告訴)를 허락한다.’는 조문을 인용하여 묘당(廟堂)과 의논해서 처리하기를 청하였다. ...(중략)...

<평안도 용강현인 조찬경이 계모를 구타한 사건을 의논하다>⁸¹⁾

79) 『조선왕조실록』, 현종개수실록 10년 기유(1669, 강희 8), 6월13일 (갑술).

80) 『조선왕조실록』, 숙종 1년 을묘(1675, 강희 14), 9월19일 (갑진).

인용문 ③은 전처소생이 계모의 간음행위를 알고 계모를 구타한 사건이다. 당시 사회에서 전처소생과 계모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계모의 간음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④제주(濟州)에 전처(前妻)와 후처(後妻)가 서로 소송(訴訟)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중략)…

<제주에 전처와 후처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처리하다>⁸²⁾

인용문 ④는 정처와 제2부인 사이의 불화로 소송까지 하게 된 사건이다. 당시 조선후기 중혼금지법이 확립되어 일부다처제가 금지되었지만 실제로 귀족층 사이에서 존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경상 병사 민응건(閔應鵞)을 체임하였다. 처음에, 응건의 아버지 민함(閔涵)이 조씨(趙氏)를 아내로 맞았는데, 조씨에게는 다른 형제 자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딸을 따라와 민함의 집에서 의지하고 있다가 딸이 죽고 민함이 후처를 얻자 조씨 어머니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냥 그 후처와 함께 살았는데, 그 후처가 처음으로 딸 하나를 낳아 조씨 어머니는 그 딸을 자기가 기르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그 딸에게 주었다. 그 후 민함은 아들 셋을 두어 이름이 유건(有鵞)·중건(重鵞) 그리고 응건이었는데, 유건은 힘이 장사였고 중건도 힘이 세었으나 성격이 모두 고약하고 사나웠다. 유건이 자라자 조씨 어머니가 양녀(養女)에게 주었던 재산 절반을 도로 가져다가 유건에게 주었는데, 유건의 누이는 그 때문에 유건을 원망하게 되었고 중건은 중건대로 재산을 얻지 못했다 하여 유건을 원망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누이 아들 이무선(李茂先)과 함께 유건의 생일을 기하여 술을 질탕하게 마신 후 취기를 이용하여 유건의 집 종과 마을에 사는 포수(砲手) 몇 명을 동원, 밤에 명화적(明和賊)을 가장하고 유건 부처(夫妻)를 죽인 후 칼로 음경(陰莖)을 잘랐다. 그때 유건의 두 아들은 절에서 독서하고 있었는데, 중건이 자기 무리 두 명을 다시 그 절로 보내 그 아들에게 부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려 하였다. 그때 허의(許儀)라는 자가 절 가까이서 살고 있다가, 그 집 종이 오지 않고 포수가 오는 것을 이상히 여겨 절의 중 및 많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시켜 그 자식들을 호위하여 보냈기 때문에 중건이 그 자식들은 죽이지 못했다.

…(중략)…

<경상 병사 민응건을 체임하다>⁸³⁾

81) 『조선왕조실록』, 영조 10년 갑인(1734, 윤정 12), 8월20일 (계해).

82) 『조선왕조실록』, 정조 9년 을사(1785, 건륭 50), 5월12일 (경신).

인용문 ⑤는 형제간에 벌어지는 재산싸움이다. 재산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으로 자신의 형제를 직접 죽이기까지 한 사건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 절에서 공부하는 조카들을 살인하려고 하였다. 이 살인사건에서 살인청부의 음모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⑥충청 감사가 보고하기를,

“보은(報恩)에 사는 사족(士族)의 여인이 여종의 남편과 간통하고 몰래 자신의 남편을 죽였으며, 이산(尼山)에 사는 사노(私奴) 만세(萬世)는 칼로 자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하니, 모두 국문으로 다스려 처형되었다. 또 보고하기를,

“전의(全義) 사람 신상윤(愼相尹)은 후처에게 빠져 전처의 딸을 발로 차 죽였습니다.”

하니, 또한 법률에 비추어 치죄하였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번고가 한도에서 한꺼번에 일어났으니, 참으로 전고에 없던 일이다.

<충청 감사가 살인 사건을 보고하다>⁸⁴⁾

인용문 ⑥은 세 가지의 살인사건이다. 하나는 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죽인 사건이다. 또 하나는 후처에게 빠져 전처소생을 발로 차 죽였다는 사건이다. 당시 가정에서도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⑦예조가 아뢰기를,

“호서 사람 박천근(朴千根)의 6촌 종수(從嫂) 이씨(李氏)가 자식도 없이 일찍 과부가 되어 그의 먼 일가 박호재(朴好材)의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이를 관청에 보고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천근이 이씨의 재산을 탐내어 손수 이씨를 죽이고 그의 아들 박기동(朴己東)을 이씨의 양자로 삼은 다음 은밀히 예사(禮斜)를 받고자 이씨의 성을 박씨로 고쳤습니다. 이씨가 구타를 당하여 죽은 것이 확실하고 보면 의리상 흉악한 사람의 아들로 죽은 사람의 양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예사(禮斜)를 지워서 그의 양자로 하여금 임시 가사를 맡고 묘소를 지키게 해

83) 『조선왕조실록』, 현종 1년 경자(1660, 순치 17), 6월6일 (기축).

84) 『조선왕조실록』, 현종개수실록 8년 정미(1667, 강희 6), 7월15일 (정사).

야 하겠습니다.”

하니, 윤택하였다.

<예조가 박천근의 이씨 살인사건을 아뢰다>⁸⁵⁾

인용문 ⑦은 친족의 재산을 탐내어 친족을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한 사건이다. 박천근이란 사람은 자녀가 없는 중수 이씨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직접 이씨를 죽였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씨의 양자로 삼은 다음 은밀히 예사를 받고자 이씨의 성을 박씨로 고쳤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되었다.

⑧전라도 강진현(康津縣)에서 은애(銀愛)라는 여인이 그 이웃에 사는 안조이[安召史]라는 여인을 흉기로 찔러 죽였는데, 현감 박재순(朴載淳)이 검시한 결과 사실이였다. 그 까닭을 물으니, 은애가 공초하기를,

“제가 시집오기 전에 이웃에 사는 최정련(崔正連)이란 자가 남몰래 나와 간통하였노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안조이를 중간에 내세워 청혼해왔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자 최정련은 안조이와 함께 추잡한 말로 무고하기를 더욱 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밤중에 칼을 들고 안조이의 집에 남몰래 들어가 먼저 그 목을 찌르고 다시 난자하였으며, 이어 최정련의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저의 어머니가 말리는 바람에 그만두었습니다. 관청에서 최정련을 때려죽이기 바랍니다.”

하였다. …(중략)…

<전라도 강진현에 사는 은애라는 여인이 살인한 죄에 대해 의논하다>⁸⁶⁾

인용문 ⑧은 은애라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한다는 소문 때문에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이다. 당시 사회에서 정절은 여성에게 목숨보다 중요하였으며 자신의 정절을 범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던 것 같다.

⑨장령 이만영(李晩榮)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기평군 유백증이 후처의 사랑에 빠져 자기 독자(獨子)를 원수처럼 보아서 몸을 용납할 수 없게 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도망했는데도 끝내 간 곳도

85) 『조선왕조실록』, 정조 10년 병오(1786, 건륭 51), 윤 7월 1일 (임신).

86) 『조선왕조실록』, 정조 14년 경술(1790, 건륭 55), 8월 10일 (무오).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버지를 배반한 자식의 죄악은 진실로 용서받기 어렵겠지만, 아버지 된 사람들 또한 어찌 과실이 없겠습니까. 슬하의 독자가 계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갑자기 도망했으면,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 인자한 아버지의 정리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유백증은 그렇지 않아서, 끝내 자식의 생사조차 물어보지 않고 무리한 말로 그 자식을 뒤늦게까지 잔인하게 책망하니, 천리와 인정이 어찌 이런 행위를 용납하겠습니까.

...(중략)...

<장령 이만영이 기평군 유백증과 이조 좌랑 오정일을 논죄하는 일로 인피하다>⁸⁷⁾

인용문 ⑨는 전처소생이 계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도망했는데 아버지조차 무관심하였다는 사례이다. 전처소생과 계모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버지가 계모만 편애하는 태도와 제가에 무능력함을 보인다.

⑩이행원(李行遠)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중략)... 행원은 풍채가 흰하고 수염이 아름다웠으나 용렬하고 비루한데다 식견이 없었으며 세속에 따라 아첨하였다. 또 후처에게 빠져 잠시도 차마 떠나지 못해 빈객이 문에까지 와서도 그의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친척 중에 상사(喪事)가 있어도 가서 조문하지 않았으며 종가(宗家)의 제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채 주야로 그의 후처와 어울려 술 마시며 즐길 뿐이었다.

<이행원을 이조 판서로 삼다>⁸⁸⁾

인용문 ⑩은 가부장이 후처에게 빠져 집안의 모든 일에 무관심하는 사례이다. 이행원이라는 사람이 후처와 술을 마시며 즐길 뿐 빈객이 문에 와서도 보지 않고 친척 상사와 종가 제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가부장이 齊家에 무능력함과 무관심함을 보여준다.

⑪고성군(高城郡)의 읍호(邑號)를 강등시켜 현(縣)으로 삼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고성(高城)의 백성 최린(崔麟)·박흥문(朴興文), 관비(官婢) 행진(行眞) 등이 그 군수(郡守) 이하귀(李夏龜)를 원망한 나머지 고을 장교(將校) 장후순(張後巡)과 더불어 아

87) 『조선왕조실록』, 인조 22년 갑신(1644, 순치 1), 12월23일 (정축).

88) 『조선왕조실록』, 인조 24년 병술(1646, 순치 3), 4월17일 (계사).

비(衙婢) 막단(莫丹)에게 뇌물을 주어 사권 뒤 독약을 쓰게 하니, 이하귀가 중독되어 죽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대계(臺啓)로 인해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끝까지 핵실(覈實)하여 자백을 받아내게 했던 것인데, 막단은 왕부(王府)에 회부해서 정법(正法)하고 장후손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참형(斬刑)에 처했으며, 최린·박홍문·행진 등은 조리를 돌린 뒤 장살(杖殺)하였다. 막단이 이미 죽자 그 읍호를 강등시켰던 것이었다.

<고성군의 읍호를 강등시켜 현으로 삼게 하다>⁸⁹⁾

인용문 ⑩은 앞의 사건이 주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이뤄진 사건이라는 점에 비춰 속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역시 살인 사건 중 하나다. 살인청부라고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사람을 시켜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다.

이상의 사례는 17~18세기 조선사회에서 일어났던 실제의 음모와 사건들을 추려본 것으로서, 조선사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 간추려 본 사건 중 대다수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점, 여기에 사건의 핵심에 치정과 재산싸움 등 내적 욕망이 ‘악’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 그 속에서 작고 큰 ‘음모’들이 횡행하는 모습들은 당대 가부장제 하의 가족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과 갈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만큼 당대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인간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계모와 전처소생 사이의 불화, 재산싸움, 살인, 독극물투약, 처와 처, 처와 첩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등은 비록 작가의 허구적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들에서 소재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된 장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가정소설에서 형상화하는 계모와 전처소행 간의 갈등, 처처 간의 갈등, 처첩 간의 갈등이 그 당시 사회에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정소설은 그만큼 당대 가정의 문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회에서, 특히 위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9) 『조선왕조실록』, 영조 19년 계해(1743, 건륭 8), 2월13일 (정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선 두 가지 범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내적 요소로서 한 개인의 人性 문제이다. 즉 욕망을 향한 개인의 탐욕의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는 외적요소로서 조선사회가 안고 있는 가족제도의 모순과 사회의 불합리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요인들 중 어느 쪽으로도 결국 ‘악’과 ‘악인’은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대 ‘가정’의 문제를 소상히 들여다보는 ‘가정소설’은 ‘악’과 ‘악인’의 문제가 태동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사회의 가족제도인 가부장권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소설이 안고 있는 갈등 양상의 근간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가장은 가족의 핵심이고 모든 가족의 질서는 가장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가장은 가족의 중심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표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역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민간의 계약, 관에서 백성에게 내린 명령, 그리고 조상의 제사, 자녀의 교육, 결혼에 관한 일들의 권한이 모두 다 가장에게 있었다. 특히 뒤에서 살펴볼 결혼제도인 일부다처제, 측첩제, 후처제⁹⁰⁾도 가장을 중심으로, 애정충족, 자녀교육, 가산관리, 독신탈피 등도 가장의 필요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부부관계는 수평적일 수가 없는 종속관계였다. 여성은 남성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피지배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가장은 모든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법적, 도의적 권리를 가지고 가족원을 엄격하게 통제하였으며 가족원은 가장에 대하여 절대복종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⁹¹⁾ 가장은 가족들의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가정소설 <장화홍련전>에서 배좌수는 장최로 하여금 ‘가문의 영욕을 더럽힌’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게 하였다. <사씨남정기>에서 교씨의 음모가 밝혀진 후에 한림은 관청에 고하지 않고 좌우를 시켜 교씨를 목을 매 죽이게 하였고 시체는 거적으로 말아 교외에 내다 버렸다. <옥난빙>에서 소미단을 먹은 진공은 매영의 음모에 휘말려 석소저를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여 그녀가 낳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처럼 가장을 위주로 한 가족제도, 대등하기보다 종속적인 부부 형태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야기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었던 것 같다.

90) 본고에서 말한 후처제는 전처가 죽고 남편이 다시 장가를 들어 계모를 맞이하는 것을 허락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91)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p.325~332.

⑩영락(永樂) 12년 7월 일의 사헌부 계본(啓本)내에, ‘전조(前朝)의 말엽에 대소 원인(大小員人)이 경외(京外)에 양처(兩妻)를 함께 둔 자도 있고, 다시 장가들고서 도로 선처(先妻)와 합한 자도 있으며, 먼저 취첩(娶妾)하고 뒤에 취처(娶妻)한 자도 있고, 먼저 취처하고 뒤에 취첩한 자도 있으며, 또 일시(一時)에 삼처(三妻)를 함께 둔 자도 있어서, 그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서로 적자(嫡子)를 다투게 되니 쟁송(爭訟)이 다단(多端)하였으나, 그 때에는 처(妻)를 두고 취처(娶妻)함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성혼(成婚)하여 선후가 상적(相適)한 자를 지금은 후취(後娶)라 하여 추론(追論)해 결절(決折)함은 진실로 미편(未便)하니, 윗 항의 조목조목에다 선처·후처의 은의(恩義)가 깊고 얇은 것, 버렸거나 별거한 일이 있고 없었던 것, 동거(同居)와 동거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게 하소서. 선처(先妻)에게는 박하였으되 후처(後妻)와는 중신토록 함께 살았고 부도(婦道)에 결함이 없는 자는 작첩(爵牒)과 전지(田地)를 주고, 그리고 노비(奴婢)도 양처(兩妻)의 자식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며, 도로 합한 처(妻)로 중신(終身)한 자는 선처(先妻)에게 작첩과 전지를 주고, 그리고 노비도 윗항과 같이 주며, 선첩(先妾)의 자식으로 적자(嫡子)를 다투는 자는 선후를 논할 것 없이 정처(正妻)의 소생으로서 적자를 삼으며, 삼처(三妻)를 함께 둔 자는 선후를 논할 것 없이 중신토록 동거한 자에게 작첩과 전지를 주고, 노비는 세 아내의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소서. 영락(永樂) 11년 3월 11일 이후에 아내가 있으면서 취처(娶妻)한 자는 엄히 금하여 이이(離異)하게 하소서.’ 하여, 하교를 윤희하신 대로 받들고 있음은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바이지만, ‘선처·후처의 안에서 적실(嫡室)은 은의(恩義)의 후박(厚薄)을 가지고 분간하여 결절(決折)하라.’ 한 것은 신 등이 생각하건대, 부부란 삼강(三綱)의 으뜸이고, 예문[禮]에도 두 적실(嫡室)이 없음은 천지의 상경(常經)이며 고금의 통의(通義)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은의의 후박으로 하여 선후를 논하지 않고 적실에다 혼동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앞으로는 영락 11년 3월 11일 이전에 다시 취처(娶妻)한 자는 선처(先妻)가 죽은 뒤에 취처한 자와 부득이한 연고로 해서 다시 장가든 명문(明文)이 있는 자를 제외하게 하고, 일시에 이처(二妻) 이상을 함께 둔 자와 다시 장가든 뒤 선처(先妻)와 도로 합한 자는 모두 먼저의 아내로써 적실을 삼고, 나머지는 모두 첩으로 논함으로써 명분(名分)을 정하소서. 지금 ‘선첩(先妾)의 자식으로 적자를 다투는 자는 선후를 논할 것 없이 정처(正妻)로서 삼을 일’이라고 한 것과 ‘영락 11년 3월 11일 이후에 처가 있으면서 취처한 자는 엄히 금하여 이이(離異)하게 할 일’이라고 한 것 등은 한결같이 사헌부의 윗항의 수교(受敎)에 따르게 하소서.

<차가원에서 과전·취첩과 처첩·과거 제도에 관한 치도를 올리다>⁹²⁾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고려시대의 혼인제도는 일부다처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명의 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첩을 따로 두는 것도 용인되었으며, 처와 첩을 취하는 순서는 꼭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와 첩 및 그 자녀들 사이에는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서처나 양첩의 자녀들 또한 재산상속이나 사회진출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또 畜妻 또는 蓄妾은 남편의 부, 권리,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명성의 상징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자손을 얻어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욕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다처제는 보편적이기보다 상류계층에서만 성행하였다. 이런 일부다처제는 조선 초기까지 유지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영락 11년, 즉 태종 13년(1413)에 중혼금지법이 나와 선처가 죽은 뒤에 취처한 자와 부득이한 명문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취처한 자를 제외하여 둘 이상의 처를 취하는 자가 있으면 둘째 이하의 처들을 일괄적으로 첩으로써 명분을 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결혼제도는 일부다처제에서 축첩제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다처제 하에 처와 처, 첩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는 주로 질투심 등 심리적인 요인에서 신분, 재산 등 요인으로 확대되어 처첩간의 갈등이 심각해졌다. 특히 적자와 서자 사이의 차별이 엄격해진 후에 첩과 서얼들이 더욱더 불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⑩우부대언(右副代言) 서선(徐選) 등 6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종친(宗親)과 각품의 서얼(庶孽) 자손(子孫)은 현관 직사(顯官職事)에 임명하지 말아서, 적첩(嫡妾)을 분별하소서.’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육조에서 각사가 진언한 내용중 시행할 만한 사안 33건을 올리다>⁹³⁾

위의 인용문은 태종 15년(1415)에 서얼 자손은 현관 직사에 임명하지 말고 적첩을 분별하라는 태종의 정책이었다.

이후 성종 13년(1482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서얼 자손들의 문과 및 생원·진사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서얼 금고의 법조문이 명문화됐으며,⁹⁴⁾ 명종

92) 『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정유(1417, 영락15) 2월 23일(경진).

93) 『조선왕조실록』, 태종 15년 을미(1415, 영락13) 6월 25일(경인).

94) 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 (『經國大典』 卷三 禮典 諸科).

10년(1555)에는 아들과 손자에게까지만 적용되던 금고의 범위가 자손대대로 확대되는 등 적서차별은 중기로 오면서 한층 강화되어 갔다.⁹⁵⁾

이러한 적서차별에 대한 정책은 지배계층들의 후사생산, 애정충족, 가산계승, 관직 등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축첩제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서얼을 억압하는 정책을 만든 것이었다. 적서제도는 첩과 서얼들의 이익을 법률적 명의로 뺏어가고 오히려 그들의 반발과 신분상승, 가산계승 등 욕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다처제와 축첩제는 사회 상류계층에서만 성행되었다. 축첩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서민의 축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으니, 연산군 12년(1506년) 서민의 축첩을 중범으로 다스려 곤장 일백 대에 처하고, 전 가족을 변방으로 내쫓는 조치를 내리고 있었다.⁹⁶⁾ 반면에 후처제는 사대부 계층과 서민 계층에게 다 적용되는 결혼제도였다. 따라서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은 처처 간의 갈등과 처첩 간의 갈등보다 보편적인 편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였고, 남편이 일찍 죽어도 改嫁나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남편에게는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도 없었다. 반면에 남자들은 자신의 애정욕구나 자녀교육, 가산관리 등 목적으로 첩을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가 죽으면 후처를 들일 수 있었다. 바로 계모이다.

계모를 들일 수 있는 전제조건은 전처가 죽는 것이다. 전처는 죽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이다. 조선시대에는 가문의 번성을 위하여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생활수준이나 의료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출산한 여자들이 다시 회복하기 힘들고 또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개 육체적 무리와 산후증으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다.

이원수, 앞의 책, pp.32~33 재인용.

95) 명종 10년 『경국대전』을 주해하면서 「庶孽子孫 勿許赴…」의 ‘子孫’을 ‘子及孫’으로 해석하던 입장을 바꾸어 ‘子子孫孫’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아들과 손자에게까지만 미치던 금고의 범위가 후손들에게 대대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원수, 위의 책, pp.32~33 재인용.

96) 최숙경, 『한국여성사(부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2, p.39 참조

그리고 계모형 가정소설을 보면 일찍이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늦은 나이에 명산대천이나 절에 가서 빈 후에야 자식을 얻게 된 대목이 종종 나온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정을선전>, <옥난빙> 등이다. 여자가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것은 산모에게 위험한 일이고, 특히 조선시대처럼 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여성들은 ‘不孝有三, 無後爲大(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손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불효이다)’의 가문의식과 예교 칠거지악(七去之惡)⁹⁷⁾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불효자이고 이혼의 근거가 되었다.

가부장제의 가족제도, 일부다처제와 축첩제, 후처제의 결혼제도는 가장과 적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제도였고, 여성과 서얼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런 불공평한 제도들은 여성과 서얼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켜 가정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과 불만, 그러한 점을 그대로 수용하는 가정소설은 따라서 작가가 의식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사회문화적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출발한 작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학적 배경

가정소설이 조선시대 특수한 사회 문화적 상황과 가부장제의 가족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전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가정소설이 조선후기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점은 가정소설의 창작동기와 맞물려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보았듯 가정소설을 끌고 가는 주요 축으로, 갈등의 대상이 가정 내 가족,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점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다.

97) 아내에게는 시집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전혀 항거할 수 없는 일곱 가지의 결정적 조항, 즉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요약스런 행실로 취급되는 일곱 가지의 행실에 대한 규범이 있다. 곧 七去之惡이다.

①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 ②아들을 낳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 ③음란하면 버림을 받는다. ④시기가 많으면 버림을 받는다. ⑤나쁜 병이 있으면 버림을 받는다. ⑥말이 많으면 버림을 받는다. ⑦도둑질하는 버릇이 있으면 버림을 받는다.

육완정 옮김, 『혼례장』, 『내훈』, 열화당, 1991.

한편, 조선후기는 소설이 여러모로 양적, 질적 팽창을 보인 시대다. 우선 작품군만으로도 다양한 유형들이 대거 쏟아졌고, 분량도 장편화되는가 하면, 독자층이 확장되었다. 소설의 관심 폭이 넓어지자 이를 유통시키는 시스템이 변화한 것도 소설의 발달사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가정소설’의 창작이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유독 폭발적이었던 점이다. 이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데 공급은 수요와 항상 맞물려 돌아간다. 즉 공급이 팽창했다는 점은 그만큼 수요가 넘쳤다는 점이고, 수요는 바로 독자층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조선후기는 유독 가정소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팽창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를 문학적 배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은 가정소설이 갖고 있는 소재적 특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소설은 가정 속에서 가족, 특히 여성들 간의 갈등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이고, 그 근간에 ‘일처다부제 하의 봉건체제’라는 제도적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다시 말해 가정소설은 당대 사회의 제도라는 틀 속에 담겨진 사회의 양상을 가족의 일상이라는 좁혀진 틀에 맞추고, 그 속에서 소소한 이야기부터 가족에 대한 담론, 시대에 대한 담론까지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 속에서 가정소설이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을 비추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들일 수 있었기에 독자의 공감대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었다.

당시 사회에서 축첩제 보편화되어 있어 첩의 영입으로 인한 처첩갈등은 실제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다. 계모의 영입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였다. 의료시설이 낙후되기 때문에 전처들의 요사가 빈번해짐에 따라 계모의 영입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처첩갈등, 그리고 계모와 전처소생갈등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결코 남의 일일 수만은 없었다. 그것은 자신, 자신의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녀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였다.

계다가 폐쇄된 봉건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 세상 돌아가는 이치 등은 여성 독자에게 그야말로 어필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정소설은 특히 여성이라는 독자층에게는, 폐쇄된 세계 속에서 외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소통체계였을 것이고, 그 속에 담겨진 또 다른 ‘나’와 같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었던 대리만족의 창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정소설은 여성독자의 관심을 폭발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가정소설 중에 다루고 있는 처처갈등, 처첩갈등 중에 한결같이 제1부인, 정처가 선인이고 제2부인, 첩이 악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정의 불화는 악녀인 제2부인, 첩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선인인 제1부인, 정처가 작품에서 항상 악녀들에게 고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은 당시 부녀자들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고 작품에서 어떤 위로를 찾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결말은 악녀들이 징벌되고 악녀에게 빠졌던 남편이 마음을 돌려 다시 정처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당시 부녀자들의 소망에 부합하는 것이다. 계모와 전처소생갈등도 마찬가지다. 계모형 가정소설에서도 계모는 악인이 되어 있고 전처소생이 선인이 되어 있다. 계모의 영입으로 인해 계모와 전처소생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처소생이 계모에게 모해를 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당시 부녀자들의 딸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며 부녀자가 작품에 전처소생에 대한 동정심을 자아낸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서 악한 계모가 징벌되고 전처소생이 다시 행복을 되찾는 결말은 독자인 부녀자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소설은 당시 부녀자들의 소망에 부합하고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당시 부녀자들에게 지속적인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독자층’의 변화 외에도 가정소설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지점에는 문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언급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조선사회의 17세기는 임병양란을 기점으로 하여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때이다. 廣作을 통한 富農의 등장, 활발한 상품 매매 등에 따른 富商의 성장, 中人層의 급부상, 신분제 동요 등에서 그러한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청나라와의 교류 물꼬가 트이면서 문물 수입 등은 제반 영역에서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西學, 陽明學 考證學 등의 새 학문은 기존의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 기준의 주자학 맹신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세계관과 함께 인식에 있어서도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 변화가 문학관의 변화에도 기여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선, 문학에 대한 긍정의 인식 변화이다. 기존의 성리학적 문학관은 文以載道的 觀點에서 이뤄졌다. 문학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道를 표현하는 방법, 즉 性情을 도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학이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문학 자체의 효용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문학의 효용성을 인식하면서 문학 속에는 다양한 양상들이 녹아들었다. 인간의 성정을 인정하고 개성을 긍정하면서 인간 성정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다 자유롭게 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 문학사에는 인간의 情을 중심으로 한 남녀의 이야기로부터 현실의 자질구레한 인정물태의 제반 양상들이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문학의 내용 변화는 앞서 언급한 문학에 대한 긍정의 인식 변화와 맞물리면서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작자층의 확대도 조선후기 소설사의 중요한 변화로 언급할 수 있다. 16, 17세기만 해도 소설은 주로 상층 식자층에게 읽혔던 중국소설이 전부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던 것이 상층 사대부가 소설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창작 소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기에 독자층의 확대와 수요 증가라는 문학적 배경을 동인으로 ‘국문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문학사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본질에 대한 인식 변화도 짚고 갈 일이다. 소설의 본질적 속성인 虛構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소설이 가진 문학적 속성인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는 측면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소설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정물태를 허구라는 기법을 통해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수용해 내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소설의 모습은 기존의 ‘괴력난신’에 대한 초현실적 이미지를 벗어내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과 세계의 다양한 양태를 적극적으로 그려내면서 ‘소설’이라는 장르로서 문학사에 우뚝 서게 된다.

한편, 소설의 사실주의화 경향은 소설의 기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끌어내게 된다. 소설의 문체나 인물구성 등 창작 전반에 있어서의 변화가 그러하고,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등장하는 ‘갈등’의 본격화, 여기에 현실에 기반한 ‘악인’의 등장

그러한 사실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다양한 양상과 인식의 변화가 조선 후기 서사문학사의 대표적 유형군인 ‘가정소설’이라는 굵직한 테마를 끌어내게 되었다.

IV. 음모의 양상

앞서 언급하였듯 가정소설이 가진 문학사적 의미 중 하나가 기존의 소설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 유형, ‘악녀’라는 코드를 끌고 와 본격화시켰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악녀’라는 인물형이 출현하기 위한 동인으로서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기제가 바로 ‘음모’라는 점이다.

즉 음모의 양상을 추적해 가다보면 그 속에 결국 ‘악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구체화되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점이 본고가가 가정소설의 ‘음모양상’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임은 밝힌 바 있다.

본고가 텍스트로 삼은 작품에서 유형별 ‘음모 양상’은 크게 6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1. 애정결핍과 편애에 따른 친자식 살해

후처나 첩이 정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직접 죽이는 음모이다. 가족 살인은 존비속, 혹은 배우자 간에 일어나는 살인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 즉 의붓자식의 살인이나 배우자 살인의 비중이 높다.⁹⁸⁾

그런데 이러한 존속 살인은 유교라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조선시대에서 허구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해도 소재화하기 쉬운 기제는 아니다.⁹⁹⁾ 그럼에도

98) 최재천 외, 『살인의 진화심리학 - 조선후기의 가족 살해와 배우자 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67.

99) 태조 이성계는 고려 공양왕 4년(1392년) 7월 17일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얻고 안으로는 유교로서 정치의 지도이념으로 삼아 이 유교적 원리는 일반 민중생활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유교는 인(仁)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이념으로 삼고 공자는 인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인은 곧 효(孝)이며 제(悌)라 하여 인의 근본을 가족적 결합의 윤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육친(肉親) 사이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애정을 강조하는 한편, 그것을 인간 사회의 질서 있는 조화적 결합의 원리로 삼고, 정치에도 전개시켰다.

이상백, 『한국사』, 전근세기편, 을유문화사, 1981, p.63.

김양수, 「조선조 지배이데올로기와 가정소설의 역할에 관한 연구」, 『논문집』제12집, 혜전대학교, 1994.

도 특이하게 가정소설에서 계모나 제2부인, 첩의 악인의 모습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낳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활용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진사전>은 조선후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작자와 창작연대가 미상이며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처첩형 가정소설로 주로 처첩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비극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⁰⁰⁾ 전체적인 플롯에 있어서 우연성은 간혹 찾아 볼 수 있으나 전기성은 드문, 현실적인 작품이라 하겠다.¹⁰¹⁾

먼저 <정진사전>에서 첩 일지가 꾸미는 음모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과거급제한 정 판서와 재덕을 겸비한 박·최 부인이 결혼하여 화목하게 지낸다.
- ② 박 부인이 생남하고 최 부인이 생녀한다. 간악하고 질투심이 많은 첩 일지도 생남한다.
- ③ 일지가 생남한 후 방자무기해져 두 부인을 시기하여 축출하려고 한다.
- ④ 일지가 시부를 효로써 극진히 봉양해서 사랑을 받는다.
- ⑤ 정 판서가 청국에 사신으로 떠나자 일지가 탕자 차돌을 정부로 삼고 이와 결탁하여 최 부인이 외간 남자와 간통한 부정한 여자로 누명을 씌운다.
- ⑥ 최 부인이 축출되지 않자 일지가 차돌과 음모하여 자기의 아들과 박 부인의 아들을 죽인다.
- ⑦ 최 부인이 살인죄로 축출되고 시부의 사랑과 가사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첩 일지는 기생인데 사람됨이 극히 간악하고 시기심이 많고 남을 모해하기를 좋아한다. 첩은 원래 후사출산 목적으로 들인 새 구성원인데 <정진사전>에서는 박 부인이 이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첩 일지의 존재 기능은 후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 판서의 ‘애정욕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위치가 특별하다. 그래서 일지가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위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작동한다. 남편의 애정이 사라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¹⁰²⁾ 이에 일지가 가정에서의 위치를 보장하려면 가사 주도권을 잡는 것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악녀’ 일지라는 인물형을 끌어내는 동인이 된다.

100) 대부분의 가정소설은 주인공의 이름을 소설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정진사전>은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아버지의 호칭으로 제목을 하는 점이 특이하다.

101)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78, p.345.

102) 판세 즈로 일지를 차츰 인정을 두니 일지 가장 깃거히다가도, 만일 판세 제방에 이르지 아니하면 날은 심스를 정치 못하야 은근이 락심하며 도석을 폐하니, 공연이 우환 만난 슝름 곱흔지라. <정진사전>, p.318.

일지는 먼저 가정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을 목표대상으로 교언영색으로 남편 판서를 섬기고, 시아버지인 진사를 효로써 극진히 봉양하여 판서와 진사에게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한다. 여기에 불량배 차들을 매수하여 통정하고 박 부인과 최 부인을 축출할 음모를 꾸민 것이다. 이때 통정의 대상인 ‘차들’이 역시 목적을 달성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일지에게 ‘사랑’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든 일지의 다음 목표는 한 가정이라는 같은 울타리 속에서 ‘첩’이라는 자신과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처, ‘여성’들이다.

정판서가 청국에 사신으로 떠나자 일지는 틈을 타 최 부인의 필적을 훔쳐 외간남자와 간통하는 편지를 위조한다. 그리고 우연히 정진사에게 그 편지가 발견도록 하고 차들로 하여금 최 부인 방의 마루 밑에 숨었다가 도망하는 모습을 정진사에게 보이게 하여 최 부인에게 부정누명을 씌운다. 그러나 장 부인과 박 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일단 최 부인은 축출을 면하게 된다. 이에 일지는 박 부인을 더욱 원망하여 차들과 원수를 갚으려고 더 간악한 음모를 꾸미게 된다.

일일은 일지 차들을 보고 왈,
“남조로서 국냥이 그드지 업서 나의 원슈를 감지 못흐는고?”
흐고 원망흐를 마지 아니흐디, 차들 왈,
“느 일계를 승각흐였스니 이를 헿헿면 곳 원슈를 감흐려니와, 만일 그러치 아니흐면 달니는 변통홀 슈 업다.”
흐니, 일지 대희 왈,
“무슴 모척일넌지? 최씨만 좃츠만 닉치면 슈화를 피치 아니흐리라.”
차들 왈,
“그러면 박씨 으들 금석과 네 아들 청출은 다 남조오, 최씨 소싱은 다만 쌀이니, 조식 식음은 슝름마다 다 잇느니 명일 밤으로 금석과 청출을 살히하여 여츠여 츠홀진디 최씨 엇지 부지흐며, 쏘흐 박씨로 더부러 같등이 나리니 지금이라도 쌀니 주선흐면 최씨 닉여보넌기는 여반장이오, 박씨조츠 마져 닉여쫓기리라.”
하니, ……103)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차들은 박 부인의 아들과 일지의 아들을 죽이

103) <정진사전>, pp.327~328.

고 최 부인에게 살인죄를 씌울 음모를 짠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세 여성들 중, 오직 최 부인만 딸을 낳았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시기심으로 첩 일지와 박 부인의 아들들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지 그 말을 듣고 눈을 흘기며, 왈,

“원승호는 그런 말을 엿지하느냐? 어미 되어 즈식을 엿지 죽이리오.”

츄들 왈,

“그딤 말이 가소롭도다. 이제 강보의 싸히여 경풍으로 죽을난지 역질에 죽을는지 모르는 거슬 그리 대단히여 츄스를 헝치 못하리오. 그딤 나히 젊엇고 가장이 둘이나 잇스니, 즈식을 못나홀가 겁하느냐? 만일 너 말을 청납지 아니코 최씨를 바려두면 네가 필경 그 손에 죽을 거시니, 네 죽으면 청출이 엿지 목숨을 보전하리오.”

일지 탄식 왈,

“그는 그럿타.”

하고, ……104)

그런데 일지가 차들의 계획을 듣자마자 어미로서 자식을 죽일 수 없다고 거절한다. 그러자 차들이 아직 어려서 경풍으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어린 아이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일지를 채근한다. 또 일지가 아직 젊고 가장이 둘이나 있으니(차들과 정판서) 앞으로 언제든지 아이를 다시 낳을 수 있다고 꼬드긴다. 만약 계획한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에 최 부인에게 부정누명을 씌우는 음모도 밝힐 수 있고 그때 일지가 필히 최 부인 손에 죽을 것이며 일지의 아들도 목숨을 보전할 수 없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츄들이 우셔 왈,

“너즈의 편심이 무가너하라. 잠시 모즈간 싱각만 하고 일성이 안한홀 일을 마다 하니, 스불여의홀진디 평싱 화근이 되어 후회막급이 되리라. 만승턴즈 량무데도 흥신의 말을 아니 듯다가 덕성에서 굴며 죽고, 턴하명장 한신이도 모스의 말을 아니 듯다가 너즈의 손의 죽엇스니, 그런 일이 네게로 닥치리라. 잔말 말고 나의 계교되로 흐면 최씨는 품비빅산이 될 것이오. 박씨 점점 고단하야 나갈 거시오. 진스 너 외는 서산락일이 될 거시니, 올이 아니면 너년이오. 소위 대감은 너 무슴 모계로던

104) <정진사전>, p.328.

지 처치할 거시니, 부딪 썩을 일치 말고 너와 나와 마음디로 것칠 것 업시 넘녀를 노코 톱낫으로 끼고 누어 으달 낫코 썰을 나흐면, 그썩에는 청출의 싱각은 썸에도 업스리라.”¹⁰⁵⁾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들은 일지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을 강요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지는 차마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차들에게 다른 책략을 생각해 달라고 한다. 이에 차들이 자신의 계교대로 하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나중에 좋은 묘계로 진사와 판서를 처치하고 일지와 아이를 낳아 같이 살겠다는 설득에 일지도 마음이 변하여 결국 차들의 계교에 따르기로 한다.

일일은 일지 홀노 안져 빗겨슬 녀엇보니, 박씨 장부인을 피시고 무슴 건스를 흐거늘, 일지 급히 이러나 다드미 돌을 드러 제 즈식 청출의 가슴을 누르고, 박씨의 방으로 드러가 슈건으로 금석의 목을 잘나 띠고, 바로 큰방으로 드어와 장부인 청뵈옵고, 박씨로 더부러 무슴 일을 흐는 체흐다가, 일지 홀연 비즈 치옥을 불너 왓,
“네 저 방의 가서 청출이 잠을 썩엇거든 다려오라.”

치옥이 드러가 보니, 청출이 가슴의 돌을 안고 죽엇거늘 대경흐야 급히 고흐니, 일지 대경흐여 내려가 보니 밋셔 죽엇는지라. 죽은 것슬 안고 가슴을 두다려 통곡 왓,
“이거시 어인 일인고? 청출야! 너를 죽인 녀은 내 일즉 짐작한다.”

흐고, 머리를 산발흐고 구울며 우니, 박씨도 놀납고 즈연 심동흐여 별당으로 드러가니 금석도 쏘흔 목을 슈건으로 잘나 죽엇거늘, 박씨 경황실식흐야 금석을 안고 통곡흐니, 일지 다시 익통흐여 왓,

“나의 즈식은 어미 죄로 죽엇거니와, 금석은 뉘 죄로 죽엇는뇨?”

흐고 익통흐여 홀 즈음의, 치순이 곁히셔 즈다가 썩여 우니, 이러구러 집안 슝름드리 다 모혔는지라. 뉘 아니 놀나리오. 일지 별덕 이러나며 치순이를 귀씩이를 불이 나게 치니 치순이 질식흐거늘, 일지 왓,

“청출과 금석을 모두 죽이고 무어시 낫바 구경흐는뇨?”

흐니, 최씨 치순을 안고 별당으로 드러가 금석을 잡고 통곡흐여 왓,

“너도 내 손에 죽은 모양이로다.”

흐고 눈물을 근치 못흐니, ……¹⁰⁶⁾

105) <정진사전>, p.329.

106) <정진사전>, pp.329~330.

그 후부터 일지는 적극적으로 음모를 실행할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박 부인이 장 부인을 모시고 나가서 금석(박 부인의 아들)이 혼자 있게 된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지는 다듬이들을 들어 먼저 자신 아들의 가슴을 누른 후, 또 박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 수건으로 금석의 목을 졸라매었다. 일지의 간악하고 흉험한 마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도 망설임 하나 없고 오직 흥계를 빨리 실행하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심리에서 극악한 악녀로서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전달된다.

한편, 두 어린 아이를 죽이고 나서도 안색조차 변함없는 일지는 즉시 장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 박 부인과 더불어 무언가를 하는 척한다. 자신이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다.

일지가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음은 결국 지금 남편의 총애를 받더라도 자신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고 기생에다가 첩인 신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으로, 자신의 아들과 남편까지 버리고 윤리에 어긋난 행위까지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적 규범 상 첩 일지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자신의 욕구를 추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탓이다. 그녀는 욕망을 채우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해야 했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서 ‘음모’가 대두되고, 결과적으로 ‘일지’는 새로운 악녀의 이미지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어 일지는 비자와 채옥을 불러 방에 가서 청출(일지의 아들)이 잠을 깨면 데려오라고 시킨다. 청출을 죽여 놓고도 청출의 죽음을 일절 모르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장 부인, 박 부인과 같이 있음을 보여줬으니, 이만하면 그녀의 알리바이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은 청출을 보자마자 일지는 또 ‘너를 죽인 년은 내가 일찍 짐작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의해 가족들의 시선은 청출이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인을 했을 것이고, 살인자가 누군지에 대한 의문으로 바뀌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금석의 죽음을 보고는 ‘나의 자식은 어미 죄로 죽었거니와, 금석은 누구의 죄로 죽었는가.’ 라는 말을 던지는데, 이는 두 아들을 죽인 죄인이 최 부인

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즉 지난 시절 최 부인이 과거 다른 남자와 부정한 사실을 저질렀음을 첩 일지가 시아버지에게 고해 바친 것에 대한 양갈음으로 일지의 아들을 최 부인이 죽였을 것이라는 말이고, 반면 박 부인은 최 부인이 저지른 부정한 사실에 대해 시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오해’라며 최 부인을 두둔했던 사람인데, 왜 죄도 없이 박 부인의 아들 금석을 죽였느냐는 원망의 말을 이렇게 표출한 것이다.¹⁰⁷⁾ 일지가 던진 이 말 속에는 살인자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자가 최 부인임을 교묘히 유도하는 말이 되었다. 게다가 일지가 집안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최 부인의 딸 채순이의 뺨을 치면서 ‘청출과 금석을 모두 죽이고 뿔 구경하냐’고 질책하는 대목에서 최 부인이 살인자라는 사실은 분명해지는 양상을 띤다. 앞의 말에서는 다른 가족들에게 ‘최 부인이 살인자’라는 의심을 갖게 한 것이며 두 번째에서는 ‘확실히 최 부인이 살인자’라고 췌기를 박은 것이다. 이에 일지는 계교대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최 부인도 집에서 쫓아내게 되었다. 따라서 일지의 음모는 잠시지만 성공을 거두게 된다.

처첩형 <사씨남정기>에서 교채란이 결국 자신의 아들을 차마 죽이지 못하자 시녀가 장주의 약에 독약을 넣어 죽인 것이다.

계모형 <장화홍련전>, <김인향전>에도 친자식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만 이는 필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직접적인 친자식 살해와 달리, 아버지가 계모의 음모에 휘말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친자식을 살해하는 이유는 그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미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¹⁰⁸⁾

이상의 작품 속에서 ‘친자식 살해’를 위한 음모가 형성되고, 결국 자식을 살해하는 악녀와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친자식

107) 최 부인의 부정한 행위를 첩 일지가 아버지에게 일렀기 때문에 최부인이 일지를 원망했고, 이것 때문에 청출을 죽였다고 보는 것은 뒤에 나오는 시아버지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지로 일너도 가장을 살닌 은인이어늘, 네 무단이 투기하고 괴이한 횡실을 가지고 일지를 도로혀 원망하니, 너는 가장도 몰으는 사름이오.”

<정진사전>, p.331.

108) <장화홍련전>에서 배좌수에 의한 장화의 살해는, 가문의 명예에 누를 끼친 가족 구성원의 존재를 소거하여 가문의 명예 수준을 현상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을 가족 구성원이 죽이는 관습인 명예살인 [Honor Killing]에 해당한다.

서경희, 「가정소설에 나타난 친자 살해 연구」, 『국어국문학』제154집, 국어국문학회, 2010, p.157.

살해 음모양상이 주로 처첩형과 계모형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음모의 배경과 음모의 양상으로 각각 <표 11>, <표 12>에 제시할 수 있었다.

<표 11> 친자식 살해 음모의 배경

작 품	유형	음모의 배경
<정진사전>	처첩형	• 첩 일지의 간악하고 투기가 많은 성격 ¹⁰⁹⁾ →애정한계의 대상으로서 갖는 한계와 집안 권세에 대한 욕심
<사씨남정기>		• 신분상승과 재력에 대한 욕심
<장화홍련전>	계모형	• 계모의 간악한 성격 →남편의 전처소생(장화홍련)에 대한 편애
<김인향전>		• 계모의 간교한 성격 →남편의 전처소생에 대한 편애

<표 12> 친자식살해 음모양상

작품	유형	살인 명령자	살인자	방식	죽은 자	살인방법
<정진사전>	처첩형	-	일지 (첩)	직접	첩 일지의 아들과 박부의 아들	다듬이 돌을 들어 자신 아들의 가슴을 누름. 수건으로 박부인의 아들의 목을 졸라뺨
<사씨남정기>		동청 (첩 교씨의 정부)	시비 납매	간접	장주(첩 교씨의 아들)	장주의 약에 독약을 넣어 죽임
<장화홍련전>	계모형	배좌수 (아버지)	장쇠 (계모의 아들)	간접	장화 (전처소생)	연못에 넣어 죽임 (실제로 장화가 스스로 뛰어듬)
<김인향전>		김좌수 (아버지)	인형 (인향의 오라비)	간접	인향 (전처소생)	연못에 넣어 죽임 (실제로 인향이 스스로 뛰어듬)

109) 인물의 '성격'에 대한 언급은 본문에서 실제로 제시되어 있을 때로 한정함. 언급돼 있지 않은 경우 제시하지 않음.

2. 편애와 소외감에 따른 임신(낙태)조작

음모의 또 다른 양상으로 계모가 미혼 전처소생을 음해하기 위하여 꾀질을 벗긴 쥐나 강아지를 이용하거나 약을 먹여 임신하거나 낙태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이다. 이 음모양상은 주로 계모형 가정소설에 나타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등을 들 수 있다.¹¹⁰⁾

<김인향전>은 정확한 작자와 창작연대를 알 수 없는 작품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뉜다. 전반부는 계모 정씨가 인향과 갈등이 심화되어 음모를 꾸며 인향을 임신한 것처럼 만들어 인향으로 하여금 못에 빠져 죽게 하였고, 동생 인함도 언니의 무덤에 가서 따라 죽는 내용이다. 후반부는 인향자매의 원혼이 부사의 공청에 나타나서 신원하여 안주부가 폐음이 되어 조정에서 군수를 내려 보내어 원옥사건을 처리하게 하며, 마지막에 인향의 약혼자 유성윤이 영약으로 인향자매를 다시 살어나게 하는 내용이다.

<김인향전>에서 계모 정씨가 꾸미는 음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좌수의 부인 왕씨가 인형, 인향, 인함 삼 남매를 두고 죽는다.
- ② 김좌수가 정씨를 취하여 후실로 삼는다.
- ③ 계모 정씨가 절세미인이지만 성품이 간교하여 노복들이 선악을 막론하고 복종한다.
- ④ 계모 정씨는 김좌수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인형 삼 남매를 학대한다.
- ⑤ 계모 정씨가 딸을 낳은 후에 인형 남매를 해할 마음을 품는다.
- ⑥ 하루는 걸인 노파가 찾아와 계모 정씨는 그 노파와 인형 남매를 없앨 흥계를 상의한다.
- ⑦ 계모 정씨는 노파가 시키는 대로 인향에게 메밀떡과 큰 구렁이를 먹여 임신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 ⑧ 계모 정씨가 인향의 신랑이 장원급제하였단 말을 듣고 더욱 시기심이 대발하여 노파로 하여금 처녀인 인향이 임신하였다는 소문을 내게 한다.
- ⑨ 춘삼을 시켜 인향당 뒤 담을 헐어 외인 남자가 출입한 모양을 해 놓고, 또 편지를 위조하여 인향 방에 넣어 둔다.
- ⑩ 김좌수가 계모 정씨의 음모에 말려들어 인형을 불러 인향을 물에 넣어 죽이라고 명한다.

110) <황월선전>에서도 계모가 꾀질을 벗긴 강아지를 이용하여 월선이 낙태한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황월선전>은 본문 삼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문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로부터 계모와 전처소생은 서로 의합하지 못하여 가정의 불의지변이 누누하다는 사회인식이 있었다.¹¹¹⁾ 그래서 계모라면 으레 악의 대명사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의 이유에는 조선조 가족제도의 특성인 바로 수직적 혈연주의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¹²⁾ 가족은 기본적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양 사회에 혈연의식이 더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계모는 혈연관계에 의한 자연적 구성원이 아니라 자녀양육이나 가산관리, 독신탈피 등 가정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영입된 이방인과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기존의 가족과는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모는 쉽게 소외된다. 그러다보니 사회의 인식과 생소한 가정환경에서 계모는 계모 나름대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되고 이를 위하여 음모를 꾸며 전처소생을 해하기도 하고 ‘악녀’라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인향전>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김인향전>에서 나오는 계모 정씨는 혈연에 의한 자연적 구성원이 아니라 정실부인의 죽음으로 인해 가산관리와 자녀양육이라는 필요성으로 받아들여진 인물이다. 계모 정씨는 또 다른 계모형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계모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악녀 형으로 묘사되는데, 절세미인이지만 성품이 간교하다. 뿐만 아니라 계모 정씨는 김좌수가 육례를 갖추어 맞아들인 후처로, 비록 정실 대우를 받지만 이미 전처소생이 있기 때문에 가산관리에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다.

이런 여건이다 보니 계모 정씨는 겉으로는 인향 남매를 친자보다 더 사랑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늘 앙양하여 시기심이 떠나지 않았다. 특히 계모 정씨는 자신이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후 더더욱 불안해하는 양상을 띤다. 김좌수가 관가 일에 바빠 가사를 등한히 하자 이때부터 인향 삼 남매를 박대하기 시작하고 잘 먹이지도 않고 고역만 시킨 것이다. 그런데 계모 정씨에게 인향은 더욱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성격이 적극적인 데다, 부모가 장중보육같이 그녀를 키웠고, 친어

111) 인향의 친어머니 왕씨가 죽기 전에 남편 김좌수에게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자고로 계모와 전실 자식 사이에 의합지 못하와 가명의 불의지변이 루루하오니 낭군은 명심하옵소서.”

<김인향전>, p.438.

그리고 앞의 사회문화적 배경부분에서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불화를 다루는 사례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112) 이광규, 『한국 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83, p.402.

머니 왕씨가 죽은 후에는 집안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집안에서 장남 인형이 있지만 인형은 인함에게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로 계모 정씨가 느끼는 인형은 그녀에게 있어 ‘전실’ 같은 존재였고,¹¹³⁾ 인형으로 인해 계모 정씨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게다가 남편 김좌수 역시 전처소생만 두둔하며 사랑을 주는 모습에서 계모 정씨는 불만을 갖게 된다.¹¹⁴⁾

이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집안 환경에서 자신의 운명과 그녀 자식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모 정씨는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 하는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이리하여 계모 정씨는 인형 남매에게 잘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으며 일만 시키면서 인형 남매가 굶어 죽거나 추위에 죽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나 남매는 의외로 계모 정씨의 구박을 잘 견뎌내었다. 결국 계모의 1차 음모가 실패한 것이다. 답답한 참에 걸인 노파가 찾아온다.

노파 답왈,

“어렵지 아니한 계교가 잇사오니 아모 염례 마옵소서. 무덤 우에 난 돌머밀노 썩을 하여 먹이고, 큰 굴영이를 잡아다 가두어 먹이면, 얼굴의 새알기름이 끼고 숨결이 놓하 남 보기에 아해 배인 모양 갓사오니, 화탁·편작인들 웃지 곳치리오. 그러하면 자연 소문이 나되, ‘좌수댁 소저가 행실이 부정하여 아해를 배었다’하면, 제 웃지 북글러워 살기을 바라리오.”¹¹⁵⁾

인용문 내용처럼 계모 정씨는 인형을 음해할 마음을 갖고 있으나 마땅한 계교를 찾지 못한다. 그러던 중 노파가 찾아오는데, 노파는 어릴 적 무당 노릇을 했

113) 장시광, 앞의 논문, pp.316~317 참조.

한상현은 기존 논의가 주로 사건이 계모의 악성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가정의 비극은 계모보다는 전실소생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주인공이 생모에 대해 지나친 심리적 고착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할 계모와는 불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그러한 주인공의 심리적 고착을 생모 콤플렉스라 명명하였다.

한상현, 「<김인향전> 주인공의 인격적 성향과 가정비극의 상관성」, 『고전문학연구』제17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114) 계모가 처하는 가정환경은 계모 정씨가 걸인 노파에게 하소연하는 말에 잘 나타났다.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남의 후취가 되엿더니, 전실 자식 여러 남매가 잇서 소위가 불칙하며, 남의 자식이라고 슬대가 업습디다. 계모라고 향인만치도 대접을 아니하는 중의, 또한 가장도 전실 자식만 사랑하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그 꼴을 보지 안이함이 맞당하다.”

<김인향전>, p.441.

115) <김인향전>, p.442.

으나 이제 늙어 무당짓도 그만두고 의탁할 사람도 없어 결식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한 인물이다. 즉 노파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에 계모 정씨는 돈을 주는 대가로 그녀와 공모한다. 노파가 계모 정씨에게 내민 계교는 인향의 정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향에게 무덤 위에 난 메밀로 만든 떡과 큰 구렁이 고기를 먹여 임신한 것처럼 꾸민다.

정씨 듯기를 다하고 깃뿔을 이기지 못하여 희색이 얼굴에 만면하여지며,
“아무 날 내가 인향을 꼬여 다리고 잔복골 목화 밧테을 갈 터이니, 그새을 타서 수고가 될지라도 썩을 가지고 목화 동양 온 체하고 썩을 먹이면 갑슬 후히 줄 터이니, 동양도 단이며 썩도 팔니 단이는 체하고 각별 조심하여 의심을 두지 않도록 하라.”

허며, 날을 저하야 후일을 기약하고 가더라.¹¹⁶⁾

인용문은 노파가 좋은 계교를 내 줘서 계모 정씨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희색이 얼굴에 가득한 대목이다. 계교를 부릴 날을 잡아 인향을 데리고 목화를 따러 가고, 노파가 목화 동양하기도 하고 떡도 파는 척한다. 계모 정씨가 목화를 그냥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떡과 바꿔 인향을 먹이고 나중에는 또 큰 구렁이 고기를 먹인다. 떡과 큰 구렁이 고기를 먹은 인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점점 임신부처럼 변한다.

이때 정씨 집 신랑이 장원급제하였단 말을 듣고 더욱 시긔지심이 대발하야 좌수 다러 일너 왓,

“낭군은 가내의 일을 자서히 몰아건이와, 요사이 혼자 집을 순행하다가 보은즉 후원 인향당에 외인이 출입하는 일이 루차자취가 현적하오니 살피옵소서.”

좌수 이 말을 듣고 의심하여 왓,

“이런 일을 웃지 경솔히 말을 내는요? 차후로는 다시 입 박게 내지 말나.”

당부할 썩일너라.

이때 마참 노파가 틈을 타서 왔는지라. 정씨 반겨 대접을 극진히 하고 하는 말이,

“그대 계교대로 성사가 되어스나 아즉 밧그로 소문이 현적지 못하였스니, 그대

116) <김인향전>, p.442.

는 수고를 앓기지 말고 내 계교대로 여차여차하라.”

하니, 노파 응낙하거날, 정씨 돈 이백량을 주며 신신부탁하니, 노파 백배사례하고 도라가서 본읍 촌으로 도라단이면서 이 말을 내되,

“본읍 좌수 김석곡에 쌀 인향이 행실이 부정하여 아해를 배었다.”

하고 도라단이니, 이 소문이 원건의 낭자하여 공론이 자자하더라.

이때 정씨 심복지인 춘삼을 불러 일너 왈,

“돈 오십량을 주노니 내 말대로 금야에 여차여차하라.”

춘삼이 돈을 받아 너호며 응낙하거날, 정씨 신신부탁하더라. 춘삼이 그 밤에 즉시 인향당 뒤 담을 허러 사람에 왕래한 모양을 하여 노터라. 그 후에 또 정씨 춘삼을 식히여 외간 남자가 인향과 희롱하는 편지를 써서 가지고, 인향의 방으로 드러가 그것 사랑하는 체하며 바누질 수품도 가라치는 체하고 그 손그릇을 뒤져 보다가 편지를 내여 든 후 펴서 보든니, 그것 대경실색하며,

“이것시 원 것시냐?”

하며, 노기가 대발하여 나아가니라.¹¹⁷⁾

위 인용문은 인향의 약혼자 유성윤이 장원급제하여 김좌수가 둘의 결혼을 재촉하는 대목이다. 원래부터 시기심이 많은 계모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더욱 시기심이 커져서 김좌수에게 인향이 사는 인향당에 외인이 출입하는 자취가 뚜렷하다고 인향을 모욕한다. 그러나 김좌수에게 인향은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남매간에 우애가 극진한 장중보옥 같은 딸인지라 계모의 말 한 마디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었다. 계모 정씨도 이 점을 의식하였는지 증거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때 마침 노파가 틈을 타서 찾아왔는데 계모는 그녀에게 또 돈을 주고 인향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심복인 춘삼에게도 돈을 주고 인향당 뒤 담을 헐어 사람이 왕래한 모양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였다. 또 춘삼을 시켜 외간 남자가 인향을 희롱하는 편지를 써서 인향의 방으로 들어가 손그릇을 뒤져 보다가 갑자기 편지를 발견한 척하고 거짓 대경실색하고 크게 화났다. 춘삼은 정씨와 주종관계라는 신분차이 때문에 정씨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비밀을 지켜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이다.

이때 좌수는 관가에 잇서 인향의 요란한 소문을 듣고 참기하를 마지 못하여 집

117) <김인향전>, pp.447~448.

에 도라와 이 말을 하니, 이제 정씨 발언변색 왓,

“좌수는 엇지 모로나잇가? 내가 심중에만 두고 내설치 못함은, 행여 남이라도 ‘계모가 글너서 전실 자식을 모함한다’ 하고 속 모르는 사람은 나를 ‘그르다’ 할 터이요, 또한 시집이나 진작 보낼가 하였든지 밋서 이런 말리 낫도라. 내 역시 무삼 면목을 들고 사람을 대하여 웃지 출입을 하리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그런 더러운 꼴을 보지 아니함만 갖지 못하오니, 웃지 살어 잇슬 마음이 잇사오리잇가?”

하며 손벽을 치며 쇠퇴를 하거날, 좌수 어어버서 짐집하고 잇스니 정씨 또 밋악 하여 왓,

“좌수는 소문만 드러 게실여니와 또 무삼 연고 잇는지 웃지 알니요. 어제 밤의 고요하와 살펴본즉 후원 초당의 담이 문어지고 사람 래왕이 자취가 잇삽고, 또 오날 아침에 제 방에 드러가 의복 수품을 가라치 주다가 손그릇을 보온즉, 의외에 부정한 편지 한 장이 잇삽기로 가져왔스즉 보옵소서.”

허며 좌수를 주거날, 좌수 밋아 본즉 모다 음담패설을 기록하였거날, 정씨 또 일오대,

“제 아모리 이매하다고 밋명치 못할 거시 제 몸을 보면 잉태한 거시 분명하옵고, 얼굴에 새알기름이 끼고 배가 부르고 숨결이 갓버하는 듯하니, 웃지 모로오잇가? 이제는 성례할 수도 업고, 배는 만삭하였스니 해산 기미가 불원한지라. 양반에 집에 이런 일이 낫스니 좌수 엇지 의관을 하고 출입을 하라오.”¹¹⁸⁾

노파는 정씨가 시킨 대로 돌아다니면서 김좌수의 딸 인향이 행실이 부정하여 아이를 뺐다고 소문을 내니 동네에서 의론이 분분하다. 김좌수가 관가에서 이 소문을 듣고 부끄러워 집에 돌아와 정씨에게 말하였다. 정씨는 김좌수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보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녀가 그동안 차마 말하지 않는 것은 남들이 자신이 전처소생을 모함한다는 말을 들을까 하는 것 때문이고, 이제 자신도 사람을 볼 면목이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 김좌수도 그동안 정씨에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 딸 인향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인향 때문에 자신도 세상에서 살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정씨 또한 ‘인향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자신에게도 불리한 일’이라 했기에 인향을 모욕한다는 혐의에서

118) <김인향전>, p.448.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정씨의 말에 꺾꺾해 하던 차에 정씨는 또 이 틈을 타 인향당의 담을 무너뜨리고, ‘사람 왕래하는 자취가 있다’며 김좌수에게 고자질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인향 방에서 부정한 편지까지 발견하여 증거인 양 보이면서 김좌수에게 들이민다. 계모가 위조한 편지는 그 자체로서 인향이 부정하는 것을 저지른 증거물이 되어 버리고 편지를 통하여 부정행위는 자세히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씨는 편지를 김좌수에게 주면서 ‘못 믿겠으면 인향의 몸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인향이 아이를 낳으면 집안을 더럽힌다’고 집안의 영욕을 가지고 김좌수를 자극한다. 김좌수가 이 편지를 보고 기가 막혀 어찌할 줄 모르다가 급기야 인향을 잡아오라 한다.

정씨 손뼉을 치며 하는 말리,

“내가 나흔 자식이명 당장에 싸러 죽일 터이지만, 이내 팔자 기박하여 남의 후취된 연고로 이런 변괴가 잇셔도 생사간을 말할 수가 업스니, 좌수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또한 양반에 자식이 되어서 불효가 되게 하였슬 썩 안이라 집안을 망케 하였스니, 찰찰리 내가 몬져 죽어 보지 안이미 맛당하다.”

하거날, 좌수 더욱 분긔 대발하여 칼노 셔안을 치며, ……119)

위 부분은 끌려나온 인향은 자신이 계모를 극진히 섬기고 밤낮에 일만 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좌수는 더욱 분노한다. 이에 인향은 친어머니를 부르며 통곡한다. 이때 정씨는 또 김좌수가 인향의 어머니 때문에 인향을 죽이지 않을까봐 걱정하여, “만약에 인향이 자신의 친딸이라면 당장 죽인다”고 김좌수를 채근한다. 그리고 인향의 행동이 큰 불효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인향 존재 자체가 가문에 수치가 되고 집안 다른 사람의 전정에 큰 장애가 된다고 말하며 인향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겠다고 손뼉을 치며 말하였다. 이에 김좌수는 더욱 크게 화가 나서 인형을 시켜 인향을 연못에 넣어 죽이라고 명하였다. 김좌수가 인향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권을 강화하고 집안의 법도를 바로잡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119) <김인향전>, pp.450~451.

인향이 순순히 인형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계모의 악행과 모함에 대해 원망하며 따진다. 그리고 정씨에게 자신의 배를 갈라보면 무죄함이 알 것이라고 호소한다.

정씨 발연변색하고 이러나 좌수더러 말하되,

“좌수님도 임의 보시거니와, 제가 부정한 행실을 하여 죽게 되면서도 도로혀 나를 원망하며 수욕이 무쌍하니, 저런 자식이 어대 잇스리?” 하오며, 눈을 홑드고 살기충턴하여 가삼을 두다리며 죽으려 하니, 좌수는 망치의 유연하든 말을 생각하고 망극한 중에 인향의 말이 철석 가하여 ‘애매하다’함을 듯고 도로혀 의심되든 중의, 덩씨 모양을 보고 아주 겁을 내어 인향을 호령하여 왈, ……120)

인향이 자신을 위해 변론하는 모습과 말이 김좌수에게 진실부인의 유언을 생각나게 하고 인향의 부정함이 의심되게 되자 정씨가 가슴을 두드리며 죽으려 한다. 김좌수는 정씨의 모습을 보고 겁을 내어 인향에게 인형을 따라 가라 하였다. 정씨가 천성이 포악하면서도 영민함을 갖추고 있어 악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자마자 자신의 이런 점을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결국은 인향이 진실을 밝힐 길이 전혀 없어 어머니 사당에 들어가 통곡하고 혈서를 쓰고 인형을 따라 연못에 가게 된다.

이와 같은 <김인향전>의 비극은 조선시대가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빚어진 모순이다. 당대의 사회는 여성에게 지나치게 정절을 강조하였고, 동양여성은 또 이 정절을 자랑하였던 것이다.¹²¹⁾ 여성의 근본인 정절은 가족과 가문 전체의 안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조되었고 여성의 부정이나 불륜은 당시의 현실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이다. 노파는 이러한 맹점을 악용, 계모 정씨를 도와 당시 유교적 윤리질서를 교묘히 악용하여 인향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정절을 욕되게 함으로써 인향을 제거한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김인향전>이 <장화홍련전>의 모방 작품이라고 평가되어 왔다.¹²²⁾ <김인향전>이 모방작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계모의 계교로 죽은 진실 딸들이 원귀가 되어 원한을 풀고 재생하여 복록을 누린다는 기본적인 서사구조

120) <김인향전>, p.453.

121) 박성의, 『한국문학배경연구』, 반도출판사, 1995.

122) 김기동, 앞의 책, p.360 참조.

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두 작품은 별개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플롯을 보면 <김인향전>의 전반부는 <장화홍련전>과 대동소이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인향의 약혼자 유성운이 영약으로 인향자매를 다시 살어나게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김인향전>은 인물 구성, 인물 성격 묘사, 사건 전개 등 면에서 <장화홍련전>보다 우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장화홍련전>의 인물 구성을 살펴보면 장화, 홍련, 부친 배좌수, 모친 강씨, 계모 허씨와 그녀가 낳은 아들 장쇠, 전동호 부사, 재취 윤씨 등을 등장시켰는데, <김인향전>에서는 인형, 인향, 인함 세 남매, 부친 김좌수, 모친 양씨, 계모 정씨, 인향과 약혼한 유성운, 계모 정씨가 음모를 꾸밀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걸인 노파, 전두용 부사가 주요인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심천동 산신, 인형 남매의 외할머니, 유성운의 부모, 임금 등 보조인물로 등장시켰다. <장화홍련전>보다 인물 구성이 확대된 것이다.

그 다음은 인물 성격 묘사의 차이이다. <장화홍련전>의 주요인물들이 단편적인 면모를 보이는 데 반해 <김인향전>은 주요인물들이 다각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주요인물인 장화는 순종적인 모습으로만 그려지는데, 인향은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남매간에 우애가 극진하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계모에게 따지기도 하는 적극적이면서 진취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또 사건 전개에 있어서도 <김인향전>이 <장화홍련전>보다 상당히 치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모가 음모를 꾸미는 과정에서는 <장화홍련전>보다 <김인향전>이 훨씬 자세히 서술되었으며, 현실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도록 잘 표현되었다. 즉 <장화홍련전>에서는 계모 허씨가 오직 껍질을 벗긴 쥐를 장화의 이불 속에 넣어서 낙태한 핏덩어리로 보이도록 만들고 배좌수에게 보여주며 임신했다가 낙태한 것으로 장화를 모함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인향전>에서는 계모 정씨가 먼저 인향에게 메밀떡과 큰 구렁이를 먹여 임신한 것처럼 꾸민다. 그런 후 심복을 시켜 인향이 머무는 인향당의 담을 허물어 외간남자와 사통하는 듯한 흔적을 만든다. 동시에 인향이 외간남자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인향의 방에 거짓 편지까지를 넣어 이것을 마치 증거인 양 김좌수에게 보여주면서

인향을 포함한다. <장화홍련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김인향전>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음모를 꾸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임신(낙태)조작은 주로 계모가 전처소생을 모해하려고 쓰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임신(낙태) 음모의 배경과 음모양상을 정리, 제시하면 <표 13>, <표 14>와 같다.

<표 13> 임신(낙태)조작 음모의 배경

작 품	유 형	음모의 배경
<장화홍련전>	계모형	• 계모의 간악한 성격 →남편의 전처소생(장화홍련)에 대한 편애
<김인향전>		• 계모의 간교한 성격 →남편의 전처소생에 대한 편애

<표 14> 임신(낙태)조작 음모양상

작 품	유 형	음모자	대상자	하수인	음모방법
<장화홍련전>	계모형	계모 허씨	장화(전처소생)	장쇠(계모의 아들)	귀를 잡아가지고 가족을 벗겨서 장화가 자는 이불 속에 넣음
<김인향전>		계모 정씨	인향(전처소생)	노파 시비 춘삼	인향에게 무덤 위에 난 메밀로 만든 떡과 큰 구렁이 고기를 먹여 잉태한 양 해 놓음
					노파로 하여금 처녀 인향이 잉태하였다는 소문을 냄
					춘삼을 시켜 인향당 뒤 담을 헐어 사람이 왕래한 모양을 해 놓음
				부정편지 위조	

3. 무조건적인 정절의식에 따른 간부위장

음모의 방법 중 필체를 모방하여 상호간의 편지가 오고 간 것처럼 꾸미거나, 물건을 훔쳐 증거물로 제시하거나, 어떤 남자를 시켜서 부정누명 씌울 여성의 방 앞에 숨어 있다가 집안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망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외간 남자와의 부정누명을 씌우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간부위장’이다. 이 간부위장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부정편지·증거물제시·간부세우기가 그것이다.

‘간부위장’은 첩이 신분상승, 애정차지, 집안의 주도권 등을 이유로 정실부인의 정조가 훼손된 것처럼 꾸며 가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행위’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의 음행에 해당되고 집안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게 된다. 도둑질하였다는 누명이나 살인누명은 증거제시로 충분히 결백이 드러나지만 남녀 간의 비밀관계는 사사로운 문제이므로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워 의문의 여지를 절대로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특수성격을 가진 음모양상이기도 하다.¹²³⁾

간부위장 양상을 다룬 작품으로는 처첩형 <사씨남정기>, <정진사전>, <옥난빙>, 처처형 <조생원전>, <월영낭자전>, 복합형 <정을선전>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사씨남정기>는 여타 작품들보다 ‘간부위장’에 대한 음모 양상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증거물과 ‘실물’까지 보여준다. 즉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한림이 잘 알고 있는 사씨의 옥지환과 직접적으로 유한림을 만나 이야기하는 ‘실물 간부’인 것이다. <사씨남정기>가 다른 네 작품보다 간부위장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높고 사실성이 더 강한 편이다. 그리고 교씨는 꾸미는 음모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잘 표현된다. 이에 간부위장 음모양상은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씨남정기>는 대부분의 가정소설이 작자와 창작연대 미상인 것과 달리 작자가 서포 김만중으로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¹²⁴⁾ 창작연대 추정이 가능한 작품이

123) 김현룡, 앞의 논문, p.26 참조.

124) 김만중의 증손이었던 김춘택의 『北軒集』 잡설에서 “서포는 한글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그 중에 <남정기>라고 이르는 것이 있는바, 이를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고로 내가 한문으로 번역했으니……”라고 하여, 서포 김만중의 한글로 지은 <남정기>를 북한 김춘택이 일부러 한자로 번역하였다고 한

다.¹²⁵⁾

<사씨남정기>에서 계모 정씨가 꾸미는 간부위장 음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한림과 사씨가 결혼한 후 10년이 지나지만 아직 자녀가 없어 사씨가 유한림에게 교씨를 첩으로 맞아들일 것을 권한다.

② 교씨는 이십낭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는다.

③ 사씨는 교씨에게 부당한 음약을 연주하지 말라고 권하는데 교씨는 유한림에게 사씨가 자신을 책망했다고 모함하나 유한림이 사씨를 의심하지 않는다.

④ 교씨는 낙태하게 만드는 약을 사서 잉태한 사씨가 복용하는 약 속에 몰래 섞어 놓으나 실패한다.

⑤ 교씨와 동청이 음란한 짓을 하면서 사씨의 필체를 모방하여 교씨와 장주를 저주하는 문자를 만들어 유한림이 사씨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⑥ 교씨는 시비를 시켜 사씨의 방에서 유한림이 잘 알고 있는 옥지환을 훔치도록 한다. 동청은 이 옥지환을 친구인 냉진이라는 불량배에게 주어 한림에게 의혹을 자아내도록 사건을 꾸민다. 사씨가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자처한다.

⑦ 동청은 납매를 시켜 교씨의 아들을 죽여 사씨에게 누명을 씌운다. 사씨가 부정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난다.

⑧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시부모의 산소 밑에 초가집을 얻고 머무르게 된다. 동청은 두부인의 편지를 위조하여 사씨를 선영을 떠나게 하고, 냉진을 시켜 사씨의 절행을 훼손하게 한다. 구고는 사씨에게 현몽하여 음모가 실패된다.

이상의 줄거리를 가진 <사씨남정기>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씨가 신분상승을 위하여 음모를 꾸며 사씨를 해친다는 의견이 있지만,¹²⁶⁾ 필자는 신분상승보다 교씨가 자신의 경제적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

다. 이로써 작가가 서포 김만중임을 알게 된 것이다.

정규복, 소재영, 김광순 공편, 앞의 책, p.389.

125) 김만중은 숙종 15년(1689)에 숙종이 인형왕후를 폐위시키고 회빈장씨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데 반대하다가 마침내 남해도로 유배되고, 숙종 18년(1692)에 인형왕후의 복위 2년 전에 출하였으니 숙종 15(1689)년부터 숙종18(1692)년 사이에 배소에서 <사씨남정기>를 지었다고 하겠다.

김기동, 앞의 책, p.332 참조.

126) 이원수, 앞의 책, pp.89~99.

오종근·백미애, 『조선조 가정소설연구』, 월인, 2001, pp.54~57.

박경열, 「고소설의 가정갈등에 나타난 악행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88~89.

씨의 정실자리를 탐하는 것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씨는 원래 ‘벼살 다니는 스름의 딸’이고, ‘부모 조스(早死)호고 그 형의게 의지호여 잇’¹²⁷⁾다. 또 ‘첩이 본디 빈흔헌 계집으로 상공의 은혜를 입스와 영화부귀 이 곳스오니’¹²⁸⁾ 와 같은 대목들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교씨는 신분이 천한 백성이 아니라 몰락한 사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씨는 양반자리를 꿈꾸는 신분 상승욕보다 간난하고 고생스러운 지금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춘택이 한역한 이본 <飜諺南征記>에서 교씨는 ‘문호가 쇠하였으니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상의 첩이 되는 편이 좋겠어’¹²⁹⁾라고 말한 대목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교씨가 창기가 되어 한창 명성을 쌓을 때 유한림이 교씨를 잡기 위하여 매파로 하여금 예부상서가 소실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하자 크게 기뻐하여 흔쾌히 승낙하는 대목도 그러한 점에서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교씨는 현실에서 이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성이 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교씨의 이러한 신분변화는 <사씨남정기>가 창작된 17세기 말에 점점 붕괴된 조선의 신분제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씨는 유한림에게 시집 간 지 십 년 가까이 되었으나 아직 자녀가 없자 유한림에게 교씨를 첩으로 삼아라고 권한다. 이로 인해 교씨는 후사생산이라는 목적과 함께 정실부인인 사씨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입된다. 자신의 영입 목적이 후사를 이을 아들 낳기이고,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교씨는 아들을 낳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여러 점쟁이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중에 이십낭이라는 점쟁이의 도움으로 드디어 아들을 낳는다. 교씨의 생남은 유씨 가문의 후사를 이어줘 유한림이 불효자가 될 뻔한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의를 인정받는다.

127) <사씨남정기>, p.23.

128) <사씨남정기>, p.29.

129) 『飜諺南征記』, p.7. 自思門戶衰矣 與其爲寒士妻 無寧作宰相妾.
이상구, 앞의 논문, p.384, 재인용.

하지만 얼마 안 되어 사씨가 잉태한다. 정실부인인 사씨의 결함이 해결돼 버리면서 교씨는 그녀가 움켜쥐고 누렸던 모든 욕망들을 내려 놓아야 했다.

이에 양양불락한 교씨는 납매와 함께 음모를 꾸미는 등 ‘악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낙태약을 준비하여 사씨가 복용하는 약 속에 몰래 섞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사씨는 그 약을 마시자마자 문득 구역질을 하며 낙태약을 토해 버리고, 교씨의 음모는 실패된다.

결국 사씨가 아들을 낳고,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기뻐한다. 게다가 사씨의 용모는 교씨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씨가 사씨를 넘어설 방법은 아무 것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상속제도에 의해 자신의 아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음¹³⁰⁾을 알게 된 교씨는 악랄해지면서 사씨를 축출할 좀 더 잔인한 음모를 꾸미게 된다.

우선 납매로 하여금 유씨 집안에 문객으로 들어온 동청이라는 사람과 사통하게 하여 동청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이십낭에게 남자를 유혹하는 방술을 배워 유한림을 자신에게 빠져들게 한다. 다시 이십낭에게 저주를 행해달라고 한다. 몇 달 후 장주가 아픈 기회를 이용한다. 교씨는 동청과 정을 통하여 동청으로 하여금 사씨의 필체를 모방하여 저주문자를 만든다. 교씨도 또한 병이 났다는 구실로 누워 있다. 납매가 일부러 유한림이 교씨와 같이 있을 때 저주문자를 발견하여 교씨에게 준다. 유한림은 사씨의 필체인 것을 믿었지만 집안에서 난처한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하여 덮어버리기로 한다. 결국 유한림은 사씨에 대한 정이 떨어지며 사씨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옛날에 교씨가 말한 ‘부인이 투기를 부린다’는 말도 믿어버린다.

교씨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서 동청이 자신과 정을 통하고 싶다는 말을 들어도 흔쾌히 허락한다.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정절까지

130) 조선시대 왕자의 난을 겪고 왕위에 오른 정종이嫡庶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정종의 同母弟인 태종이嫡庶 간의 差待가 더욱 심해져 庶孽禁錮法까지 만들게 된다. 이는 왕족만이 아니라 各品 관료에게도 적서의 구별이 더욱 제도화되고, 또 첩자에게도 양첩자, 친첩자에 따른 신분, 재산상속, 기타의 여러 세밀한 규정까지 생기게 된다.¹⁾ 庶孽은 家內에서도 父兄을 父兄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親父에게 嫡子가 없을 경우에도 支族에게서 養子를 취하여 하여 嗣子로 삼지 못하게 하였다. 또 사회에서는 비록 사족이라도 一名 半士, 左族이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賤待를 받아 왔던 것이다.¹⁾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초기보다 중기이후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적자에게 후사가 없을 경우 妾子 내지 庶子를 承重者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嫡長子에게 후사가 없으면 庶子에게 후계하도록 하지 않고 동종의 支子를 養嗣者로 삼게 했던 것이다.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8, p.512.

희생한 교씨는 당시 여성에게 목숨보다 정절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셈이다. 교씨는 가문의 질서, 명예 그리고 화목보다 개인적인 삶을 우위에 두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시의 혼님이 집을 썬 후, 교시 더욱 방즈햐 동청으로 더부러 괴탄햐미 업서 업연이 부부갓치 지너더니, 일일은 교시 동청다려 왓,

“이제 상공이 멀니 나아가고 스시 오릭 집을 썬앗시니, 정히 계교를 베풀 썬라. 장차 엇지하면 스시를 업시할고?”

동청 왓,

“넉게 혼 묘게 잇시니, 족히 스시로 하안금 혼변 죽기를 면햐나 가증의 잇지 못하리라.”

햐고, 인햐야 가마니 말햐되,

“이리이리햐미 엇더햐뇨?”

교시 디회햐야 왓,

“낭군의 계교는 진실노 귀신이라도 측량치 못햐리로다. 석일 진유지 범아부를 반간지미 엇지 이의서 더햐라! 아지 못게라, 엇던 슝이 능히 햐햐라!”

동청 왓,

“넉게 심복인 일인이 잇시니 명왓 ‘냉진’이라. 츠인을 언죽이식비햐니 가이 성스햐려니와, 부디 스시의 슝햐는 보물을 어더야 되리니, 이 일이 쉽지 아니리로다.”

교시 싱각다가 왓,

“스시의 시비 설미는 납미의 동미라. 츠인을 다리어 어더 너리라.”

햐고, 이의 종용햐 썬를 타 설미를 불너 후히 디접햐고 금은 수식을 주어 달너며 계교를 일으니, 설미 왓,

“부인의 슈식 너흔 글웃슨 방증의 잇신되 열쇠를 가져야 햐 거시오. 다만 아지 못게라, 무어식 쓰려 햐나뇨?”

납미 왓,

“쓸 디를 곳타여 못지 말고 슝가 남다려 일으지 말나. 만일 누설햐면 우리 양인이 스지 못햐리라.”

햐고, 열쇠 여러슬 너여주며 왓,

“이 증의 맞는디로 열고 상공도 평일 보시고 슝햐시던 물건을 엇고져 햐노라.”

설미 즉시 열쇠를 감초고 드러가, 가만니 상즈를 열고 옥환을 도적하야 닌 후 상즈를 네와 꺾지 덤흔 후, 즉시 나와 교시에게 드러 왓,

“츠물은 구가의 세전지물이라.”

하고,

“가장 중이 너기시더이드.”

교시 크게 짓거 중상하고, 이의 동청으로 더부러 핑계하려 하더니, 문득 스시 피셔 갖든 하인이 신성현으로쫓츠 와 급스 부인의 작고하시를 전하고 왓,

“사공직 연유하시고 다른 강근지친이 업스니, 부인이 손슈치상하야 장스를 지너 시고, 교낭즈에게 ‘가스를 착실이 살피라’ 하시더니이다.”

교시 납뭇을 보너여 극진이 위문하고, 일변 동청을 지촉하야 빨리 핑계하게 하 니라.¹³¹⁾

위의 인용문은 교씨가 동청의 계책을 따라 시비를 시켜 사씨의 옥지환을 훔치는 대목이다. 마침 사씨가 친정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기 때문에 신성에 가 있고, 유한림이 공무로 산동방면으로 가 있어 절호의 기호가 마련된 것이다. 이때를 놓칠 세라 교씨는 동청이 계획한 대로 납매의 종매 설매(사씨의 시비)에게 재물을 쥐 사씨가 가장 좋아하는 유한림도 익히 아는 물건을 훔치라고 시킨다. 설매는 유씨 집안에 대대로 전해오는 옥지환을 훔쳐 교씨에게 준다. 설매 또한 물질적 유혹에 약해서 결국 주인인 사씨를 배신하고 만 것이다. 여기서 옥지환은 중요 증거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숙덕한 사씨가 사통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정황이 되며, 음모의 성공을 가져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츠설. 훈님이 산동지방의 이르러 주점의 드러 주식을 스 먹으려 하더니, 문득 훈 소년이 드러와 훈님을 보고 읍하거늘, 훈님이 답례하고 좌정하미 기인의 풍치 준미하리라. 훈님이 성명을 무르니, 답왓,

“소칭은 남방 스릅이라. 성명은 녕진이어니와, 못잡나니 존스의 고성디명을 듯 고져 하느이다.”

훈님이 바로 이르지 아니코 다른 성명으로 디답하고, 인하야 민간 물정을 무르니 디답이 선명하거늘, 훈님이 짓거 너심의 싱각하되,

‘츠인이 가장 아름다운지라.’

인하야 무러 왓,

131) <사씨남정기>, pp.35~37.

“형이 이제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냐? ‘그딴 비록 남방 스펀이라’ 하나 음성이 경스에 스펀 갖도다.”

기인 왈,

“본딴 소제는 외로운 죽취로 쓴구름 갖치 동서로 표박하야 정처 읍시 다니는지라. 슈년을 경스에 잇더니, 금춘의 신성현이라 하는 곳의 반년을 지니고 이제 고향으로 가더니, 슈일 동행함을 으드니 다행하도다.”

훈님 왈,

“나도 심시 울적한 스펀이라. 정희 형을 만나니 다행하도다.”

하고, 인하야 술을 권하야 서로 먹고, 한가지로 흥하야 직점의 드러 쉬더니 계명의 니르러 썬늘식, 훈님이 보니 기인이 속옷 고름의 옥지환이 띠엿거늘, 훈님이 가장 고이히 여겨 즈셔이 보니 아마도 눈의 익은지라. 의심하야 날오디,

“넋 맞춤 서역 스펀을 만나 옥류를 분변하더니, 형의 가진 옥지환이 예스 옥이 아닌가 시부니 혼번 구경코져 하노라.”

기인이 뵈인 거슬 뉘웃고 머뭇거리다가 글너주거늘, 바다보니 옥빛과 물형 삭인 체도가 완연이 스시 옥지환과 갖거늘, 의심하야 다시 보니 또 혼 푸른 털노 동심결을 밋жат거늘, 심중의 더욱 의심하야 소년다려 문왈,

“과연 조흔 보비로다. 형이 촌몰을 어디서 어디 가졌는냐? 백백이 사랑하는 거이로다.”

기인이 촌언을 듯고 거긋 쉼연하야 슬픈 빗치 잇서 부담하고 도로 거두어 츠거늘, 훈님이 부딴 알고즈 하야 다시 무리 왈,

“형의 옥지환니 필유무정지식 아니니, 놀다려 일너든 무어시 방희오랴?”

소년이 양구의 왈,

“북방의 잇실 썬 맞춤 아는 스펀이 준 비라. 형이 아라 무엇하며 무슴 되시 잇시리오?”

훈님이 싱각하되,

‘제 말이 가장 의심되도다. 옥지환도 의려업고, 또 신성으로서 오노라 하니, 이 아니 비복의 무리 도적하야 촌인에게 판가?’

하야 싱각이 이에 미쳤는, 그 근뭇을 자셔이 알고즈 하야 짐긋 여러 늘 동행하니, 정의 즈연이 친근하지라. 인하야 문왈,

“형의 옥지환의 동심결 띠잔 거슬 누츠 날이지 아니하니, 엇지 봉우지정이라 하리요?”

소년이 주저하다가 왈,

“넋 형으로 더부러 정의 김호니 일너든 험롭지 아니하되, 이는 다만 정의 잇는

스름의 일이니 소제를 웃지 마르소서.”

“여차 유정지인이 잇스면 엇지 살지 아니하고 엇지 남으로 나오가는뇨?”

소년 왈,

“호식다마하고 조물이 식기하야 아름다운 인연이 두 번 오지 아니하는지라. 고어의 운하되, ‘규문의 흥번 드러가미 깊은 바다의 드러감과 굿다 하니, 이를 비유하야 스람이 흥인 굿다’하니, 정이 쇼제의 정스를 일은 비라, 엇지 가척지 아니리오?”

하야 언과의 척연 탄식하며 슬픈 빗치 땡동하거늘, 한님 왈,

“형은 가히 아름다운 스름이로다.”

하고, 인하야 양인이 종일 통음하야 즐기고, 익일 오후의 각각 길을 눈화 가니라. 아지 못게라, 기인의 근본이 엇더한 스름이며, 스시의 직익이 필경 엇지 되고, 츠청 하회하라.¹³²⁾

위의 인용문은 유한림이 공무로 나갈 때 길에서 ‘간부’를 만나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교씨는 동청과 함께 냉진에게 유한림을 만나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길을 보낸다. 냉진은 객점에서 자연스럽게 유한림과 친해지고 신성에서 반년동안 살았다고 밝힌다. 그리고 유한림과 같은 객점에서 자고 옷고름에 매달려 있는 옥지환을 유한림에게 보이게 한다.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인데 유한림은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게 없어 냉진에게 옥지환을 가지게 된 연유를 묻게 된다. 더군다나 옥지환을 품속에 차고 있고 동심결까지 매어 놓는다. 냉진은 마지못해서 말하는 것처럼 정인에게서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유한림이 오해하도록 유도한다. 이 부분은 바로 <정진사전>, <조생원전>, <옥난빙>, <월영낭자전>보다 설득력이 높고 현실성이 강한 부분이다.

차설. 한님이 길을 난화 산동으로 향하야 굴식, 옥환을 한번 보미 그 근본을 즈시 아지 못흔지라 크게 의심하야 싱각하디,

‘세상의 눈측흔 일이 만토다. 혹즈 비복 등이 도적하야 다투는가?’

천스만례 무궁하야 심식 슈란하더니, 반년 만의 왕스를 다 맞치미 경스로 도로오니, 스부인이 도라운 지 오랜지라. 한님이 부인으로 더부러 서로 합누하야 조상흔 후, 교시와 다뭇 양아를 보고 무익하더니, 홀년 닝진 쇼년의 옥환 일절의 스식이 변함을 썩닷지 못하야 스시다려 문왈,

132) <사씨남정기>, pp.37~40.

“부인이 전일 선인의 주신 바 옥지환을 어디 두었느냐?”
부인 왈,
“상즈의 잇거니와 어이 무르시느냐?”
한님 왈,
고이한 일이 잇스니 너 보고즈 호노라.“
부인이 쏘흔 의괴호야 시비로 호야금 ‘상즈를 가져오라’ 호야 여러 보니, 다른
거슨 다 의구히 잇시되 홀노 옥환이 업는지라. 스시 덕경 왈,
“너 분명이 여기 두엇더니 어이 업는고?”
한님이 변식고 말을 아니하니, 스씨 왈,
“옥환 거쳐를 상공이 알으시느냐고?”
한님이 작식 왈,
“그덕 남을 주고 나다려 무르문 엇지미뇨?”
사씨 츠언을 듯고 츠괴츠악호야 말을 못호더니,홀연 시비 보호되,
“두부인이 오시느냐이다.”
한님이 황망이 마저드려 와 비례필의 각각 호헌을 파호고 무스히 왕환호물 갖거
호더니, 한님이 두부인을 득호야 곱아디,
“가중의 덕변이 잇서 장찰 숙모기 품호려 호더니이다.”
부인이 경아 왈,
“무슨 일이뇨?”
한님이 능진 소년의 말을 일으고,
“그 일이 심히 고이호기로 집에 도라와 옥지환을 츠진즉 과연 업스니 문호의 큰
불형이라. 이를 장츠 엇지 처치호리오?”
스씨 츠언을 듯고 혼비빅산호여 눈물을 흘니고 왈,
“첩이 평일 형식 무상호와 상공이 여츠 누형을 의심호시니, 첩이 하면목으로 덕
인호리잇고! 첩의 칭사를 상공 임의로 호소서. 고어에 운호되, ‘어진 군즈는 츠언
을 신청치 아니호고 츠소호는 사람을 시호를 먹이라’ 호엿시니, 원 상공은 살피스
원억호미 업게 호소서.” 두 부인이 청필에 발연변식 왈,
“너의 흥명이 선소스와 엇더호뇨?”
한님이 덕왈,
“소질이 엇지 선덕인을 짜르리잇고?”
부인 왈,
“소스형이 본덕 지인지감이 잇고, 쏘 텃하 일을 물을 거시 업시 지니엿시니, 덕
양 스씨를 칭찬호되, ‘아부는 천하의 괴특호 절덕널부니 석일 널녀에 다리지 아니

리라' 하고, 널노써 너게 부탁하되, '연쉬 년소하니 무릇 범스를 가라쳐 그른 곳에 싸지게 말나' 하시더니, 쏘흔 식부에게 당하여는 '사사에 별노 경계홀 빅 업다' 하시니, 이는 사씨에 변형숙덕을 아라시미라. 엇지 선녕에 교조지되 범연하시라? 그러치 아닐지라도 추탁을 싱각하미 인즈에 도리여늘, 흠물며 선형에 식감과 스시에 절형으로 여츠 누명을 감심하여 엇지 옥 갓흔 처즈를 의심하노뇨? 이는 벽벽이 가중에 악인이 잇서 스시를 모회하미 아니면, 불과 시비 중 간음흔 직 잇서 도적하미니, 엇지 엄히 스희지 아니하고 여츠 불명흔 말을 하노뇨?"

한님이 되왈,

“숙모에 가르치시는 말삼이 맛당하여이다.”

하고, 즉시 형장지구를 갓초고 시비 등을 엄형추문하니, 익미흔 시비는 '죽어도 모로노라' 하고, 그 중에 설미는 죽고하면 죽을가 겁하야 혼글갓치 은휘하야 모로물 발명하니, 맛춤니 종적을 아지 못홀지라. 두부인이 쏘흔 홀일업셔 도라가고, 스씨는 누명을 신설치 못하얏시미 하당에 죄인으로 츠쳐하니, 한님은 전후 참언을 만히 드렀는지라 주시도 의심을 방하지 못하니, 교시 크게 락락하여 하더라. 133)

위의 인용문은 유한림이 집에 오자마자 사씨에게 옥지환이 어디 있냐고 추궁하는 대목이다. 유한림은 사씨에게 물어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냉진이 가지고 있는 옥지환이 바로 사씨가 사랑하던 것이라고 이미 단언하고 있다. 그래서 사씨가 옥지환을 찾지 못하자 유한림은 이미 남에게 주지 않았느냐 되묻고 발끈하여 화를 낸다. 유한림은 처음 만난 냉진의 문답과 몇 마디로 호감을 갖고 그의 한 말을 다 믿어버려 자신의 부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유한림의 어리석은 대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침 유한림의 고모인 두부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유한림이 사씨를 쫓아내지 못하게 한다. 두부인은 사씨가 자식이 없자 유한림에게 첩을 들이라고 권할 때도 부정적 견해를 표출했던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님이 교시로 동낙하며 스시에 일을 의론하니, 교시 곁오되,

“인부 미양이 말슴을 빗녀여 석즈 널부의게 비겨 세인을 안하의 보니, 어이 즐겨 참형을 하야 타인의 치소능욕을 감심호리잇가? 첩의 소견의는 무부인 말슴이 율홀가 하노이다. 연이느 두부인 말슴도 쏘흔 공변되지 아니하시니, 스부인을 너무 포장하시고 상공을 과히 험박하시니 즈못 체면이 업스이다. 석즈에 성인도 오히려

133) <사씨남정기>, p.40.

속은 일이 만스오니, 선노에 비록 고명하시니, 부인이 드려오신 후 아릿지 기세하시니, 엇지 부인에 심지를 내탁하시며, 임종시의 유언하시른 불과 한님을 경계하시미오 부인을 권장하시물, 두부인이 츠언을 빙즈하야 상공으로 하야금 ‘스스마다 부인씨 문의하라’ 하시니, 엇지 편벽되지 아니리오.”

한님 왈,

“스씨 형식이 구츠희미 업스니 나도 쏘흔 츠식 업슬가 하엿더니, 일작 의심져온 일을 본고로 지금에 후히미라. 석일에 저를 밋노라 하야 저주 필적이 스시에 필적긋흐디, 기시에 가늌에 츠언이 잇는가 하야 즉시 업시하고 너다려도 일이지 안앗더니, 이 일로써 불진디 엇지 명부라 하여 츠후 어너 지경에 밋치라!”

교씨 디왈,

“연즉 부인을 엇지 처치하시려 하시느잇고?”

한님 왈,

“이제 명빅흔 증참이 업고 엇지 다스리며, 쏘흔 선상공이 스랑하시던 비오, 초토를 혼가지로 지너엿고 숙피 힘써 구하시니, 가장 어려운 일이라 엇지하리오?”

흐디, 교씨 묵연부답이러라.¹³⁴⁾

위의 인용문은 한림이 교씨와 함께 사씨의 일에 대해 의논한 대목이다. 두부인은 사씨가 현숙한 여인이고 시아버지가 깊이 알고 있어서 죽을 때 사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계하는 말도 없다고 말하는데, 교씨는 두부인이 명예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고 시아버지가 사부인의 위인에 대해 잘 몰라서 사씨를 경계하지 않는다고 유한림을 오도한다. 하지만 유한림은 자신 아버지와 두부인이 사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다시 추궁하지 않는다. 두부인은 사씨를 도와 옥지환 소식을 탐문하지만 결코 알 길이 없어 사씨가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추한 방에 살게 된다.

<사씨남정기> 외로도 간부위장을 담은 작품으로는 처첩형 <정진사전>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첩 일지가 최 부인을 내쫓으려고 최 부인의 필적을 얻어 외간 남자와 사귀는 내용의 편지를 위조해서 시아버지 정진사에게 보이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처첩형 <옥난빙>에서는 매영은 진학사가 북정 가는 틈을 타 천씨에게 망심단과 소미단을 얻는다. 진공에게 망심단을 먹인 후 진공의 총명함이 점점 사

134) <사씨남정기>, pp.42~43.

라져 언행이 비정상적으로 되었다. 이어서 석소저의 부정편지를 위조하여 진공에게 보이게 하고, 자신이 소미단을 먹어 석소저의 모양으로 변하여 어떤 남자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진공에게 보이게 하여 석소저에게 부정누명을 씌운다. 결국은 진공은 석소저가 낳은 쌍둥이 아들이 간부의 아들이라고 하여 죽이려 하나한 노승에게 구하게 되고 석소저가 집에서 축출되게 된다.

처처형도 마찬가지다. <조생원전>에서는 후주가 남편 혜성에게 개심환을 먹여 혜성이 후주만 사랑하고 김 부인을 미워하게 한다. 후주는 다시 위서를 꾸며 김 부인의 부정사실을 고발하여 김 부인이 대노한 혜성에게 축출되게 된다.

<월영낭자전>에서는 정씨는 최대부가 발해도에 원행하는 틈을 타 절강에서 보낸 부정편지와 월영의 답장편지를 위조하여 두 부인에게 보이게 하여 월영에게 부정누명을 씌운다. 최시량은 정씨의 간교에 넘어 월영을 음란한 계집으로 여겨 옥에 가두게 된다.

그리고 복합형 <정을선전>에서 간부위장 음모가 두 번이나 나타난다. 하나는 을선과 추연은 혼례를 올리는 첫날밤에 계모 노씨가 이를 시기한 나머지 자신의 사촌오빠를 시켜 추연의 간부로 자처하게 하여 을선으로 하여금 추연을 의심하게 하고 추연을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다른 하나는 을선이 신기한 영약으로 추연을 살린 후에 원비로 삼았다. 제2부인이 을선이 추연을 편애하는 것을 시기하여 출정한 사이에 남장한 시비를 보내어 추연을 오해받게 하니, 시어머니가 이를 알고 대노하여 추연을 죽이려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간부위장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음모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음모배경과 음모양상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5> 간부위장 음모의 배경

작 품	유 형	음모의 배경
<사씨남정기>	처첩형	→신분상승과 재력에 대한 욕심
<정진사전>		•첩 일지의 간악하고 투기가 많은 성격 →집안 권세에 대한 욕심
<옥난빙>		→남편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조생원전>	처처형	→남편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월영낭자전>		•정씨의 교만한 성격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기 위함
<정을선전>	복합형	•계모의 어질지 못한 성격 →전처소생에 대한 질투 •조부인의 어질지 못한 성격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기 위함

<표 16> 간부위장 음모양상

작 품	유 형	음모자	대상자	하수인	음모방법
<사씨남정기>	처첩형	교씨(첩) 동청(교씨의 정부)	사씨 (정처)	시비 남매, 설매, 냉진	간부세우기 증거물 옥지환
<정진사전>		일지(첩) 차돌(일지의 정부)	최부인 (정처)	방물장수 시비춘란	부정편지 증거물 옥지환 간부세우기
<옥난빙>		유매영 (첩)	석난영 (정처)	서모 송씨, 최 유랑, 천년화	부정편지 간부세우기
<조생원전>	처처형	후주(제2부 인)	김부인 (제1부 인)	유모 윤씨, 시비 앵앵, 윤씨의 동생 윤홍	부정편지
<월영낭자전>		정씨(제3부 인)	월영(제 2부인)	시비 채운	부정편지
<정을선전>	복 합 형	계모 노씨	추년(전 처소생)	계모 노씨의 사촌 오라비	간부세우기
		조부인 (제2부인)	추년(제 1부인)	시비 금련	간부세우기

4. 질투와 시기지심에 따른 독극물 투약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독극물 투약 양상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계모나 제2부인 또는 첩이 음식·차·죽·술 등에 독약을 넣어 전처소생이나 제1부인, 처를 죽이거나 낙태하게 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2부인이나 첩은 특이한 약을 구해 와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먹여 마음이 변하게 하여 자신만 사랑하게 하거나 믿게 하는 것, 또한 자신이 특이한 약을 먹어 제1부인이나 처의 모습으로 변하여 다른 남자와 밤에 만나는 것을 일부러 집안사람에게 보이게 하여 제1부인이나 처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드는 경우이다.

독극물 투약 음모양상을 나타내는 가정소설 작품은 처처형 <조생원전>, 처첩형<옥난빙> 등을 들 수 있다. 본고는 <옥난빙>에 나타나는 독극물 투약 음모양상에 주목하려 한다. 이유는 작품 속에 동일한 음모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 때문이다.

<옥난빙>은 주로 첩 유매영과 처 석난영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다룬 처첩형 가정소설이다. 음모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매영은 봄 경치를 구경하며 글을 읊던 진숙문에게 첫눈에 반하여 그의 둘째 부인이 되기 위하여 첩의 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겨 적극적으로 구혼하지만 거절당한다.
- ② 이에 황제의 희첩을 움직여 황제로 하여금 사혼을 내리도록 한다.
- ③ 진학사는 부득이 허혼하지만 유매영이 첩의 딸인 신분을 알게 되고 칭병하여 교배지례를 행하지 못하지만, 유매영은 진학사의 첩이 된 것이다.
- ④ 유매영은 시부모 진공 부부를 지성으로 섬기며, 일가가 다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으나 진학사의 마음은 끝내 돌릴 수가 없다. 유매영과 송씨(진학사의 서모)는 석난영을 축출하기 위하여 두 번의 음모를 시도하였다.
- ⑤ 첫 번째 음모는 석난영이 질투가 심하다고 모함하는 것이다. 서모 송씨를 함부로 대하는데다가 질투가 심하다는 유매영의 모함은 적게나마 효과를 보여 진학사가 석난영을 매몰하게 된다.
- ⑥ 하지만 장씨(진학사의 서모)의 도움으로 진학사와 석난영은 다시 화한다.
- ⑦ 석난영은 쌍아를 낳은 후에 진학사의 애정은 한층 더해진다. 유매영은 진학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자 두 번째 음모를 꾸미게 된다.
- ⑧ 최유랑이란 요녀가 유매영을 찾아와 요승 천년화를 소개하며 석난영을 제거할 것을

권한다.

⑨ 이때 복흥노가 증원을 침공하여 오자 진학사가 정복대원수가 되어 출전한다.

⑩ 이에 유매영은 진공에게 망심단을 먹여 마음을 흐리게 하고, 부정편지를 위조하여 진공에게 보이게 하여 석난영의 행실을 의심하도록 한다.

⑪ 유매영은 소미단을 먹여 석난영의 모양으로 변해 불량배와 만나는 것을 진공에게 보이게 하도록 하여, 드디어 진공으로 하여금 석난영을 친정으로 축출하게 하는 데 성공한다.

⑫ 진공은 석난영이 낳은 쌍아가 간부의 아들이라 생각하여 죽이려고 하나 한 노승이 구하게 된다.

⑬ 유매영은 친정으로 가는 석난영을 암살하려고 하나 그 노승이 나타나 석부인을 구출하여 절에 데리고 간다.

이상의 줄거리 중에서 언급된 주요한 음모 대목을 살펴보겠다.

잇썩 류시 정히 썩를 어덧는지라, 송파로 천시의게 계교를 무르시니, 천시 업에 서 단약 두 기를 토하며 왈,

“누른 것을 츠에 화호야 먹이면 정신이 아득호야 썩닷지 못호느니 일흠은 망심단이라. 진공의게 드리면 비록 스광지총이라도 썩닷지 못홀 것이오. 푸른 것은 음식에 섞거 먹으면 되고져 호는 슝의 얼굴이 되느니 일흠은 소미단이라. 일노썩 썩시를 제호리라.”

호고 망심단으로 류시를 쥬며 ‘진공게 드리라’호니, 류시 디열호야 계교를 힝코져 호느, 석소제 친이 조석 식스를 가음아라 밧드시 틸을 엇지 못호야 썩시의 시비 춘향을 감언이설노 달너고 지물을 후히 쥬어 계교를 가라치니, 춘향은 간험호위인이라. 지물을 툷호야 계교를 힝호니, 과연 진공의 총명이 점점 감호야 언헝동지 무식기에 갓가오미 일기 고히 역이더니,135)

위 대목은 유매영이 독극물을 얻는 과정과 얻어낸 독극물을 진학사에게 먹이려는 음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매영은 자신보다 처를 사랑하는 진학사의 모습에서 시기지심이 발동하여 석난영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된다. 그녀는 천씨에게 단약을 두 개 얻게 되는데, 하나는 먹으면 정신이 아득하여 깨닫지 못하는 망심단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

135) <옥난빙>, p.155.

의 얼굴로 변할 수 있는 소미단이다. 유매영은 진공에게 망심단을 먹이려 하나 석난영이 진공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 때문에 틈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유매영은 석난영의 시비 춘향을 재물로 매수하여 진공에게 망심단을 먹이도록 한다. 망심단을 먹은 진공은 집안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판단력과 사고력이 떨어진다.

일일은 공이 몽조현에 안젓다 보니, 혼 소년이 전도히 나오다가 공을 보고 면식이 여토흐거늘, 공이 고히 역여 문왈,

“너는 엇더흐 아희완디 힘동이 괴상흐요?”

그 아히 쥬져흐며 디답지 못흐니, 공이 디로 질왈,

“네 엇지 디답이 업노뇨?”

그 아히 황공흐야 가로디,

“소인은 동문 밧 군즈동 도싱의 시동이러니, ‘셔간을 설난각에 드리고 회셔을 가져오라’흐기로 왓습더니, 그릇 존위를 범흐엿스오니 용서흐심을 바라나이다.”

공이 노왈,

“도싱즈는 하등지인이완디 엇지 감히 직상가 규각에 ‘셔간을 드리리’흐리오, 그 셔간이 어디 잇노뇨?”

그 히 품속으로 일봉 셔간을 너여 드리미, 공이 바다 보니 것봉에 췌스되,

...(중략)...

공이 간필에 심한골경흐야 싱각흐되,

‘석시는 성녀숙완이어늘 엇지 이러흐 힘동이 잇스리오. 반다시 이 텅망량의 희롱이 아니면 무뢰악소년이 억탁흠인가.’

다시 싱각흐되,

‘무지흐 악소년이기로 엇지 직상가 명부를 수욕흐리오.’

또 석시의 힘스를 쥬탁건디 만분원악흐지라. 좌스우상흐다가 ‘답셔을 보아 진위를 분간흐리라’흐고, 도로 봉흐야 쥬며 왈,

“‘너가 보았다’흐지 말고 빨니 답간를 맛타 너게 죄인즉 맛당히 중상흐리라.”

그 아히 응낙흐고 글을 품고 설난각으로 가니, 공이 의괴흐야 답셔를 기다리더니, 반향 후 과연 답셔를 드리거늘 바다 보니 갈와스되,

...(중략)...

공이 남필에 불승희연흐나 안식을 불변흐고 도로 봉흐야 슈냥 은즈로 아희를 쥬어 보너고 스스로 탄왈,

“‘천장계슈는 아나 인심은 불가척이라’흠이 진실노 석시를 이름이로다. 맛당히

망일야를 기다려 결단하리라.”

하고 스식지 아니하되, 소제 퇴회 당두흙을 엇지 알니요.¹³⁶⁾

위의 인용문은 유매영이 부정편지를 위조하여 석난영을 모해하기 위해 꾸민 음모 대목이다. 유매영은 한 소년을 시켜 진공이 보는 눈앞에서 석난영의 방에 접근하게 하고, 위조한 부정편지를 일부러 진공에게 보인다. 무지한 진공은 보는 그대로만을 믿고 상황에 대한 일절의 의심도 없다. 부정편지에서 언급된 석난영과 ‘간부’ 조생이 망일야에 만나기를 약속하는 내용에 따라 진공은 그 날까지 기다려 결단하기를 결정한다.

이러구러 텅하 십오일이 당하야 위공이 날이 저물되 석식을 나올식, 석소제 흘련 정신이 아득하야 신기 불평하되, 능히 피섯지 못하고 나와와 ……

…(중략)…

소제 사례하고 침소로 도라오되, 더욱 정신이 아득하야 상을 의지하고 인스를 슈습지 못하니 유모와 시네 붓드러 구호터니, …(중략)… 공이 석시 업슴을 더욱 의혹하야 빗비 셔헌에 나와 야심키를 기다려 그 동정을 보라 하니, 희라!

…(중략)…

공이 해오되,

‘모란덩이 곱고 고요하니, 응당 그곳으로 모히리니 가히 살피리라.’하고, 가만이 모란덩에 이르러 모란 포귀에 은신하야 여어보니, 이윽하야 설난각으로 인적이 은은하더니 갓사이 온 후 보니 석시와 춘향이라. 비록 조심경 안광이라도 진위를 분간치 못홀지라. 또 난간 우흐로 한 소년이 나오며 왈

“옥인이 나오기를 더디하고 정인으로 기다리기 고롭도다.”

하고 드디여 석시로 집슈연슬 왈,

…(중략)…

춘쇠 고단하야 금계 식벽을 보하니 소년이 빗비 도라갈 식, 머리에 건 잠을 썩여 쥘며 왈,

“츄물노 쌍아를 쥘어 이비의 정을 표하노라.”

석시 결연하야 춘향을 명하야 옥난흔 쌍을 너여다가 소년을 쥘며 왈

“츄는 진가 보빅니 신물을 표하노라.”

소년이 밧고 연연하다가 도라가는지라.¹³⁷⁾

136) <옥난빙>, pp.155~157.

위의 인용문은 유매영이 소미단을 먹어 석난영의 모양으로 변하여 ‘간부’와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난영’과 ‘간부’는 음란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신물까지 준다. 특히 ‘석난영’은 ‘간부’에게 주는 진가의 보물은 ‘석난영’의 부정행실의 증거물이 된다. 더 심한 것은 둘이 한 말 중에 석난영이 낳은 쌍아가 ‘간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에 진공은 크게 충격을 받는다. 사고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진공은 결국은 유매영이 꾸민 음모에 휘말리고 석난영을 내치고 석난영이 낳은 두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분노의 모습을 보인다.

<조생원전>은 처처형 가정소설로서 황제의 명령으로 맞이한 후주와 김소저 간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다. 조혜성은 마음에도 없는 후주와 결혼하지만 후주를 사랑하지 않고 김소저만 사랑하는 것은 후주에게 질투와 시기심을 발하게 한다. 남편의 온 사랑을 차지하는 김소저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특히 김소저가 아들을 낳은 후에 질투심이 더욱더 심해진다. 그리하여 후주는 김소저의 시비 앵앵을 매수하여 김소저의 아들을 죽이게 한다. 하지만 얼마 후 김소저가 또 아들을 낳았다. 이때 마침 시아버지 조생원은 절강에 부임하러 가는데, 후주는 이 틈을 타 유모 윤씨와 김소저를 축출하는 흉계를 공모한다. 먼저 윤씨의 동생을 시켜 개심환이란 약을 구하도록 하여 남편 조혜성에게 먹인다. 조혜성은 하루아침 마음이 변하여 지극히 사랑하던 김소저를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도 미워하던 후주를 사랑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후주는 다시 위서를 꾸며 김소저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게 된다. 마음이 변한 조혜성은 대노하여 김소저를 축출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독극물 투약 음모양상이 주로 처처형, 처첩형, 복합형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음모배경과 음모양상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7>, <표 18>과 같다.

137) <옥난빙>, pp.158~159.

<표 17> 독극물 투약 음모의 배경

작 품	유 형	음모의 배경
<조생원전>	처처형	• 남편의 애정에 대한 갈망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기 위함
<옥난빙>	처첩형	→남편의 애정에 대한 갈망
<사씨남정기>		→신분상승과 재력에 대한 욕심
<정을선전>	복합형	• 계모의 어질지 못한 성격 • 조부인의 어질지 못한 성격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기 위함

<표 18> 독극물투약 음모양상

작 품	유 형	음모자	대상자	하수인	음모방법
<조생원전>	처처형	후주 (제2 부인)	김부인 (제1부인)	유모 윤씨, 시비 앵앵, 윤씨의 동 생 윤홍	혜성에게 개심환 을 먹임
<옥난빙>	처첩형	유매영 (첩)	석난영 (정처)	서모 송씨, 최유랑, 천년화	진공에게 망심단 을 먹여 사고력 과 판단력이 떨 어지게 함. 유매영이 소미단 을 먹어 석난영 의 모양으로 변 함
<사씨남정기>		교씨 (첩)	사씨 (정처)	납매(시비)	사씨에게 낙태약 을 먹임
<정을선전>	복합형	노씨 (계모)	추년 (전처소생)	-	음식에 독약을 넣음

5. 신분상승과 애정욕구에 따른 살인청부

살인청부는 주로 처처형과 처첩형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음모양상이다. 제2 부인과 첩은 음모를 꾸며 제1부인이나 처를 집에서 쫓아낸 후에 사람을 시켜 그녀들을 죽이거나 그녀들의 자녀를 죽이는 음모이다. 살인청부 음모양상을 나타내는 작품은 처첩형 <옥난빙>, <정진사전>, 처처형 <조생원전> 등이 있다.

먼저 <옥난빙>에서 ‘살인청부’ 음모가 드러난 대목을 살펴보겠다.

츠시 미영이 송파와 천시를 청하야 의논 왈

“이제 석시를 너쳐스나 풀을 버히미 썩리를 업시홀 것이니, 선싱은 다시 묘계를 운동하야 그 모즈를 업시하야 나의 마음을 편케 호소서.”

천시 싱각다 왈,

“너 드르니, ‘근일 악소년비가 잇서 뇌물을 밧고 부정헌 일을 행헌다’하니, 낭즈는 밧비 츠인 등으로 줌노에 미복호엿다가 여츰여츰하면 후환이 업슬가 호노라.”

미용이 디회하야 스투호고 직시 천금을 너여 악소년을 주고 계교를 행하게 하니, 악소년이 응낙고 다시 성스흔 후 상금을 청하며 도라가 동류 오십여 인을 모화 금을 훗터 주고 츠스를 이르니, 제인이 디회하야 석쇼져 가는 길에 미복하니라.¹³⁸⁾

<옥난빙>에서 첩 유매영은 진학사가 출전하는 틈을 타 음모를 꾸며 석난영을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었다. 대노한 진공은 석난영을 내치고, 석난영이 낳은 얼마 되지 않는 쌍아를 죽이려고 할 때 한 노승이 나타나 빼앗아 간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유매영은 또 송씨와 요승 천년화에게 아예 석난영을 없애버리는 묘계를 청한다. 천년화의 추천으로 악소년배에게 돈을 주어 계교를 행하게 한다. 악소년들이 석난영이 가는 길에 매복하여 석난영을 죽이려고 하나 한 노승이 나타나 석난영을 살린다.

일일은 일지 츠돌을 디하야 왈,

“최씨는 이제 축출호얏스나, 이 집에 화근이 오히려 금석 모지라. 엇지하면 마즈 축출호리오?”

138) <옥난빙>, p.161.

츠돌 왈,

“금석을 업시호기는 어렵지 아니호니, 가만이 안아다가 날을 즐진디 내 즉시 물에다가 너히 업시호리라.”

일지 대회호야 즈근 방으로 드러가 여엇보더니, 츠시에 박시 대부인을 띄시고 정히 가스를 의론호더니, 일지 가만이 나아가 별당으로 드러가 금석을 업고 문을 나히호더니, 이러구러 날이 밝은지라. 정히 쥬져호더니, 문득 호 사람이 거적을 등에 지고 빌어먹으랴 호고 츠돌 스는 마을로 향호야 오거늘, 츠돌이 그 사람을 청호야 왈,

“슬피견디, 그디 어더 먹는 사람인가 보니, 그리 말고 내 이제 돈 석 량만 줄 거시니 이 호회를 다려다가 즈취업시 바리라.”

호니, 기인이 대회호야 돈과 금석을 바다 가지고 가니라.¹³⁹⁾

<정진사전>에서 첩 일지는 정판서가 없는 사이를 이용하여 최부인을 모해하는데 성공하여 최부인을 내치게 된다. 최부인이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박부인과 그의 아들 금석마저 해치려고 한다. 금석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아서 먼저 금석을 죽일 작정을 한다. 일지는 금석의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금석을 업고 나와 한 걸인을 몇 냥의 돈으로 매수하여 그로 하여금 금석을 업어다가 강물에 넣어 죽이도록 한다. 금석은 한 여승이 구하게 된다.

세월이 훌훌호야 김씨 잉티 십 삭이 츠미 일기 옥동을 칭호니, 구고의 은익와 한림의 스랑이 더욱 극진호니, 후주는 더욱 식괴지심이 김씨을 절치호야 유모운씨 다려왈,

“이제 김씨 순산싱남호미, 평장 부부의 스랑함과 한림의 총익가 비홀 썩 업고, 오작 날 갖튼 박명은 신세가 현 신씩이 되엿스 분호고 이달은지라. 엇지 참으리요.”

호고 혹 울기도 호며, 혹 가슴도 두다려 탄식호니, 그 형용을 가히 우슬너라. 츠시 운씨 후주의 참혹호를 보고 나아가 후주의 귀에 다혀 왈,

“만일 김씨의 즈식이 점점 즈라면 후주의 신세가 더욱 가련이 될 거시니, 아즉 그 즈식을 죽이여 분을 풀가 호나이다.”

후쥬 츠언을 듯고 손벽쳐 ‘조타’호여 왈,

“그 계교 너 마음과 합당호도다.”

호고,

139) <정진사전>, p.338.

“급히 흥하라.”

흥디, 눈씨 이에 조소저의 시비 잉잉을 달녀여 왈

“이제 후취 신세 약츠하니, 엇지흥여야 조흥고?”

흥며, 혹 은즈도 쥬며, 혹 니목의 황흥흥 비단도 쥬며 극히 스랑하니, 잉잉이 감격흥여 못너 잇지 못흥더니, 일일은 눈씨 잉잉을 불너 후취기 뵈오니, 후취 음식을 쥬며 달녀여 왈,

“너도 너 일을 더강 짐작흥려니와, 너 이런 설음을 밧고 엇지 살기를 구익흥리요. 이제 김씨의 즈식을 업시흥여 나의 근심을 덜면 너의 은혜 감격흥 썬이나? 정의 형제 갓트리니, 부디 나의 원을 풀어 달나.”

흥고, 우선 천금을 쥬며 만단익결하니, 잉잉이 더왈,

“소비를 이렇듯 후디흥시니, 하히지은을 엇지 갑스오릿가?”

흥니, 후취 더희흥여 못너 깃거흥더라.

...(중략)...

일일은 김씨의 시비 춘당이 으희를 업고 후원 누상에옥나 두루 구경흥다가, 맛춤 목이 말나 으희를 루살의 나려 노코 물 먹으려 드러가니, 잉잉이 락양 틈을 엇고즈 흥다가 이썸을 타 큰돌을 들고 가만이 드러가 으희 가슴을 지스르고 제 방으로 가니라.¹⁴⁰⁾

조혜성은 천자의 권고를 거절할 수 없어서 마음에도 없는 후주를 맞이하지만 결혼 첫 밤만 후주와 같이 잔 후로는 언제나 김부인의 방에서 잔다. 후주는 질투와 시기심이 생겨서 김부인을 미워하기 시작한다. 특히 김부인이 아들을 낳은 후에 구고의 총애와 조혜성의 사랑이 더욱 더 극진하니 후주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극에 달하여 자신의 처지도 걱정하게 된다. 그래서 후주는 유모 윤씨와 함께 김소저의 시비 앵앵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고 김소저의 아들을 죽이는 흥계를 꾸민다. 후주는 김부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황제의 외손녀의 귀한 신분을 낮춰 시비 앵앵에게 형제가 같다고 말한다. 후주는 남편의 애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천자의 외손녀로서의 자손심을 버릴 수 있고 악행도 저지를 수 있는 애정지향인물임을 알 수 있다. 앵앵은 김부인의 시비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유혹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주인을 배반하게 된다. 즉 앵앵은 김부인의 시비로서 충성보다 물질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윤씨와 후주는 물질적으로

140) <조생원전>, pp391~392.

유혹하자 앵앵은 극히 감격한다. 앵앵은 윤씨가 시키는 대로 기회를 찾아 김부인의 아들을 돌로 눌러 죽인다.

이상의 작품을 통해 ‘살인청부’의 음모의 과정과 주로 처첩형과 처처형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음모의 배경과 음모 양상을 <표 19>과 <표20>으로 각각 제시해 본다.

<표 19> 살인청부 음모의 배경

작 품	유 형	음모의 배경
<옥난빙>	처첩형	→남편의 애정에 대한 갈망
<정진사전>		• 첩 일지의 간악하고 투기가 많은 성격 →집안 권세에 대한 욕심
<조생원전>	처처형	• 남편의 애정에 대한 갈망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기 위함

<표 20> 살인청부 음모양상

작품	유형	음모자	대상자	하수인	음모방법
<옥난빙>	처첩형	유매영(첩)	석난영(정치)	송씨(서모) 천년화	악소년배를 돈으로 매수하여 죽이라고 시킴
<정진사전>		일지(첩)	박 부 인 의 아들 금석	차돌(첩 일 지의 정부)	한 걸인을 돈으로 매수하여 강물에 넣어 죽이라고 함
<조생원전>	처처형	후주 (제2부인) 윤씨(후주 의 유모)	김 부 인 의 아들	윤 씨(후주 의 유모) 앵앵(김부 인의 시비)	돌로 눌러 죽임

6. 재산과 권세욕에 따른 납치와 저주위조

위에서 살펴본 음모양상 외에 <정진사전>에서 나타난 납치¹⁴¹⁾,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저주위조 등도 있다.

먼저 <정진사전>을 중심으로 음모의 과정을 살펴본다.

각설. 일지 금석을 쳐치하고 마음에 상쾌하야, 박씨를 마즈 모히코즈 밤마다 츄돌과 밀밀히 상의하더니, 하로논 츄돌이 하는 말이,

“우리 친우 중에 봉돌이라 하는 사람이 잇스니, 풍신이 환출하고 녀력이 절등하며 국량이 과인하야 일즉 방탕하더니, 맞춤 박씨의 말을 듯고 스스로 날으디, ‘내 지금 상우하야 환부로 잇스니 박씨를 돌너너여 빅 년을 동락하리라. 너일 밤에 들광디 무리를 모화 이 집 문밖게서 놀음을 하고 혼춤 분운하야 홀 즈음에 썩들어가 박씨를 드립더 업고 너다르면 일기 으너지라 비상턴은 못하리라’ 하니, 그딤는 써엇더타 하노뇨?”

일지 그 말을 들으니 가장 적당하리라. 손벽치며 대쇼하야 왓,

“말만 드러도 썩소금이 쏘다진다. 모로미 안에서 홀 거슨 내 다 담당홀 거시니 누설치 말나.”

하더라.¹⁴²⁾

<정진사전>에서 첩 일지는 먼저 음모를 꾸며 정공으로 하여금 최부인을 내쫓게 한다. 그 다음 박부인을 모해하려고 정부 차돌과 상의하여 봉돌을 시켜 밤에 박부인을 납치해 가서 아내로 삼게 한다. 하지만 박부인은 그날 밤 산신령의 몽중지시로 피신하게 되고, 봉돌이 잘못 일지를 납치해 가지고 도망해서 아내를 삼고 술장사를 시키고 만다.

차시 교네 사부인을 시귀하야 한님에게 여러 번 참조하나 모로는 듯하니, 교네 크게 혼하야 이의 십낭을 청하야 츄스를 전하고 스부인 모히홀 계교를 무르니, 십

141) 요첩이 양 부인을 몰아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바가 있으며, 특히 불량배로 하여금 본부인을 납치해 하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납치를 당하는 것은, 이조소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수법이라 하겠다.

김기동, 앞의 책, p.345.

142) <정진사전>, pp.341~342.

냥이 오리 싱각하다가 이의 교녀의 귀의 다혀,

“여츠여츠하면 엇지 스시를 절제하기를 근심하리오.”

...(중략)...

십냥이 이의 요예지물을 민다라 스면의 두로 못고 교시의 심복 시비 납미를 곱
으쳐,

“이리이라하라.”

하니, 가증 상하의 교시와 십냥과 납미맛근 츠스를 알 니 업더라.

일일은 한님이 입번하엿다가 여러 날 만의 출번하야 집의 도라가니, 가증 상하
황황하여,

“장주의 병이 덕단하다.”

하거늘, 한님이 쏘흔 놀나 빅즈당의 일으니, 교네 한님을 보고 울며 왈,

“장귀 홀연이 병이 말하야 덕통하오니, 이는 심상치 아니흔 일이라. 병세를 보니
체증·감괴 아니라. 필연 가증의 뉘 방예를 하여 귀신의 작느하민가 하느이다.”

한님이 교시를 위로하고 장증의 드러가 장주의 병을 보니, 과연 헛소리를 하고 섬
어하야 병세 가장 가비압지 아니하거늘, 크게 우려하야 약명을 너여 납미를 불너,

“급히 다려 먹이라.”

하고 동정을 즈셔히 보니 조금도 츠되 업는지라, 한님이 크게 우려하고 교시는
울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중략)...

츠설. 한님이 장주의 병이 심상치 아니물 보고 넘려 무궁하더니, 교씨 쏘흔 칭
병하여 음식을 폐하고 밤이면 더욱 슬허하니 한님이 쏘흔 슬허하더니. 일일은 납
미 부엌에서 소쇄하다가 한 봉 고이흔 거슬 어더니, 한님이 교녀로 더부러 낫치
보고 면식이 여토타여 말을 못하고 안젧더니, 교네 울며 왈,

“첩의 십육 세의 귀턱의 드러와 일절 결원지은 곳이 업더니, 엇던 스품이 우리
모즈를 니러툷 모히하느고?”

하니, 한님이 다시 보고 묵연부답이어늘, 교네 왈,

“상공이 츠스를 엇지 쳐치코즈 하시느잇고?”

한님이 침음양구의 왈,

“일이 비록 간악하나 집안의 잡인이 업스니 누를 지목하리오? 그런 요예지물을
불의 살와 업시하미 울홀가 하노라.”

교네 싱각는 듯하다가 고왈,

“상공 말씀이 울흐셔이다.”

하니, 혼님이 납뭉을 멩하야,
 “불을 가져오라.”
 하야, 정전의셔 소화하고,
 “이 말을 숨가 누설치 말나.”
 하니라.
 혼님이 나간 후, 납뭉 교녀다려 문왈,
 “낭직 엇지 혼님의 의심을 돕지 아니하고 일을 그릇 처치하시느릿고?”
 교시 왈,
 “다만 상공이 의심케 홀 짜름이라. 너모 급거이 셔두다가는 도로혀 히로울지라.
 상공의 마음이 임의 동하엿시나 여츠여츠하리라.”
 하더라.
 월릭 한님이 교녀의 글시를 보미 부인의 필적 갓흐니, 이의 불의 살와업시하고
 싱각하되,
 ‘저적의 교시 부인의 투기하는 말을 날오되 오히려 밋지 아니하더니, 아마도 이
 리 췌탁하는 일이 잇살 줄 엇지 췌하얏시리오! 당초의 무후하므로써 부인이 주선
 하야 교시를 어뎃더니, 이제 스스로 즈식을 어드미 독흔 계교를 지어넌니, 이는 밋
 그로 인의를 베풀고안으로 교스하미라.’하고, 부인 덕접이 전일과 닉도하더라.¹⁴³⁾

<사씨남정기>에서 사씨가 아들을 낳은 후에 첩 교씨는 자기는 쓸모없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십낭에게 계책을 부탁한다. 교씨는 이십낭이 계획한 대로
 아들 장주가 아플 때 자신도 아픈 척 누워 있다. 그리고 문객 동청을 정부로 삼
 아 그로 하여금 사씨의 필체를 모방하여 저주문자를 위조한다. 교씨의 시비 납매
 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바닥에서 교씨와 장주를 저주하는 글을 발견하여 교씨
 와 한림에게 보여준다. 한림은 저주하는 글을 보고 나서 내심 그 글씨가 사씨의
 필적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하지
 만 한림은 사씨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납치와 저주위조 음모양상이 처첩형에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이상의 작품을 중심으로 음모 배경과 음모 양상을 정리하면 <표 21>, <표
 22>과 같다.

143) <사씨남정기>, pp.32~34.

<표 21> 납치와 저주위조 음모의 배경

작 품	유 형	음모의 배경
<정진사전>	처첩형	• 첩 일지의 간악하고 투기가 많은 성격 → 집안 권세에 대한 욕심
<사씨남정기>		→ 신분상승과 재력에 대한 욕심

<표 22> 납치와 저주위조 음모양상

작 품	유 형	음모자	대상자	하수인	방 법
<정진사전>	처첩형	일지(첩) 차돌(일지 의 정부)	박부인 (정처)	차돌 친 구 봉돌	봉돌을 시켜 밤 에 박부인을 납 치해 가서 아내 를 삼게 함
<사씨남정기>		교씨(첩) 이십낭	사씨 (정처)	동 청(교 씨의 정 부) 납 매(시 비)	사씨의 글씨를 모방하여 저주문 자를 만들어 사 씨에게 누명을 씌움

이상의 작품들을 통해 음모의 배경과 음모의 양상에 집중해 보았는데, 이러한 음모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표로 정리해 보겠다.

<표 23> 음모와 음모결과 - 처첩형 <사씨남정기>

음모자	대상자	음모양상	음모결과	구원자
교씨(첩)	사씨(정치)	교씨는 사씨가 자신을 책망했다고 모함	한림은 사씨를 의심하지 않음	-
교씨(첩)	사씨	낙태약을 투약	사씨는 토해 버림	-
교씨(첩) 동청(교씨의 정부)	사씨	저주위조	한림은 사씨를 의심하기 시작함	
교씨 동청	사씨	간부위장	사씨가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자처함	두부인(한림의 고모)
교씨 동청	사씨	친자식살해	사씨가 집에서 쫓겨남	-
교씨 동청	사씨	편지위조 정절훼손	구고는 사씨에게 현몽하여 음모가 실패함	사씨의 시부모, 아황 여영, 여승 묘희와 그 질녀

<표 24> 음모와 음모결과 - 처첩형 <옥난빙>

음모자	대상자	음모양상	음모결과	구원자
송씨(서모)	진학사	혼인을 도모하는 음모(3번)	실패→실패→허혼	유시랑 덕 노자로소가 진학사에게 사실을 알림
송씨(서모)	석난영(정치)	송파는 석소저가 자신을 모욕하기를 모함함	진학사가 석난영에게 캐물음. 그 후로 석난영을 매물함.	장씨(서모)
유매영(첩)	석난영	득극물투약 간부위장	진공은 석난영이 낳은 쌍아를 죽이려 하나 한 노승이 구하게 됨. 석난영을 내침.	노승
유맹영	석난영	살인청부	석난영이 한 노승이 구하게 됨	노승

<표 25> 음모와 음모결과 - 처첩형 <정진사전>

음모자	대상자	음모양상	음모결과	구원자
일지(첩)와 차돌(일지의 정부)	최부인 (정치)	부정편지 위조	정진사가 최부인을 꾸짖음	장부인(시어머니) 박부인(정치)
일지와 차돌	최부인	간부위장	최부인을 내쫓는 것은 정판서가 돌아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함	장부인 박부인
일지와 차돌	최부인	친자식살해	최부인이 집에서 쫓겨남	한 도사의 도움으로 여승 정수자에게 의탁함
일지와 차돌	금석 (박부인의 아들)	살인청부	금석이 어떤 여승에게 구하게 됨	여승 정주사
일지와 차돌	박부인	납치	박부인은 산신령의 계시로 박해를 피함. 봉돌은 일지를 잘못 업어감	금강산 신령

<표 26> 음모와 음모결과 - 처첩형 <월영낭자전>

음모자	대상자	음모양상	음모결과	구원자
정씨 (제3부인)	월영 (제2부인)	정씨는 창녀를 시첩으로 최대부에게 드림	창녀를 엄장 이십도씩 하여 내치고 한 창기를 장하에 죽임	-
정씨	월영	부정편지 위조	최시랑은 월영을 가두어 넣음	-
정씨	월영	간부위장	월영이 형장을 당함. 그리고 월영을 산후 죽이라고 명함	민씨 (제1부인) 선관

<표 27> 음모와 음모결과 - 처치형 <조생원전>

음모자	대상자	음모양상	음모결과	구원자
후주 (제2부인)	김부인의 아들	살인청부	아들이 죽음	-
후주와 유모 윤씨	김부인 (제1부인)	독극물 투약	조혜성은 개심환을 먹어 후주만 사랑하고 김부인을 미워하게 됨	-
후주	김부인	부정편지 위조	조혜성은 김부인을 축출하게 함	한 노인 유어사

<표 28> 음모와 음모결과 - 계모형 <김인향전>

음모자	대상자	음모양상	결과	구원자
계모 정씨와 노파	인향 (전처소생)	임신조작	인향은 임신한 것처럼 꾸밈	-
정씨	인향	간부위장 부정편지 위조	인향은 못에 빠져 죽고 동생 인함도 뒤따라 목매어 죽음	부사 김두룡 유성윤(인향의 약혼자)

<표 29> 음모와 음모결과 - 계모형 <장화홍련전>

음모자	대상자	음모양상	음모결과	구원자
계모 허씨	장화(전처소생)	낙태조작	장쇠를 시켜 뒷못에 빠뜨려 죽음. 동생 홍련도 뒤따라 죽음	부사 정동우

<표 30> 음모와 음모결과 - 복합형 <정을선전>

음모자	대상자	음모양상	음모결과	구원자
계모 노씨	유추년 (전처소생)	독극물 투약	실패	바람이 일어나 고 푸른 불이 일어남
계모 노씨	유추년	간부위장	유추년은 혈서를 쓰고 죽게 된 후 원혼이 되 어 익주를 폐읍으로 만듬	정을선(남편)
조부인 (제2부인)	유추년 (제1부인)	간부위장	시모 양씨는 유추년을 옥에 가둠	시비 금섬 시비 월매

V. 음모양상을 통해서 본 소설사적 함의

가정소설은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사 전반에서 일어나는 가정 내 문제를 다룬 소설임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유형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처첩형, 처처형, 계모형, 그리고 복합형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가정소설에는 주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특징을 근간으로 작품 속에 관통하고 있는 소설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Ⅲ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듯, 가정소설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갈등의 정점에 으레 ‘음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음모’를 통해서 선악의 대립 구도는 더더욱 탄탄해지고, 이로 인해 독자의 몰입도는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이들 갈등의 요소와 이들의 충돌로 나타나는 ‘음모’의 양상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당대사를 비추는 거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작품의 공통분모로서 등장하는 ‘여성’으로서의 현실적 위치이다. 필자가 뽑은 9편 작품의 대표적 주인공들이 모두 여성이고, 이 여성들은 작품 속에서 선인과 악인의 모습을 모두 담아내고 있어 양면적인 인간의 모습을 두루 표출해내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가정소설이 바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이고, 여성주의적 시각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가정소설’의 주요 독자가 여성들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17세기 말 이후 조선사회에 불어 닥친 정치 경제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욕구는 소설의 수요를 팽창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가정소설은 ‘여성’이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편협한 공간 속에서 질투, 재산싸움, 가문의식 등을 담아내면서 이들 속에 담긴 담론들이 결코 여성들만의 세계를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세계를 이루는 사회라는 구조의 가장 기본 구조가 ‘가정’이라는 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즉 가정소설 속에 담긴 메시지는 ‘여성’이라는 편협한 시각을 뛰어 넘어 조선 사회와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투영하면서 거대한 공동체의 담론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특징들은 가정소설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문학적 메시지로,

‘가정소설’이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의 축을 읽어 낼 수 있다. 이를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열녀되기를 강요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

조선사회는 뿌리 깊은 유교 사회였다. 삼강오륜의 夫婦有別과 三從之道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여자는 언제나 아버지, 남편, 아들을 따르고 떠받들어야 하는 부수적 존재이자 소리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남자는 언제나 하늘이었고, 여자는 하늘을 받드는 땅이라는 남존여비 인식이 이데올로기로 팽배하게 작용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 사회 속에서 여자는 또 ‘정절’과 ‘희생’을 강요당하였고, 유교사회의 사회시스템에 무조건 순응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이 유독 여자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점에서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남자가 첩을 들여와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했고,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을 낳을 여자를 데려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대 여자로서 행해야 할 행동강령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체도가 가지는 모순, 즉 남녀의 불평등함, 남자 중심의 사회는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여성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를 ‘음모양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문제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임신(낙태) 조작’과 ‘간부위장’이라는 문제가 모두 당대 여성에게만 유독 혹독하게 적용되었던 ‘정절’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만든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그녀들은 집안에서 축출당하여야 했고, 심지어는 ‘자결’을 유도당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남녀의 평등 의식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최고의 지향 가치인 ‘정절’을 어긴 범법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인식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억압되고 폐쇄된 유교 사회 속에서 ‘정절’이란 문제는 한 여인을 삽시간에 몰락시키기에 가장 주효하면서도 성공적인 음모양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정절’음모는 작품 유형으로 볼 때 계모형, 처첩형, 처처형 등 모든 유형에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보편적 소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에 나타나는 대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모형 <장화홍련전>

이제에 창틈으로 엿들은 흥녀는 더욱 불로흐야 흥계를 심각흐다가 이에 흥 씨를 엿엇더라. 그 씨는 무삼 씨인가? 참 흥히고 괴이흐도다.

흥녀는 제가 늑은 자식 장쇠를 불너 별씨를 부려 ‘큰 쥐 흥 마리를 잡아오라’흐야, 남 몰으게 가족털을 튀흐야 피을 발느 낙턱흔 턱덩이 갖치 만들어 감안이 장화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밋헤 너코 느와서, 좌수의 들어오기를 기다리더니 이윽고 들어오거늘, 흥녀 좌수를 이상이 보며 혀를 쥘쥘 치는지라.¹⁴⁴⁾

위 인용문은 <장화홍련전>에서 나타나는 ‘임신(낙태) 음모’대목이다. 평안도 철산 땅에 사는 좌수 배무룡은 부인 장씨와의 사이에서 장화와 홍련 두 딸을 두었다. 장씨가 일찍 죽자 후취로 허씨를 맞아들인다. 계모 허씨는 아들 셋을 낳았지만 배좌수가 전실소생만 사랑하자 질투심이 생겨 전실소생을 모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배좌수는 허씨에게 전처의 덕에 풍족하게 살고 있으며 그대가 먹는 것도 전처의 재물이라고 말하여 허씨가 장화를 죽일 꾀를 생각한다. 이에 계모 허씨는 전처소생인 장화를 죽이기 위해 껌질을 벗긴 쥐를 장화의 이불 속에 넣어 ‘낙태’한 것을 꾸민 후 이를 그녀의 남편이자 장화의 아버지에게 일러바친다. 계모의 말만 듣고 배좌수는 ‘집안망신’이라며 그녀를 ‘연못 속에 빠져 죽이라’는 명을 내린다. 이에 장화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② 계모형 <김인향전>

노파 답왈,

“어렵지 아니한 계교가 잇사오니 아모 염례 마옵소서. 무덤 우에 난 돌머밀노 썩을 하여 먹이고, 큰 굴영이을 잡아다 가두어 먹이면, 얼굴의 새알기름이 끼고 숨결이 놓하 남 보기에 아해 배인 모양 갓사오니, 화탁·편작인들 웃지 곳치리오. 그러하면 자연 소문이 나되, ‘좌수댁 소저가 행실이 부정하여 아해를 배었다’하면, 제 웃지 북글러워 살기를 바라리오.”

정씨 듯기를 다하고 깃봄을 이기지 못하여 회색이 얼굴에 만면혀여지며,

“아무 날 내가 인향을 쏘여 다리고 잔복골 목화 밧테을 갈 터이니, 그째을 타서

144) <장화홍련전>, p.589.

수고가 될지라도 썩을 가지고 목화 동양 은 체하고 썩을 먹이면 갑슬 후히 줄 터이니, 동양도 단이며 썩도 팔니 단이는 체하고 각별 조심하여 의심을 두지 안토록 하라.”

하며, 날을 정하야 후일을 기약하고 가더라.¹⁴⁵⁾

<김인향전>도 마찬가지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계모는 인향에게 돌메밀과 뱀을 먹여 임신한 것처럼 조작하여 딸 인향을 축출한다.

이와는 다른 방법이기도 하지만 ‘간부위장’ 음모 또한 같은 ‘정절’을 강요하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표적인 음모양상이다. <정을선전>에서 계모 노씨가 전처소생인 ‘추년’과 ‘을선’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겨, 신혼 첫 날 밤에 자신의 사촌 오라비를 시켜 창문 앞에서 추년이 자신의 계집이라고 말하도록 한다. 즉 간부 위장을 통해 추녀를 간통한 여인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을선은 상경해 버리고, 추녀는 자결하기에 이른다.

계모형 외에도 처첩형, 처처형 가정소설에서 이러한 양상의 음모는 보편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③ 처첩형 <사씨남정기>

동청 왈,

“넉게 심복인 일인이 잇시니 명왈 ‘닝진’이라. 촌인이 언족이식비하니 가이 성스허려니와, 부디 스시의 스랑흐는 보물을 어더야 되리니, 이 일이 쉽지 아니리로다.”

교시 싱각다가 왈,

“스시의 시비 설미는 납미의 동미라. 촌인을 다리어 어더 너리라.”

하고,

...(중략)...

설미 즉시 열쇠를 감초고 드러가, 가만니 상즈를 열고 옥환을 도적흐야 닌 후 상즈를 네와 곳치 딛흔 후, 즉시 나와 교시에게 드러 왈,

“츠물은 구가의 세전지물이라.”

하고,

“가장 중이 너기시더니이든.”

...(중략)...

145) <김인향전>, pp.441~442.

홀년 냉진 쇼년의 옥환 일절의 스식이 변함을 씨닷지 못하야 스시다려 문왈,
 “부인이 전일 선인의 주신 바 옥지환을 어디 두었는뇨?”
 부인 왈,
 “상즈의 잇거니와 어이 무르시는뇨?”
 한님 왈,
 “고이한 일이 잇스니 닉 보고즈 흐노라.”
 부인이 쏘흔 의괴하야 시비로 흐야금 ‘상즈를 가져오라’하야 여러 보니, 다른 거
 슨 다 의구히 잇시디 홀노 옥환이 업는지라. 스씨 덕경 왈,
 “닉 분명이 여긔 두엇더니 어이 업는고?”
 한님이 변식고 말을 아니하니, 사씨 왈,
 “옥환 거처를 상공이 알으시는잇고?”
 한님이 작식 왈,
 “그디 남을 주고 나다려 무르문 엇지미뇨?”¹⁴⁶⁾

위 인용문은 <사씨남정기>에서 나타나는 ‘간부위장’대목이다. 교씨가 부인 사씨를 축출하기 위해 ‘간부위장’이라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교씨가 사씨를 몰아내기 위해 시비를 시켜 사씨의 방에서 유한림이 잘 알고 있는 옥지환을 훔치도록 한다. 동청은 이 옥지환을 친구인 냉진이라는 불량배에게 주어 멀리 공무로 나간 유한림에게 보이게 한다. 이를 본 유한림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정인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거짓 대답을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한림은 사씨를 추궁하게 되고, 옥지환의 소재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씨는 결국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찍히고 참조되어 폐출되고 만다.

이 외의 처첩형 유형인 <정진사전>, <옥난빙>, 그리고 처처형인 <월영낭자전>에서도 ‘간부위장’ 음모는 예외없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로 인해 첫 번째 부인은 결국 간통한 여인으로 오명을 쓰고 폐출되게 된다.

『흠흠신서』에는 “양가의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갑자기 강하고 포악한 오욕을 만나거나 앞이 캄캄한 무고를 입게 되면 ‘가문에 옥의 티와 같은 옥을 입히게 된다’고 하여 부끄럽고 분하게 여겨 부모가 위협하여 죽게 하기도 하고 처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¹⁴⁷⁾ 당시 여성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

146) <사씨남정기>, pp.36~40.

147) 정지영, 「장화홍련전 - 조선후기 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 『역사비평』통권61호, 역사문제연구원

지 않더라도 소문에 죽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계모 허씨가 전실소생인 장화를 죽일 때와 첩 교씨가 사씨를 축출할 때 가장 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정절’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 가정소설에서는 ‘정절’을 화두로 삼은 작품이 압도적이다. 특히 여성이 여성을 축출하거나 모략하기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임신(낙태)’ 또는 간통한 여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간부위장’ 음모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는 백발백중 성공하고, 이에 대한 처벌로 집안에서 축출되거나 자결하는 등 극단적인 해결책이 모색된다. 이는 그만큼 여성에게 ‘정절’이 강요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어길 시 가차없이 처분되는 당대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 독선적이고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아버지) 고발

무능한 남편(아버지)에 대한 고발의 모습은 ‘계모형, 처처형, 처첩형’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경전에서 가부장인 남편(아버지)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겠다.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며,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고, ……¹⁴⁸⁾

위의 인용문은 가부장이 가져야 할 처신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다. 가장은 우선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린 후에 국가와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즉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스승께서는 네 가지를 단연코 끊고 아니하셨으니 지레짐작으로 단정하시는 일이 없으셨고, …(중략)… 독선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하고 자기 분위로 일을 다루시는

소, 2002, p.426, 재인용.

148) 김수길 역, 『대학』, 대유학당, 1999, p.101.

古之慾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慾治其國者 先齊其家 慾齊其家 先修其身 ……

일이 없으셨다.¹⁴⁹⁾

가부장은 위의 인용문처럼 또 일을 지레짐작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 상황을 독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가부장은 가족의 중심이고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으며 가족을 대표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부장은 한 집단의 영도자인 만큼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가부장들은 이러한 가장들의 처신과는 반대로 가족원의 권고를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독선적으로 가정사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도연명이 팽택현(彭澤縣)의 현령이 되었을 때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서 부임했다. 그는 시종 한 명을 자신의 아들에게 보내면서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네게 아침저녁으로 쓰는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 시종을 보낸다. 네가 나무하고 물긴는 수고를 이 사람이 도울 것이다. 이 사람 또한 남의 자식이므로 잘 대우해야 한다.¹⁵⁰⁾

위의 인용문은 가부장은 같이 있지 못하는 아들에게 종을 보내어 돕게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나온 가부장은 아들을 배려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종을 잘 대우하라는 교훈까지 하는 모습도 보인다. <장화홍련전>의 가부장 배좌수가 친딸을 죽이라고 독촉하는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그는 집안을 네 가지의 법도, 즉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공손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태도로 이끌었으며, 집안의 네 가지의 예법, 즉 관(冠)·혼(昏)·상(喪)·제(祭)로 바로 잡았다.¹⁵¹⁾

위의 인용문은 가부장이 가정사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네 가지 덕목을 제시한다. 즉 부지런히 가정사를 다스려야 하는 것, 집안 재물을 쓰는 절도를 바로 잡

149) 동신출판사 편집부편, 『사서삼경』, 동신출판사, 1994, p.81.

150) 주희·유청지 엮음, 윤창호 옮김, 『소학』, 홍익출판사, 2005, p.257.

陶淵明, 爲彭澤令, 不以家累自隨. 送一力, 給其子, 書曰, 汝旦夕之費, 自給, 爲難, 今遣此力, 助汝薪之勞. 此亦人子也. 可善遇之.

151) 위의 책, 258.

御家以四教, 勤儉恭恕, 正家以四禮, 冠婚喪祭.

는 것, 가족원을 공순히 대하는 것, 가족원의 죄나 허물 따위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조선사회 한 가정의 바람직한 가부장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정소설에서 가부장은 가정을 이끌어 갈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 무관심하고 가정사를 다스리는 데 무능력함으로써 결국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가정은 몰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작품을 통해 들여다보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가정소설 작품의 대다수가 주인공이 여성으로 등장하는 여성 중심의 이야기임을 언급하였다. ‘가정’, 그 속에 위치한 ‘여성’이라는 존재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작품 내부를 들여다보면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표출돼 있으며,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즉 여성의 적극성,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남편(아버지)의 부재’, ‘남편(아버지)의 무관심’이다. 특히 ‘남편(아버지)’은 ‘가정’을 이끌어 갈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가정은 몰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유형별 작품을 통해 들여다보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① 계모형 <장화홍련전>

좌쉬 미양 두 쫄노 더부러 장부인을 싱각흐며, 일시라도 그 쫄을 보지 못흐면
그리는 싱각이 삼쥬나 지는 듯흐야, 들어오면 먼저 녀의 처소에 가서 얼골을 어
루만지며 눈물을 썩려 갈으되,

“너의 형데 | 곱흔 도장에 드러안즈, 어미 그리는 일을 싱각흐면 간장이 슬어지
는 것 굿다.”

흐며, 스랑흐고 불상이 녀임을 마지 아니흐더니, 허씨 미양 그 일을 보고 식기
지심이 싱겨 쥬야로 장화·홍년을 업시홀 췌를 싱각흐나, 좌수는 그 식기흐는 마암
을 침작흐고 허씨를 불너 크게 칙흐야 왈,

...(중략)...

“너의가 이렇듯 장성흐얏스니, 너의 모친이 살아더면 오작 깃버하깃느냐만은,
명도 귀구흐야 사오논은 사름을 맛는 막디 톱심흐니, 너의가 슬피흠을 보면 내 마
암이 쏘흔 견디기 아려우니 아모조록 안심흐야 지닌되, 만일 다시 학디흐는 일이

잇스면 내 맛당이 처치하야 너의 마음을 편케 흐리라.”

흐고 느왓더니, …152)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장화홍련전>의 배좌수는 계모 허씨의 남편이자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 그는 일찍 아내와 사별하자 어린 자식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계모를 들였다.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된 계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연이어 아들 셋을 낳는다. 이로 인해 부인으로서 당당한 자리를 요구할 만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계모는 배좌수에게서 여전히 외면 받는 신세다. 배좌수가 집에 들어오면 부인인 허씨와 아들 그리고 딸을 함께 찾지 않고 가장 먼저 장화와 홍련의 방으로 들어가 함께 전처를 생각하며 운다. 이것은 배좌수가 허씨를 전혀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저 후사를 낳고 양육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 허씨를 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허씨가 낳은 세 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인다. 배좌수는 가부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기보다 전처소생에 대한 지나친 편애를 보임으로써 허씨의 시기심을 자극하며 이로 말미암아 허씨는 장화와 홍련을 죽일 마음이 생기게 된다.

더 용렬흔 비좌슈는 그 흥녀의 간계를 몰으고 가장 놀나며 닐으되,

“이 일을 장츄 엇디흐면 도흐리오?”

흥녀, 흥녀 같으되,

“이 일이 가장 중되흐니 아모조록 남이 몰으게 흐는 것이 상척일 듯흐나, 속담에 ‘싸고 싼 사향늑도 난다’흐는되, 엇디 루설이 되디 안이흐리오?”

흥녀, 좌수 | 곁으되,

“그러면 엇디흐여야 도탄 말인가? 무삼 계교던지 싱각나는되로 말흐면 그되로 시형홀 터이니, 아모조록 계척을 닐여 집안에 슈치를 면케 흐면 엇디 다형이 아니리오.”

흥녀 곁으되,

“한 계교 잇스나 만일 발설흐면 나를 의심흐야 제 즈식이 아니닛가 그렷타 홀지니, 나는 계교가 잇더되도 말홀 도리가 업나니다.”

…(중략)…

흥녀 같아디,

152) <장화홍련전>, pp.588~589.

“그러면 장화를 죽여 종적을 업시하는 것이 상책이냐, 남이 혹 이런 리허를 물
오고 ‘내가 불측해야 익히 전설 자식을 모히야 죽었다’하리니, 차라리 내가 먼
져 죽어 몰으니만 갖지 못하다.”

하고, 문득 문 밖으로 나가 칼을 들고 자결코져 하느니라. 저 어리석은 배좌수
는 그 흉계를 물고 급히 나가 붓들고 달녀어 갈으되,

“그대의 진중헌 도량을 내 임의 아는고로, ‘무삼 말을 하던지 내가 힘을 안키는
고사하고 그대도 시형한다’하얏거늘, 엇지 이다지 구느냐?”

흔디, 흥녀 갈으되,

“그러면 장화를 속히 처치해야 뒤근심을 쓴케 호소서. ……153)

위 인용문은 <장화홍련전>의 배좌수가 계모 허씨의 악랄한 음모에 어처구니없
이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계모 허씨는 배좌수와 전처
자식들로부터 당하는 소외감, 그로 인한 질투와 욕망으로 결국 전처소생을 없앨
치밀한 음모를 꾸미게 된다. 딸 장화가 낙태한 것으로 알게 된 후 배좌수는 벌어
진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딸 장화에게 묻지도 않은 채 그저 허씨에게
급히 달려들어 붙들고 빌며, “그대의 진정한 덕을 내 이미 아나니 빨리 계책을
가르쳐 주면 저를 지금 처치하리라.” 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배좌수에게는 상황
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는 일보다 딸을 빨리 죽이는 일이 더 먼저였다. 장화
를 죽이는 일을 허씨가 계획한 것이지만 장쇠를 불러 장화를 죽이는 계교를 가
르친 것은 배좌수이며, 장화에게 외삼촌 집에 다녀오라고 속인 것도 배좌수이다.
그리고 장화가 가지 않으려고 하자 화를 내며 크게 꾸짖고 가라고 재촉하는 것
도 배좌수이다. 배좌수는 계모 허씨의 공범자이며 친딸의 죽음을 독촉한 아버지
라고 볼 수 있다.

<김인향전>도 마찬가지다. 인향의 아버지도 자신의 가정과 가족사에 대해 어
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② 계모형 <김인향전>

이새 좌수는 관가에 잇서 한 달에 한 번식 혹 두 번식이나 집의 나왔다가 드러
가니, 매일 정씨 무슨 일을 하기로 뉘 알리오.154)

153) <장화홍련전>, pp.590~592.

154) <김인향전>, p.440.

(좌수가) 인향을 살펴보니 아름다운 얼굴이 슈척하였거날, 좌수 문왈,
“네 얼굴이 저리허니 무삼 연고 잇섯스며, 몸의 무슨 병이 드러기로 저대지 수
척한야?”

인향이 엇자오되,
“월전부터 우연히 병이 되와 음식을 먹지 못하옵고 숨결이 가버 자연 수척하였
나이다.”

하며, 계모의 말은 두려워 차마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라. 좌수는 그 연고를
모르고 손으로 다만 심려만 하여 ‘몸을 조리하라’하고 의복품을 내여 쥐거날,
.....155)

위의 인용문을 통해 인향의 아버지 김좌수가 집안일에 대해 도통 무관심함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딸 인향이 임신했다는 계모의 말만 믿고 당장 그녀를 연못에
빠트려 죽이라고 한다.

좌수 더욱 분기 대발하여 칼노 셔안을 치며,
“너을 당장에 죽여 분을 풀 거시로대, 동내가 요란하겠기로 심천동 연못세 너어
종적을 업시하리라.”

하고, 인형을 불너 왈,
“너 누의를 다리라고 아모도 모로게 심천동 연못 속에 늦코 오라.”
하며 호령이 추상갓거날, 인형 울며 엇자오대,
“제 손으로는 참아 죽이지 못하겠사오니 죄당만사오나 한번만 용서하옵시고 널
리 통촉하옵소서.”

하며 대성통곡을 하니, 좌수 대로하야,
“당장 죽이라.”하며, 매를 들어 치라 하거날, 인향이 엇자오되,
“참아 동기간에 제 손으로는 못하겠사오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리고 가게
하옵소서.”

수좌 대로하여 왈,
“엇지 내 자식이 되야서 부모의 령을 억이먼 너는 불효가 막대하니 밧비다리고
가라.”

호령이 턴동 갓거날,156)

155) <김인향전>, p.446.

156) <김인향전>, p.451.

위 대목에서 알 수 있듯 김좌수는 딸의 임신 사실을 듣고, 그것에 대한 정황은 일절 묻지도 않은 채, 오직 집안을 망신시켰다는 가문의식 하나로 당장 그녀를 죽이라는 엄명을 내린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계모형에서의 가정 내 분란의 중심에는 바로 ‘아버지’로서의 무능함, 즉 무관심과 무지가 중요한 동기가 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는 남편 또는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모습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다시 말해 가정은 혈육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그런데 전처의 죽음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 시 새 가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계모’는 새 가족 구성원으로 등장한다. 이로 보아 계모는 남편과 일종의 계약이 체결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편이 새 여자인 계모를 들이는 이유가 전처의 대타로서의 수단이자 후사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새 가족을 위해 남편 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존의 혈연 가족들과 서로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앞서 사례를 든 작품들을 보건대, 남편 또는 아버지로서의 이중 역할을 맡고 있는 그들은 그러한 역할 분담은 물론이거니와 계모의 존재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전처소생들에게만 모든 애정을 기울이는 편벽한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계모의 음모에 의해 전처소생에게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 이를 용이주도하게 살피보거나 적절한 상황판단을 일절 하지 못하는 단순한 성격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급한 성격과 지나친 가문의식은 결국 혈육을 가차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하면서도 어리석은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러한 남편의 무지와 무관심은 처처형, 처첩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③ 처첩형 <정진사전>

진식 이의 일지 방에 드러가니, 일지 엿조오되,

“그 편지 스연의 ‘강한량이 너일 밤으로 온다’호오니, 소네 풍용이 엿보아 슈상
흔 풍적이 엿거든 즉시 고희오리니 잡을 도리를 하시미 맛당홀가 호느이다.”

진식 ‘종기언호야 잡으리라’호고 외당으로 나오니라.

...(중략)

일지 즉시 스랑으로 나아가 진스에게 고왈,

“진스님은 취침호여 계시니잇가?”

츠시에 진스 맛참 씨엿던지라. 이 소리를 듣고 즉시 응락허거늘, 일지 엿즈오디,
“과연 인적이 있는 듯허여이다.”

진식 이러나 급히 다투므로 드러가니, 과연 엿더흔 놈이 최씨 방 마루 밋히 있
다가 인괴척 잇스믈 보고 급히 나아와 담을 너머가거늘, 진식 황겁허야 소리를 질
너 왈,

“흉악한 놈이 과연 올토다. 이는 적실무의흔 일이라.”

허고 일지의 방으로 드러가 의록허야 왈,

“이 일을 엿지허여야 맛당홀고? 저를 느껴 보느고즈 허나 보닐 곳이 업스니 가
장 난쳐허도다. 최승지 근일에 경주 부윤으로 뇌외상하를 흡술허야 임소로 내려긔
스니, 경주로나 보느고즈 허나 슈천 리 원정에 레단이 불소허니, 이도 쏘흔 난쳐허
여라.”¹⁵⁷⁾

츠시에 일지 최씨를 느친 후로 더욱 방즈무기허야 가늌의 작폐 무쌍허니, 장부
인과 박씨는 최씨를 싱각고 일지를 의려흠이 업지 아니허되, 진스는 갈수록 일지
를 더욱 사랑허야 뇌외범스를 모도 다 맞기고 언청계용허니, 일지 양양즈득허야
방약무인허더라.¹⁵⁸⁾

위 인용문은 <정진사전>으로 이조판서인 정창린이 사신으로 청나라에 간 사이
애첩 일지가 본처인 최씨를 내몰기 위해 외간남자와 간통하는 것처럼 꾸며 시아
버지인 정진사에게 고해 바치는 장면이다. 시아버지인 정진사 역시 일지의 말만
믿고, 최씨를 집안에서 쫓아내고야 마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러한 모습은 처처형에서도 드러난다.

④ 처처형 <월영낭자전>

정부인이 견과의 디로하야 왈,

“호씨 행실이 여차 무쌍하니 그져 두지 못헐지라.”

하고, 즉시 나와 상서를 보고 셔간을 드리니, 상서 견과의 호씨를 디하여
노질 왈,

“호녀의 행실이 여차함을 몰나더니, 과연 불칙한 행실이 잇도다. 이러한 음녀는
나라의 고하고 법으로써 처치하리라.”¹⁵⁹⁾

157) <정진사전>, pp.326~327.

158) <정진사전>, p.338.

159) <월영낭자전>, p.262.

위 인용문은 <월영낭자전>으로, 정씨부인과 월영낭자(호부인) 간의 갈등을 다룬 대목이다. 정씨부인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호부인의 필체로 거짓 간통내용의 서찰을 꾸며 시아버지인 최상서에게 고해 바친다. 편지를 본 최상서는 정씨부인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호부인을 쫓아 내려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씨 부인은 또 자객을 시부에게 보내는데, 마치 호부인이 보낸 것마냥 모해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시부는 호씨 부인을 당장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남편(아버지)들이 가정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가문의식에 집착해 있으며, 상황 판단력 자체가 미미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남편(아버지)의 무능함과 무관심이 가정 내에 존재하였기에, 이를 빌미로 삼아 음모를 꾸밀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러한 음모는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개인 욕망과 자아의식에 눈뜨는 여성

가정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게다가 주인공 여성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적극적인 양상이다. 특히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이 주로 이들이 가진 ‘욕망’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은 짚고 갈 일이다. 이는 당대 사회가 유독 여성에게 폐쇄적이고 억압받는 구조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아의식이 확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모습은 ‘계모형, 처처형, 처첩형’ 전반의 모습에서 모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작품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모형 <장화홍련전>

부스 | 그 울음을 금하고 흥녀를 형틀에 올려 밧고,

“즈세히 알외라.”

흥녀, 흥녀 | 겁늬여 이에 고히야 왈,

“소첩이 덕덕 명문거족의 즈손으로 문호 점점 쇠잔하야 도불려석호옵던 차에,

좌수의 정혼함을 인하여 그 후쳐되오미 …(중략)… ”¹⁶⁰⁾

위의 인용문은 계모 허씨가 부사 전동홀 앞에서 아된 내용이다. 허씨는 본래 명문거족의 딸인데 문중이 쇠잔하고 가세가 기울었을 때 배좌수가 간청하여 그 후처가 되었다. 허씨는 몰락한 가문의 성원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였다. 그래서 배좌수는 후사계승을 목적으로 허씨를 맞아들였지만 허씨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배좌수의 후처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허씨는 다른 것보다 실질적인 재물을 택한 사람이다.

좌수는 그 식기흔는 마암을 침작히고 허씨를 불너 크게 칙혀야 왈,

“우리가 본디 빈곤하게 지너다가, 전처가 친정 직물을 만이 어더온고로 지금 우리가 풍비가 쓰는 것이 다 그 덕이요, 지금 그딤의 먹는 것이 다 그 밥이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감동홀지어늘, 더 녀으들을 심히 박되히니 엇지 도리라 허리오? 츠후는 그리 말고 아모조록 스랑혀야 그딤가 나흔 즈식이나 조금도 츠등이 업게 허라.”

허나, 슬푸다! 더 시랑 갓흔 마음이 엇지 회기허리오. 그런 말을 들은 후부터는 더욱 불측흔 횡동으로 장화 형제를 급히 죽일 뜻을 품고 주야로 교계를 생각허더라.¹⁶¹⁾

위의 인용문은 배좌수가 허씨를 꾸짖는 내용이다. 배좌수는 허씨가 전처 덕분에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전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허씨는 후처지만 욕례를 갖추어 들어온 정실부인이다. 그리고 후사계승의 임무를 완성한 상태에서 부인으로서 집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허씨가 바라고 또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우를 남편과 전처소생에게서 받을 수 없었을 뿐더러 자신이 욕심낸 재산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 허씨의 열등한 처지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를 의식한 허씨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② 계모형 <김인향전>

하로는 걸인 노파가 자니다가 드러와서 ‘동양을 달나’하거날, 정씨 거깃 받기느 체하고 대접을 극진히 한 후 창자을 연하여 담화하여 왈,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남의 후취가 되엇더니, 진실 자식 여러 남매가 잇서 소위가 불칙하며, 남의 자식이라고 슬대가 업습디다. 계모라고 향인만치도 대접을 안

160) <장화홍련전>, p.615.

161) <장화홍련전>, p.588.

니하는 중의, 또한 가장도 전실 자식만 사랑하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그 꼴을 보지 안이함이 맞당하다.”

하고 담화하니, ……162)

위 인용문은 <김인향전>에서 나오는 대목으로, 계모 정씨의 신세 한탄 부분이다. 계모 정씨는 김좌수가 본처 왕씨부인이 죽자 새로 맞아들인 부인으로 절세미인이다. 그러나 그녀의 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좀체 남편 김좌수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 김좌수는 전처소생의 자식들만 편애하고 전처소생들 또한 그녀에 대한 정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정씨는 지금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런 대접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에 이른다.

그녀가 죽음을 생각한 배경에는 ‘후처’라는 모멸감,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자괴감이 맞물리면서 그녀의 신세를 더욱 처량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은 무조건적인 희생과 순응을 강요하는 당대의 사회에서 뚫고 나오는 목소리이기에 더욱 절절하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바로 그녀의 사랑을 빼앗는 전처 소생 ‘인향’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를 벌이게 된 연유다.

③ 처첩형 <사씨남정기>

이씨 스부인이 티끌 잊서 십 삭이 츠미 순산싱남하니, 한님이 크게 깃거히고 상하 비복 등이 다 조히 여기더라. 교시 스부인의 싱즈흐를 보미 더욱 쇠오흐야 스부인을 업시코져 마음이 더욱 착급흐더라. 한님이 즈로 정당의 드로와 스부인의 산후 기운을 못고 신야를 무익흐는 거동이 현저하니, 교시 이를 보미 간장이 더욱 타는 듯흐야, ……163)

인용문은 <사씨남정기>로 교씨 부인이 사씨 부인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의 배경이 등장하는 대목이다. 사씨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결국 유한림은 교씨를 불러들여 대를 잇고자 한다. 그런데, 아이가 없던 사씨가 임신을 하게 되고, 유한림은 본처 사씨에 대한 사랑이 더욱 극진해진다. 이로 인해 교씨의 신세는 하루아침에 전락하게 된다. 그러던 중 사씨 또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녀와 본처

162) <김인향전>, p.441.

163) <사씨남정기>, p.32.

인 사씨의 처지를 비교하게 된다. 그녀는 그녀가 갖지 못한 욕망, 본처로서의 위치를 탐하게 되고, 결국 사씨를 축출하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꾸미게 된다.

④ 처첩형 <정진사전>

이씨 일지 또한 유신하야 십 삭 만에 일기 남즈를 싱하니, 판세 차으를 익이하야 그 일흠을 청출이라 한다. 일지 이후로 더욱 방즈무기하는 중에, 좌부인 박씨와 우부인 최씨 두 숙녀를 주야로 식기하야, 일시에 업시하고 제 홀노 권세를 잡아 가스를 총집코즈 하니, 제 좌우의 심복지인이 업스미 놀노 더부러 계교를 의론하리오.¹⁶⁴⁾

일지 하방천기로 판서를 만는 후로 몸이 고당에 처하야 급의옥식을 텅소하고 능라를 무거워하며, 군즈와 진스의 이지흠을 바다 제 스스로 즈부하기를,

‘이 집 가온티 날보다 더 총의를 입는 지 업도다.’

하고 믹스에 총집하려 하니, ……¹⁶⁵⁾

위 인용문은 <정진사전>의 한 대목으로, 애첩 ‘일지’가 임신한 후 시부모와 남편의 사랑을 더욱 받으며, 본처로서의 권세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택과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본처의 자리를 탐내는 그녀의 욕망이 담겨 있다.

처첩형 갈등을 다룬 작품 <조생원전>도 이러한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⑤ 처첩형 <조생원전>

한림이 후주로 더불어 일일을 동낙한 후로는, 노상형인갓치 여기고 김씨 침소에 화락하니, …(중략)… 후주 보기를 현 신갓치 하니, 이러무로 후취 앙양지심이 날노 더하여 김씨을 구슈갓치 눈에 가시로 알되, ……

세월이 훌훌하야 김씨 잉티 십 삭이 츠미 일기 옥동을 싱하니, 구고의 은익와 한림의 스랑이 더욱 극진하니, 후주는 더욱 식기지심이 김씨을 절치하야 유모 윤씨다려 왈,

“이제 김씨 순산싱남흠미, 평장 부부의 스랑흠과 한림의 총이가 비홀 썩 업고, 오작 날 갓튼 박명은 신세가 현 신씩이 되엿스 분하고 이달은지라. 엇지 참으리요.”

하고 혹 울기도 하며, 혹 가슴도 두다려 탄식하니, 그 형용을 가히 우슬너라.¹⁶⁶⁾

164) <정진사전>, p.317.

165) <정진사전>, p.318.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둘째 부인으로 들인 후주는 본처 김씨가 임신을 한 이후 그녀에 대한 질투가 증폭한다. 이유는 남편 조생원이 그녀를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그녀 자신을 ‘헌신짝’에 비유한다.

이상과 같이 가정소설에서는 음모의 배경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한 여인으로서의 사랑받지 못하는 소외감, 후처로서의 모멸감, 자신의 자식에게 가문을 물려주기 위한 신분상승과 본처 자리에 대한 욕망, 재산에 대한 욕심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들의 공통점은 계모이거나 제2부인 또는 첩이라는 사실이다. 계다가 계모, 제2부인과 첩은 결혼 전에 비록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새 구성원으로 가정에 들어오면서 열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기존 가정 구성원들로부터 배제를 당하기 일쑤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에는 정실부인을 제외한 여성들은 모두 가정 내에서 소외 대상이 된 것이다. 계모, 제2부인과 첩은 남편의 애정충족, 가산관리, 자녀교육, 후사계승 등을 이유로 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계모는 집안에 들어온 후에 남편에게 애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처소생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적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계모가 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권세를 보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다른 것보다 실질적인 재산을 택한 사람들이다. 이로 인하여 소외대상이 된 계모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재산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제2부인의 경우는 제1부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 주요 갈등 원인이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소설 작품에 있어서 제2부인은 제1부인보다 우세한 가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한편 처는 가정의 구성에 필수적 존재이나 첩은 부차적인 존재이다. 첩은 주로 처의 결함을 보완하거나 남자의 애정충족 등을 이유로 영입된다는 점에서 신분적 위계가 더욱 분명하다.

예를 들어 <옥난빙>에서 유매영은 진숙문의 풍채에 한 눈에 반해 연모지정을 품게 된다. 유매영은 진숙문의 둘째 부인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이모이자 진숙문의 서모인 송씨의 도움으로 진부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지만, 진숙문의 피병으로 인해 욕례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제 발로 진부에 들어간다. 유매영은 애정성취에 있어 “옥인직식 아니면 평칭을 도장에 느끼로 밍세”하는 굳은 각오와 자신이

166) <조생원전>, p.391.

반한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구혼하는 애정 자아의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에게 홀대를 당해 유매영은 애정 욕망의 성취가 좌절되자 이에 대한 반발은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그런데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녀들의 음모의 배경에는 ‘그녀’ 자신이 갖지 못한 것, 또는 그녀가 받는 ‘소외감’ ‘권력’ 등에 대한 심리적 욕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폐쇄적인 조선사회에서 희생과 순응만을 강요하며 수동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준다. 이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하는 시비 판단을 떠나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정체성, 그리고 자아의식이 확립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이다.

4. 기존 질서와 가부장제에 대한 세대교체론 인식

‘가정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여성’과 관련된 ‘여성이야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사회 속에는 ‘여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음모를 키워내는 배경 속에는 ‘남성’의 존재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조선 사회는 부계 중심이요,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가정소설’에서 ‘남성’의 모습은 작품에서의 중심이라기보다는 ‘타자’에 가깝다. 게다가 앞서도 언급했듯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로서의 면모도 유감 없이 발휘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감춰진 모습이 있으니, 바로 ‘가부장 질서의 해체’라는 위기의식이다.

예를 들면 당대 체제의 중심인 ‘아버지’에 대한 반발, 또는 무능한 아버지(떠나리로서는 시아버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세대교체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음이요, 동시에 조선사회를 떠받드는 가부장 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가정소설 중 특히 ‘처첩형’에서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처첩형 <정진사전>

(판서가) 당일 스시에 입성하야 복명하고 근친홀 차로 상달하온디 상이 윤희하 시거늘, 드디어 하직숙비하고 익일 발정하여 여러 날 만에 본부의 득달하여 량친 게 현알하오니, 부피 판서를 디하니 반가운 중 눈을 드러 보기 붓그럽고 마음이 점짓하여 가장 침음하야 하거늘, 판세 위로하야 왈,

“복원 부모는 잠시지스를 기렵치 마르소서. 이제는 나간 스롭들의 즈최 일시에 모도일 도리 잇느이다.”

하고, 다시 녀즈오되,

“이번 전난지식 엇지 되온 일이니오니잇가?”

진식 탄왈,

“이 도시 나의 불명훈 타시라. 엇지 다 성언하리오.”

판세 물너나와 곳 별당에 좌기하고, 로쇼비복을 츠레로 잡아드려 죄목을 바들 적에,

...(중략)...

판세 디로하야 청주 진영에 통기하여 츠돌을 착가엄슈하니라.

각셜. 이썩에 경기 감영과 강원 감영에서 정판서의 공문을 보고 날을 기약하야 줍로에서 서로 모히여 흡역 거헝홀시, 룽읍 관장에게 발령하야 ‘아모 절에 계신 닉 헝츠를 괴산 아모디로 호송하라’ 하엿거늘, 룽읍 관장이 각각 위의를 갖초아 닉헝을 비호하여 괴산 본턱으로 치송홀시, 진스 부부 나아가 가마 문을 들치고 눈물을 흘 니며 왈,

“닉 일즉 불명하야 너의로 하여금 무슈흔 곤욕을 당케 하엿스니 엇지 참괴치 아 니하리오.”¹⁶⁷⁾

위 인용문은 <정진사전>의 일부분이다. 아들 정진사가 집을 비운 사이, 무능한 시아버지는 며느리이자 아들의 애첩 일지에 놀아나 현모양처인 며느리를 집 안에서 축출시키고 만다. 이후 환국한 정진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오를 되잡고 애첩 일지를 추방한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부장인 정진사의 아버지는 무능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무능한 가장으로 전락하고, 반면 아들은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일처리로 영웅의 자리에 등극한다.

167) <정진사전>, pp.357~358.

② 처첩형 <옥난빙>

(승상)이 부종의 도라와 너당에 이르니, 부인나 나와 손을 잡고 어린 듯하니 원슈 성체 안강함을 못잡더니, 진공이 드러와 원슈와 스묘에 비알 후 부인과 별회를 펼세, 좌우를 살피니 장과 모녀와 석시 업스미 고히 역여 못고져 하더니, 빅현이 슬하에 절하거늘 반기는 스식이 외모에 넘치나 의형이 환탈하야 축뉘되엿스니 심하에 경아하나 또한 못지 아니터니, 외당에 하직이 오미 즉시 나와 접디하고, 다시 부공을 피셔 석식을 파흔 후, 승상이 부친게 고왈,

“장셔모와 숙혜 어디 갓스오며, 석시 엇지하야 업느잇가?”

위공이 탄왈,

“장과 모녀는 친가에 갓건이와, 석쇠 말하면 인심은 불가척이라. 그 덕형을 우리 밋기를 틈산 갓더니, 엇지 음비지식 잇슬 줄을 알니오.”

하고 인하야 서스왕복지스를 세세히 말하며 왈,

“이는 니가 친이 본 바요, 출거시에 증노에서 악한이 다려가며 ‘도성의 촌인이라’ 하니, 여츠편악지식 어디 잇스리오.”

승상이 텅필에 히연하야 묵묵반향에 왈,

“소직 불초호와 어가지도를 잘못홈이로소이다.”

공 왈,

“너는 부절업시 심녀를 상치 말나. 너 임의 류시로 상원부인을 습앗느니 너는 죠히 레디하라.”

승상이 유유히 퇴하야 몽조현에서 빅현으로 동침하며 니심에 혜오디,

‘부인의 명감으로 글웃 보실 리 업고 석시의 성덕으로 이갓치 흠은 천만의외라. 싱각홀스록 측량치 못홀 일이오.’¹⁶⁸⁾

승상이 척연 왈,

“죄명이 명빅하니 원민홀 비 업건이와, 다만 양아의 스침을 아지 못하니 잔인터이다.”

장쎈 경아 왈,

“상공이 엇지 부인을 죄인이라 하시느잇가? 상공의 일월지명으로 엇지 살피지 못하시느잇고?”

승상이 아라 듯고 ‘유유’러니,¹⁶⁹⁾

168) <옥난빙>, pp.168~169.

169) <옥난빙>, p.170.

위 인용문 <옥난빙>도 마찬가지다. 아들 진학사가 집을 비운 사이, 무능한 시아버지가 아들의 후처들에 놀아나 현모양처인 며느리 석씨를 집안에서 축출하기에 이른다. 이때 집에 돌아온 진학사가 정황을 살펴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며느리로서는 시아버지)는 가정소설을 통해서 무능하고 판단력 약한 가장으로 드러난다. 특히 애첩이나 후처가 음모를 벌이는 장면의 대다수는 그녀들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즉 무능한 가장들만 가정을 지키는 사이에 벌어진다. 선인이 범법자가 되고, 악인이 판을 치는 어지럽혀진 질서는 아들이 가정에 돌아온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당대 서술이 시퍼런 가부장제 질서가 흔들리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조속한 세대교체를 종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인식되게 한다.

VI. 결 론

본 논문은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가정소설의 개념, 유형,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작품 속에 나타난 ‘음모양상’을 추출하여 가정소설이 가지는 소설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기반에는 가정소설에서 ‘음모’가 가지는 문학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그동안의 고소설에서는 ‘악녀’의 유형이 본격화 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가정소설을 통해 ‘악녀’의 유형을 본격화했다는 점은 소설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이 악녀의 등장은 ‘음모’를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음모’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성과물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외에도 가정소설이 당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당대 사회적 산물로 출발하였다는 점도 본고가 가정소설을 텍스트로 삼은 주요한 이유들이다.

이에 필자는 상대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축출 등의 일정 목적을 가지고 흥계를 꾸미는 것을 ‘음모’라고 정의하고, 선정된 텍스트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음모양상과, 그 음모를 근간으로 하는 텍스트들의 의미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시각을 중심으로 각 장별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을 통해 ‘가정소설’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확정하였다. 물론 가정소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오래되었고, 이에 대한 성과물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정소설에 대한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여, 정리된 정의가 필요하리라 판단되었다. 이에 여러 학자들의 가정소설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살핀 후 가정소설에 대한 정의를 확정하였다.

즉 가정소설은 ‘동양적 봉건사회의 가족제도와 혼인제도 하에 한 세대의 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가정의 기존 구성원과 새로 유입된 구성원 사이에 부조화로 일어난 갈등을 주제로 한 소설’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소설의 정의에 부합된 작품들을 ‘정격 가정소설’, 서사구조나 내용이 확장된 작품을 ‘변격 가정소설’로 구분하였다.

본고는 정격 가정소설을 텍스트로 선정한 후, 이들을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 작품의 서사 전개에서 주축이 되면서 동시에 음모를 꾸미는 ‘갈등’의 주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계모형, 처처형, 처첩형과 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Ⅲ장에서는 가정소설의 형성배경을 크게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가정소설이 그동안 고소설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적’이라는 틀을 벗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 여기에 본고가 집중한 ‘음모양상’이 당대 사회문화사적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가정소설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는 텍스트에 녹아 있는 ‘음모양상’이 그만큼 현실에서 통용되던 수단과 방법들이었고,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배경으로 당대의 유교적, 제도적 명분과 함께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음모’의 실제 사례들을 추출해 보았다.

또 문학적 배경을 통해 왜 ‘가정소설’이 조선 후기 독자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어낼 수 있었는가 조망해 보았다. 이는 가정소설이 본격화된 17세기 후반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문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사회적 현안과 경제적 변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당대 사회의 모순에 눈 뜬 독자들, 특히 억압되고 폐쇄된 봉건 사회에서 억눌리고 희생만을 강요하던 여성 독자들이 ‘가정소설’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대리만족을 꿈꾸면서 중요한 독자들로 급부상하였고, 이로 인한 수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내는 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가정소설은 조선조 사회에 존재했던 가부장제, 일부다처제, 축첩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이런 가족제도의 불합리에서 가정 내의 신분다툼, 애정다툼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가정소설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가정소설로 범주를 확정한 8편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음모양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음모양상들이 펼쳐지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음모 양상’과 관련한 가정소설의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를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첫 번째, 가정소설의 갈등의 정점에 으레 ‘음모’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 ‘음모’를 통해서 선악의 대립구도는 더욱 탄탄해지고, 독자의 몰

입도는 상승하며, ‘음모’의 양상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당대사를 비추는 거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작품의 공통분모로서 등장하는 ‘여성’의 위치, 그리고 가정소설과의 관련성이다. 다시 말해 가정소설은 본격적인 여성 이야기이자, 선인과 악인의 모습을 두루 담아 인간의 모습을 두루 표출해 내고 있으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담보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가정소설은 ‘가정’이라는 편협한 공간이라는 한계를 벗고 애정과 질투, 재산싸움은 물론 신분상승욕구, 가문의식, 나아가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투영하면서 조선사회가 안고 있는 거대한 공동체의 담론을 뿜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시각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정소설의 소설사적 함의 4가지를 가정소설의 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무조건적인 희생, 즉 효와 정절은 대량 열녀들을 생산해 내고자 하는 당대 사회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가정소설은 이들 문제의식을 작품 속에 ‘음모’라는 이름으로 끌고 와 문제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러한 ‘음모’가 작동하게 된 근간으로 당대 사회제도 전반의 문제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 사회에 무관심한 남편들의 무지와 무관심도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셋째는 폐쇄된 조선 사회 속에서 순응체제만을 강요받던 여성들의 자아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음모 양상 속에 파 있는 갈등 욕망의 핵심에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존재로서의 불안함, 자신과 더불어 자기의 자식들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욕구, 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물질적 풍요와 권력이라는 질적 수준의 욕망이 잠재해 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는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당대 여성들의 의식 속에서도 꿈틀거리는 ‘자존감’과 함께 ‘자아의식 확립’의 일면이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소설 속 여성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가부장 질서의 해체 모습이다. 당대 가부장제 사회의 핵심인 가장(주로 시아버지)의 무능함과 잘못된 판단력으로 하루아침에 무질서해지는 작은 사회,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 가

정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가정소설인 것이다.

이후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정의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주체는 바로 가장의 뒤를 잇는 ‘아들’인 것이다. 이때 가장은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아들은 일약 영웅으로 등장한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대교체의 당위성과 함께 가부장 질서의 위기의식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지향점 모색이라는 이중성이 그려진 작품군이 바로 가정소설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조선왕조실록』

구인환, 구창환, 『문학개론』, 삼양사, 1976.

구자균, 손낙범, 김형규,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1954.

김광순, 『한국고대소설사와 론』, 새문사, 1990.

김귀석, 『朝鮮時代 家庭小說論』, 국학자료원, 1997.

김기동, 『한국고대소설개론』, 대창문화사, 1956.

_____,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59.

_____,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김수중,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김준영, 『국문학개론』, 형설출판사, 1981.

김태준,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_____, 『한국고대소설론과 사』, 집문당, 1986.

_____, 『한국문학배경연구』, 반도출판사, 1995.

박태상, 『국문학연습: 가정소설과 페미니즘』,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3.

소재영, 『고소설통론』, 이우출판사, 1987.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장문사, 1960.

신해진, 『朝鮮後期 家庭小說選』, 月印, 2000.

_____, 『한국고전소설의 이해』, 박이정, 2012.

안자산,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안자산 저, 최원식 역, 을유문화사, 1989.)

오종근·백미애,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月印, 2001.

우쾌제, 『韓國 家庭小說 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出版部, 1998.

- 우리어문학회,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1949.
- 육완정 옮김, 『내훈』, 열화당, 1991.
- 이광규, 『한국 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83.
- 이병기, 『국문학개론』, 일지사, 1976.
- 이상백, 『한국사』, 전근세기편, 을유문화사, 1981.
- 이성권, 『韓國 家庭小說史 研究』, 국학자료원, 1998.
- , 『한국가정소설연구』,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2005.
-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 이정원, 『전을 범하다』, 웅진지식하우스, 2010.
- 정규복, 소재영, 김광순 공편, 『한국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95.
-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8.
- ,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9.
-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 최시한, 『가정소설연구』, 민음사, 1993.
-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보고사, 2004.
-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8,
- 최재천 외, 『살인의 진화심리학 - 조선후기의 가족 살해와 배우자 살해』, 서울
대출판부, 2003.
- 한국문학개론편찬위원회, 『한국문학개론』, 혜진서관, 2001.

2. 학위논문

- 구본미, 「쟁쟁형 소설연구 - 여주인공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경미, 「사씨남정기 작중 인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귀석, 「朝鮮時代 家庭小說에 나타난 人間像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 「조선시대 가정소설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민정, 「가정담에서 여성 간의 갈등 양상과 그 의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정환, 「조선 후기 家庭小說의 家父長權 연구」, 세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지련, 「<정진사전>의 인물의 성격 변모와 그 의미 - 첩 ‘일지’를 대상으로 -」,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지영, 「<정진사전>의 인물의 성격 변모와 그 의미: 첩 ‘일지’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지은, 「爭寵型 家庭小說의 重層敍事 研究」,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현주, 「조선조 가정소설의 갈등 요인 연구 - 爭寵型, 繼母型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현지, 「구활자본 계모형 고소설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 경, 「조선전기 처첩질서 확립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경열, 「고소설의 가정갈등에 나타난 악행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박순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처첩관계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 계모형, 쟁충형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백미애, 「쟁충형 고소설의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백수은, 「계모형 고소설의 갈등구조와 인물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2004.
- 신규원, 「계모형소설연구: 계모의 성격과 그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우쾌제, 「계모형 소설연구: 특히 구성, 인물, 사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_____, 「朝鮮時代 家庭小說의 形成要因 研究 - 烈女傳의 傳來와 受容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이경임, 「쟁송형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성권, 「家庭小說의 歷史的 變貌와 그 意味」,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이승복, 「妻妾葛藤을 통해서 본 家庭小說과 家門小說의 關聯 樣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원수, 「가정소설의 갈등구조와 그 의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_____,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윤경, 「계모형 고소설 연구 - 계모설화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형미, 「계모형 가정소설의 모자 갈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장우석, 「활자본 <조생원전>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혜심, 「계모계소설연구: 계모관의 편향성 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조용선, 「계모형 고소설의 문학사회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주경희, 「朝鮮 後期 家庭小說에 나타난 惡女에 대한 研究 - 쟁송형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최시한, 「가정소설의 구조와 전개 - <사씨남정기><치악산><삼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한상현, 「고소설에 나타난 악녀의 실상 - 쟁충형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3. 학술지논문

고정명, 「계모자·적모서자관계의 실제와 관련문제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제11집, 국민대학교출판부, 1999.

김경숙, 「<정을선전>연구 - 후기 가정소설에 대한 일 고찰」, 『열상고전연구』제12집, 열상고전연구회, 1999.

김기동, 「한국 고전소설의 연구(二): 미연구 작품을 중심으로」, 『논문집』제5집, 동국대학교, 1968.

김귀석, 「조선조 가정소설에 등장한 ‘계모’에 대한 인물연구」, 『인문과학연구』제13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_____, 「가정소설의 설화적 요소 고찰 - 죽음·재생·꿈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제37집, 한국언어문학회, 1996.

_____, 「고소설에 등장한 ‘계모’연구」, 『전통문화연구』제4집,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6.

_____, 「家庭小說의 人物과 指向性 - ‘嫡出’ ‘正室’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제9집, 동양고전학회, 1997.

_____, 「가정소설에 나타난 죽음, 재생, 꿈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1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김양수, 「朝鮮朝 支配이데올로기와 家庭小說의 役割에 관한 研究」, 『論文集』제12집, 혜전대학, 1994.

김정숙, 「<운영전>과 <동선기> 속 악인 탄생의 의미」, 『한문고전연구』제2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김재용, 「계모형 인물연구」, 『국어국문학연구』제12집, 원광대학교 문리과대학 국

- 어국문학과, 1987.
- _____, 「대화 이론으로 본 계모형 고소설의 변모와 그 사회적 의미」, 『배달말』 제17집, 배달말학회, 1992.
- 김현룡, 「〈사씨남정기〉연구 - 목적성소설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 『문호』 제5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9.
- _____, 「고소설의 부정누명소재고」, 『건국어문학』 제15, 16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류희식, 「가부장제와 조선후기 가정소설에 나타난 특성」, 『문예미학』 제12집, 문예미학회, 2006.
- 박경열, 「〈정을선전〉에 나타난 음모와 선인의 부정에 대한 소망」,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논집』 제26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2001.
- _____,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유형과 악의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
- _____,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형성조건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 제39집, 겨레어문학회, 2007.
- 박성의, 「고대소설속의 중상모략」, 『세대』 제3권 통권19호, 세대사, 1965.
- 민영대, 「〈월영낭자전〉연구(1) - 삽입된 서간의 유형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제26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2.
- _____, 「월영낭자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과 역할」, 『한남어문학』 제29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5.
- 서경희, 「가정소설에 나타난 친자 살해 연구」, 『국어국문학』 제154집, 국어국문학회, 2010.
- 서은아, 「〈장화홍련전〉의 가족갈등과 문학치료적 활용」, 『국어교육』 제129집, 한국어교육학회, 2009.
- 서혜은, 「〈조생원전〉의 이본 계열과 여성 독자층의 향유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 송주희, 「<정진사전>에 나타난 결연담의 서사적 기능과 그 의미」, 『어문연구』제 70집, 어문연구학회, 2011.
- 신해진, 「<사씨남정기> 교씨의 인물형상과 의미 - 형상의 소종래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제1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 _____, 「<유연전>의 악인 형상과 그 행방」, 『어문연구』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 _____, 「완관 43장본 <소대성전> 해제 및 교주」, 『고전과 해석』제4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8.
- 안영미, 「조생원전의 구조와 작자의식」, 『문학과 언어』제5집, 문학과언어연구회, 1984.
- 우쾌제, 「<사씨남정기>연구」, 『한남어문학』창간호,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72.
- _____, 「家庭小説의 概念 再考」, 『한국언어문학』제22호, 한국언어문학회, 1983.
- _____, 「가정소설에 나타난 가족 의식 고찰」, 『古小説研究』제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 _____, 「家庭小説에 나타난 夫婦의 役割과 家族意識 考察」, 『우리文學研究』제10집, 우리문학회, 1995.
- 윤정안, 「<김인향전>의 의미 형상화 방식: <장화홍련전>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제152집, 국어국문학회, 2009.
- 위후량, 「고대소설의 인물형 연구 -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논문집』제5집, 광주대학교, 1988.
- 이경혜, 「정을선전 연구」, 『인문과학연구』제7집,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 이금희, 「<김인향전>연구」, 『고소설연구』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 _____, 「<장화홍련전>연구」, 『문명연지』제5집, 한국문명학회, 2004.
- _____, 「계모형 소설연구 -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제19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이내중, 「<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회지』제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서포의 현실인식」, 『배달말』통권 제27호, 배달말학회, 2000.
- 이성권,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를 통해서 본 초기 가정소설의 세계 - 핵심적 갈등상과 인물의 층위에 따른 현실적 성격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제11집, 우리어문학회, 1997.
- 이승복,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 양상과 의미」, 『冠嶽語文研究』제20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 이원수, 「<사씨남정기>의 반성적 고찰」, 『문학과 언어』제3집, 문학과언어연구회, 1982.
- _____, 「계모형 소설유형의 형성과 변모」, 『국어교육연구』제17집, 국어교육학회, 1985.
- 이윤경, 「<성부인전>을 통해 본 <조생원전>의 변모양상」, 『돈암어문학』제15집, 돈암어문학회, 2002.
- 이윤경, 「계모형 가정소설의 서사구조적 원리와 존재양상 연구」, 『古小說研究』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 이종서, 「‘전통적’ 계모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제51집, 한국역사연구회, 2004.
- 이지하, 「<김인향전>의 인물형상화와 작품지향성의 관계 - <장화홍련전>과의 비교를 토대로 -」, 『동양고전연구』제38집, 동양고전학회, 2010.
-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이태옥, 「朝鮮朝 家庭小說에 나타난 葛藤構造」, 『論文集』제27집, 건국대학교, 1988.
- 이혜숙, 「<정진사전>의 구조와 의미」, 『논문집』제8집, 혜전대학교, 1990.
- 임형모, 「한국과 몽골설화에 나타난 ‘가족살해’ 모티프 - 친부 및 자식 살해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제26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7.
- 장시광, 「계모형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작가의식」, 『국문학연구』제7집,

- 국어국문학회, 2002.
- 정상진, 「계모형 고전소설의 후대적 변모와 <황월선전>」, 『牛岩斯黎』제9집,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 정중대, 「가정소설의 인물」, 『국어교육』제81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3.
- 정지영, [장화홍련전: 조선후기 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역사비평』제61집, 역사문제연구소, 2002.
-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기>」, 『배달말』통권 제27호, 배달말학회, 2000.
-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한문학보』제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 조옥라,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제2집, 한국여성학회, 1986.
-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민족문학사연구』제15집, 민족문학사학회, 1999.
- 조현우, 「고소설의 악과 악인 형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 초기소설과 영웅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 글』제41집, 우리말글학회, 2007.
- _____,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1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탁원정, 「가정소설에 나타난 ‘집’ 연구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제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한상현, 「<金仁香傳> 주인공의 인격적 성향과 가정비극의 상관성 - 繼母型 가정소설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제17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 황영옥, 「<정을선전>연구」, 『국어국문학』제24집,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7.